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오경훈 연작소설〈제주항〉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소 영

2022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경훈 연작소설 <제주항>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윤

김 소 영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김소영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고 인 수 인

위 원 노 대 원 인

위 원 김 동 윤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6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Oh Kyung-hoon's serial novel, <Jeju Port>

Soyo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Dong-yu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2.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Dong-yun kim,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과 선행 연구 검토 ····· 1
2. 연구 방법 ····· 6

Ⅱ. 연작의 구성과 공간 인식 ····· 11
1. 연작의 구성 전략 ····· 11
2. 공간 인식의 구현 양상 ····· 18

Ⅲ. 제주항과 그 주변의 장소성 ····· 29
1. 개항 전후의 장소성 ····· 31
1) 절해고도 탈피의 가능성과 한계 ····· 31
2) 개항 이후의 이중식민화 ····· 40
3) 변방의식과 식민성 내재화 ····· 48
4) 상생과 항거의식의 발현 ····· 59
2. 해방 직후의 장소성 ····· 68
1) 절멸의 땅과 반공의 보루 ····· 68
2) 인정 욕망과 기억투쟁 ····· 79
3) 경관이 된 장소와 대항기억 ····· 89
3. 개발 이후의 장소성 ····· 95
1) 산업화와 이주의 땅 ····· 96
2) 개발의 파토스와 빼앗긴 공간 ····· 103
3) 상실감과 상승 욕망의 길항 ····· 113
4) 저항정신과 공동체주의의 확장 ····· 121

Ⅳ. 결론 ····· 131

참고문헌 ····· 135
ABSTRACT ····· 140
〈부록〉 오경훈 연보 ····· 14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선행 연구 검토

이 글은 오경훈이 2002~2006년에 발표한 12편의 연작소설 〈제주항〉[1]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제주항〉 연작은 18세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제주 역사와 사람들의 생활상을 제주항(濟州港)이라는 공간적 맥락 안에서 응축하여 그려낸 작품이다. 이 연구에서는 작품에 나타나는 제주항 및 그 주변 장소의 변천과 주민들의 삶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작가 오경훈의 시각에서 재구성된 제주의 지역사와 지역적 정체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제주지역문학사 안에서 〈제주항〉 연작이 갖는 위상을 재고하고 제주문학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944년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에서 출생한 오경훈은 고교 시절 1년과 군대 생활 3년 등 4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제주에서 살아왔다. 고향인 세화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고(세화초등학교, 세화중학교), 1959년 부산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년을 보냈다가, 4·19혁명의 여파로 다시 제주에 내려와 오현고등학교에서 나머지 기간을 수학하였다. 1962년에 제주대학교 병설교육과(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 입학해 1964년에 졸업한 그는 구좌중앙초등학교로 첫 발령 받은 이후 약 25년간을 교사로 근무하였다. 1989년 교직을 그만둔 그는 당시 창간한 한라일보에서 문화부 차장, 출판국장을 역임해오다가 1994년에 사퇴하였고, 이후로는 소설 창작에만 전념하였다.

오경훈은 교사 재직 중이던 1974년(31세)에 단편소설 「우도」를 제주문인협회가 간행하는 『제주문학』에 발표하여 창작 활동을 시작하면서 중앙문단에 문을 두드렸다. 1976년 단편소설 「표류」가 『현대문학』에 초회 추천되었으나, 당시 추천작가였던 오영수의 타계(1979)로 등단이 지연되었다. 1987년 하근찬의 추천으

1) 오경훈은 2005년 연작소설집 『제주항』을 간행한 이후 그 연작 세 편을 추가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단행본의 경우 『제주항』이라 표기하고, 세 편의 추가 발표작을 포함한 연작 전체(12편)를 지칭할 경우에는 〈제주항〉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 『현대문학』에 「사혼(死婚)」을 발표하면서 뒤늦은 완료 추천을 받았다(44세). 실제 창작 시점부터 등단에 이르기까지는 약 십여 년의 기간이 걸린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교육제주』에 단편소설 「그래도 한세상」(1981), 「나래 지친 새야」(1984)[2]를 발표하였고, 김병택, 고시홍 등과 함께 '경작지대' 동인으로도 활동하면서 『경작지대』에 단편소설 「밀항의 하늘」(1984), 「바람 부는 땅」(1984), 중편소설 「유배의 땅」(1986)을 발표하였다.[3]

등단 이후 본격적으로 집필 활동에 착수한 오경훈은 『현대문학』에 단편소설 「역사 만들기」(1987), 「당신의 작은 촛불」(1988)을 발표하였고, 『경작지대』에 단편소설 「작은 섬」(1987)과 중편소설 「남도(南島)의 여인」(1989)[4]을 발표하였으며, 『현대문학』에 중편소설 「유배의 땅」을 「유배지」(1989)로 개제(改題), 일부 개작하여 발표한 후 1992년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협회보』에 단편소설 「호랑가시나무 추억」을 발표하였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그간 발표했던 단편 9편을 엮어 첫 창작집 『유배지』를 출간하였다. 1997년에는 장편소설 『날개의 꿈』을 출간하였는데, 추후 이를 부분 개작하여 『침묵의 세월』(2001)로 개제 출판하였다. 이후 제주작가회의 기관지인 『제주작가』 2호에 단편소설 「은폐」(1999)를, 3호에 「바람 속에서」(2000)[5]를, 7호에 「가신 님」(2001)[6]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제주작가』에 〈제주항〉 연작을 연재하기 시작했

---

2) 단행본 『유배지』에 수록할 때에는 「나래지친 새」로 이름을 바꿨다.

3) "『경작지대(耕作地帶)』는 1983년에 결성된 '경작지대' 동인들이 간행한 것으로 모두 4집까지 나왔다. 오경훈·송상일·김병택·고시홍·장일홍·문무병·나기철·김광렬·김승립 등 9명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3집부터는 김용길도 가담했다. (중략) 제1집은 1984년 10월, 제2집은 1986년 3월, 제3집은 1987년 9월, 제4집은 1989년 5월에 간행되었는데, 2집은 『지상의 어느 곳에서』, 3집은 『변방의 자연과 삶』, 4집은 『동터오는 새벽 속으로』라는 표제를 달았다. 네 권의 동인지에는 시 166편, 소설 8편, 희곡 3편, 평론 3편 등 모두 188편의 작품을 실었다. 동인은 1991년에 해체되었다. 「제1집을 펴내면서」에는 경작지대 결성 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 문학적 지방주의나 특정한 이념을 경계하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하여 시대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지향하며 동인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학에 대한 열정이다. (중략) 이런 점을 입증이라도 하듯, 동인들은 동인 활동 기간 중에 모두 등단하기에 이른다. (중략) 이들 중 상당수는 『경작지대』에 발표한 작품이 주목받은 것을 계기로 등단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인지의 수준이 녹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에서 동인 모두가 등단한 것은 '경작지대'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김동윤, 「제주의 문예지 약사(略史)」, 『제주작가』 20호, 심지, 2008년 봄, 77~78쪽.

4) 단행본 『유배지』에는 「세월은 가고」로 개제, 일부 문장·단락만 부분적으로 다듬고 수록하였다.

5) 추후 이 소설의 기본 플롯 구조를 바탕으로 4·3의 비극적 모티프를 도입하여 새롭게 개작한 「유한(有恨)」이 단행본 『제주항』에 수록되었다.

6) 발표 당시에는 〈제주항〉 연작임을 명기하지 않았으나, 단행본 『제주항』에는 이 소설을 함께 수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7] 이때 연재되었던 작품을 일부 다듬고 고치거나 기존에 냈던 단편을 포함하여 총 9편을 묶어 연작소설집 『제주항』(2005)[8]으로 간행하였다. 단행본 출간 이후로도 오경훈은 『제주작가』에 추가로 3편의 〈제주항〉 연작을 연재했다.[9]

2007년에는 『제주작가』 19호에 단편소설 「깡통」을 발표하였고, 이후 잠시 집필 활동을 쉬었다가 『제주작가』 37호에 단편소설 「마을제」(2012)를 발표하였다. 다시 4년 뒤인 2016년 『제주작가』 55호에 중편소설 「맹꽁아 너는 왜 울어」를, 또 다시 4년 뒤인 2020년 『제주작가』 68호에 단편소설 「가깝고도 먼 곳」을 발표했다. 이어 『제주작가』 74호에 단편소설 「열쭝이 사설」(2021)과 『제주작가』 76호에 단편소설 「사교(邪敎)」(2022)를 더 발표하며, 지금까지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경훈은 지금까지 중·단편소설 33편[10], 장편소설 1편[11] 등 모두 34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오경훈 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가 남긴 세 권의 단행본(『유배지』, 『침묵의 세월』, 『제주항』)이 모두 제주지역의 출판사에서 간행되어 중앙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한 현실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12] 더불어 현기영, 김석범, 현길언, 오성찬 등 특정 작가에 치우쳐온 기

---

7) 오경훈, 「객사 - 제주항 1」,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8호, 실천문학사, 2002년 상반기.
———, 「모변 - 제주항 2」,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9호, 실천문학사, 2002년 하반기.
———, 「빌린 누이 - 제주항 3」,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0호, 실천문학사, 2003년 상반기.
———, 「동거 - 제주항 4」,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1호, 실천문학사, 2003년 하반기.
———, 「기념탑 - 제주항 5」,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3호, 실천문학사, 2004년 하반기.
———, 「어선부두 - 제주항 6」,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4호, 실천문학사, 2005년 상반기.
여기에, 「아, 제주항」(민족문학작가회의 편, 『내일을 여는 작가』 통권 31호, 작가회의 출판사, 2003년 여름호)이 단행본 출간 시 추가되었다.

8) 오경훈, 『제주항』, 도서출판 각, 2005. 앞으로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괄호에 쪽수만 표기한다.

9) 오경훈, 「탑동광장 - 제주항 7」,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5호, 실천문학사, 2005년 하반기.
———, 「진상 가는 배 - 제주항 8」,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6호, 실천문학사, 2006년 상반기.
———, 「항구다방 - 제주항 9」,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7호, 실천문학사, 2006년 하반기.

10) 「유배의 땅」(1986)과 그것의 개작본 「유배지」(1989), 「남도(南島)의 여인」(1989)와 그것의 개작본 「세월은 가고」(1993)는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일부 문장·단락만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기에 같은 작품으로 보았다.
「바람 속에서」와 그것의 개작본인 「유한(有恨)」은 기본 플롯 구조와 등장인물, 작품의 도입부와 결말 자체는 엇비슷하되, 기존에 없던 4·3의 모티프를 녹여내는 과정에서 중후반부 스토리와 주제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에 각각 별개의 작품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단행본에 미수록된 오경훈의 중·단편소설들은 다음의 12편이다(〈제주항〉 연작소설 단행본 미수록분 포함): 「표류」(1976), 「은폐」(1999), 「바람 속에서」(1999), 「탑동광장」(2005), 「진상 가는 배」(2006), 「항구다방」(2006), 「깡통」(2007), 「마을제」(2012), 「맹꽁아 너는 왜 울어」(2016), 「가깝고도 먼 곳」(2020), 「열쭝이 사설」(2021). 「사교(邪敎)」(2022)

11) 『날개의 꿈』과 『침묵의 세월』은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으며 개작 과정에서 일부 문구 수정에 그쳤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파악하였다.

12) 김동윤, 「변방의 한계 혹은 변방의 가능성 - 오경훈론」,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362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존 제주 소설 연구 지형의 한계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초창기 오경훈 소설에 대한 비평적인 논의로는 김영화(1987), 김윤식(1988), 임헌영(1989)의 월평이 있다.

김영화는 오경훈의 「역사 만들기」를 두고 "증언과 기록이 갖는 의미를 점검한 소설"이라고 평가하면서, "왜곡과 과장이 흔한 이 시대에 인간의 어떤 요소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물은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13] 고 말하였다. 김윤식은 「당신의 작은 촛불」에 대해 "유형성(자동화단계)에서 벗어나" "누구와도 낯설지 않지만 누구와도 닮지 않은 것(…)으로서의 이종 인물형이 창조"[14]된 점에 주목하였다. 임헌영은 「유배지」를 두고 "중간계층의 행동반경이 지닌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는 "작가의 역사의식의 한계가 아니라 봉건적 왕도정치 체제가 지닌 양심적 지식인의 한계"[15]라고 보았다.

이후 김동윤에 의해 작가론[16]이 발표된 데 이어 연작소설집 『제주항』이 간행되면서 이에 대한 김동윤과 홍기돈, 고명철의 서평이 발표되었다.[17] 김동윤은 오경훈의 작품세계를 분석하면서 기실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4·3'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라는 공간의 의미를 부각시킨 가운데 섬에서 살아가는 변방인들의 행태와 의식을 조명한 작품들"[18]이 많고 그에 따라 오경훈 문학에는 바다라는 공간이 항상 형상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무엇보다 오경훈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는 "작품의 주조는 역사와 현실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휴머니즘"임을 강조하는 한편, 오경훈이 "변방에서 활동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변방 작가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작가"[19]라고 평하고 있다.

---

13) 김영화, 「독자의 상상력과 작가의 상상력」, 『현대문학』 1987년 8월호.
14) 김윤식, 「남의 목소리, 내 목소리, 또는 주변적인 것」, 『문학사상』 1988년 3월호.
15) 임헌영, 「중간계층의 현실대응」, 『현대문학』 1989년 7월호.
16) 김동윤, 「변방의 한계 혹은 변방의 가능성」, 앞의 책.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9호, 실천문학사, 2002년 하반기.)
17) 김동윤, 「항구에서 꿰어낸 섬의 운명과 역사 - 오경훈의 연작소설집 『제주항』」,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5호, 실천문학사, 2005년 하반기.)
홍기돈, 「동백꽃 보며 장두를 떠올리다」, 『문학의 창에 비친 한국 사회』, 삶창, 2020. (「추위 속에 핀 붉은 동백꽃을 보며, 장두를 떠올리다 - 〔문학으로 읽는 우리 시대〕 오경훈의 『제주항』에 대하여」, 『래디앙』, 2013.01.21.)
고명철, 「제주 항포구의 창조적 저항과 응전 - 오경훈의 연작소설 『제주항』」, 『문학의 중력』, 도서출판b, 2020. (『귤림문학』 26호, 귤림문학회, 2018.)
18) 김동윤, 「변방의 한계 혹은 변방의 가능성」, 앞의 책, 363~364쪽.
19) 위의 책, 378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작소설집『제주항』의 경우에, 김동윤은 이 작품이 "제주항을 중심으로 제주섬의 운명과 역사를 한눈에 꿰어보았다"[20]는 점에서 이전에 없던 시도임에 주목하면서, "파란만장한 제주섬의 역사와 제주민의 삶을 바다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여 포착해낸 문제작"[21]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문학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고평하였다.

홍기돈 역시 "제주항을 매개로 하여 (…) 변방에 자리한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다채롭게 펼쳐내고 있"어 흥미로운 작품임을 언급하며, "국사(國史)가 아닌 지역사(地域史)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소용돌이를 파악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제주항』은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22]고 말했다. 특히 제주섬 특유의 공동체주의 안에서 장두가 출현하고 이들에 의해 다시 공동체주의가 강화되어 나가는 양상을 잘 짚어내고 있는 소설임을 강조하였다.

고명철 또한 "제주의 항포구와 관련한 크고 작은 서사들이야말로 제주를 이루는 삶과 현실에서 빼놓기 힘든 실제"임에 착안하여, 특히 작품에서 보여지는 "제주의 근대적 저항은 섬의 자족성과 개방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육지로부터 생긴 모순과 억압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낡고 구태의연한 것을 과감히 쇄신하고 혁신하는 체제 변혁의 동력을 수반하기도 한다"[23]는 점을 주목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지금까지 오경훈의 〈제주항〉 연작은 제주의 공간적 특성과 거기에 대응하는 제주 사람들의 심성구조를 정교하게 엮고 구체화하여 지역문학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어 오경훈 문학의 성취로 평가된다. 섬으로서의 속성을 필연적으로 내재한 제주의 역사를 '제주항'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탁월하게 형상화하는 한편, 그러한 역사의 결박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부두 주변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종합하여 제주 역사를 지역의 관점에서 새롭게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경훈의 〈제주항〉 연작은 지역문학사의 자장 안에서 적지 않은 가치를 지닐 것이므로 선행 연구를 보완, 확장하는 본격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

20) 김동윤,「항구에서 꿰어낸 섬의 운명과 역사」, 앞의 책, 266~267쪽.
21) 위의 책, 261쪽.
22) 홍기돈,「동백꽃 보며 장두를 떠올리다」, 앞의 책, 81쪽.
23) 고명철, 앞의 책, 255~256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연구 방법

〈제주항〉 연작 속 제주 항포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와 일상을 장소성의 측면에서 상세히 분석하는 작업은 오경훈 문학의 독특성과 지역문학적 가능성을 규명하는 적절한 방식일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문학과 장소성의 개념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이 글은 〈제주항〉 연작에 나타나는 장소성이 제주의 역사,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와 심성구조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제주 작가로서 오경훈이 지닌 역사인식과 작가의식을 도출해보려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 이 연구의 주요 방법론적 개념으로 차용한 '장소성'의 의미를 먼저 밝혀둘 필요가 있다.

공간(space)과 구별되는 '장소(place)'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유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유럽을 풍미한 철학사조인 현상학에 근간을 둔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24]. 이를 토대로, 장소 이론의 고전격이라 할 수 있는 이-푸 투안과 에드워드 렐프는 인본주의 지리학을 주창하였다. 투안은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며,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공간은 개방성, 자유, 위협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장소는 안전, 안정의 속성을 지닌다.[25] 이때 장소가 주체에게 부여하는 정신적 안정감은 말하자면 장소라는 개념의 물질성이 발휘하는 힘이다. 처음에는 주체가 공간을 전유하여 장소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나, 이렇게 주체에 의해 생산된 장소는 주체에게 거주할 곳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주체 자체의 생산자가 된다.[26] 장소와 주체는 이렇듯 서로에 의해 상호의존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방법론에 근간을 둔 인본주의 지리학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소는, 기존의 공식적 지리학(형식적 지리학 또는 과학적 지리학)에서 설정한 장소와는 다른 차원의 범

24) Heidegger,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 1958, p.19. ;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05, 25쪽에서 재인용.
25)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역, 대윤, 2007, 19쪽.
26) 서영채, 『풍경이 온다』, 나무나무, 2019, 286~287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주를 갖는다. 즉, 공식적 지리학의 지식으로 가공되기 이전에 실재하는, 지식보다 우선하는 생활세계로서의 장소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상학이 그러하듯, 현상학에 토대한 인본주의 지리학 역시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와 맺는 방식이자, 인간의 실존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를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생활세계를 '장소'라는 공간적 범주로서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27]

한편 렐프는 현상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장소가 존재론적 차원에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28] 이때 장소는 고유한 입지, 경관, 공동체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특정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그에 따르면 장소는 추상이나 개념이 아니다. 장소는 생활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이며, 그래서 의미, 실재 사물, 계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29]

특히 데이비드 하비에서 얘기되고 있듯, 장소(성)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 발전, 변화 소멸되고 다른 장소, 장소성으로 대체되며, 이러한 점에서 장소, 특히 장소성은 외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uct)이다.[30] 다시 말해 장소는 단순한 기억과 관심(주관적) 속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과정이나 배경 속에서 구축되며 또한 그 사회의 지배적 담론과 관련된다. 이러한 장소를 둘러싸고 구성되는 장소성(placeness)이란 장소의 인지된 특성으로 인간이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에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일컫는다. 이때 단지 개인의 장소감의 합이 그 장소의 장소성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별적인 장소감의 형성 과정과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 예를 들면 집단적인 경험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측면이 장소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31] 다양한 주체들의 독특함과 정서, 또 집합적인 경험으로서의 역사가 그 안에 새겨져 있는 특별한 공간이 곧 장소[32]인 것이다.

---

27) 심승희,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과 현대 경관」,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303쪽.
28) 문재원, 「문화전략으로서의 장소와 장소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21쪽.
29)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87~288쪽.
30) 데이비드 하비, 『희망의 공간』, 최병두 역, 한울, 1993, 64쪽.
31) 백선혜, 「장소 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32~3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편, 렐프는 투안이 토포필리아(topophilia, 장소애)에 지나치게 천착한 나머지 토포포비아(topophobia, 장소혐오)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근대 이후 변화된 생활세계의 양태 안에서 "장소와 장소경험의 특징이 비(非)진정한 장소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장소성'(placelessness)"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개념을 각별히 강조하였다. 이때 토포포비아는 렐프 식으로 말하면 장소에 대한 진정성(authenticity)이 가미되지 않은 비진정한 장소경험이다. 투안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서 장소에 대한 인간의 개별성·주체성·능동성에 우위를 두는 경험적 관점에 천착하고 있다면, 렐프는 인간 개개인의 장소경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현대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소경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추려내고자 한다.[33] 따라서 렐프가 "비진정성이 특히 '그들das Mann'의 절대적 권력을 통해 표출된다"[34]고 말할 때, 이것은 매스컴, 대중 문화, 대기업, 강력한 중앙 권력,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제 체제를 통틀어 지칭하는 이른바 '매체'(media)의 권력을 말하며, 근대 이후의 사회는 이러한 매체들에 의해 장소들을 서로 비슷해 보이게 하고, 똑같이 무감동한 경험을 하도록 하여 장소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버린다는 것이다.[35] 특히 이 글이 주목하는 지점은 중앙 권력과 경제 체제에 의해 특정 지역의 장소가 '타자 지향적'으로 변모하는 장소상실의 과정이다. 지역의 관점에서 장소상실은 지역성(locality)의 존속 여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학에서 '지역'이란 장소를 의미"[36]한다. 지역문학의 경계를 구획하고, 그 영토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적인 대상이 장소라는 점에서[37] 지역문학과 장소성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역문학을 담당하는 작가의 사명은 장소에 새겨진 경관·시간·공동체를 읽어내어 자신이 속한 장소를 재장소화하고 의미화하는 일이다. 이때 장소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gaze)이 문학에 필연적으로 개입되는바, 문학에서 생성된 공간은 이미 있는 장소를 그대로

32) 서영채, 앞의 책, 339쪽.
33) 심승희, 앞의 책, 312~313쪽.
34) 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180쪽.
35) 위의 책, 197쪽.
36) 마루타 하지메, 『장소론』, 박화리·윤상현 역, 심산, 2011, 22쪽. ; 송기섭, 「장소의 생성과 지역문학」, 『국어문학』 75집, 국어문학회, 2020, 168쪽에서 재인용.
37) 송기섭, 위의 논문, 164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의식을 작동시키는 무의식적 층위”[38]를 통해 해당 장소의 장소성이 완성된다. 작가 개인의 애착감에 기인한 장소에 대한 심상과, 시간 속에서 변형되거나 지속된 집단적 경험을 엮어내고 의미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학 안의 장소는 재장소화된다. 이 점에서 송기섭은 ‘재현’된 장소가 아닌 ‘표현’된 장소를 설정해야만 문학에서의 장소성이 제대로 밝혀진다[39]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지역문학이 구체적인 자리에 서서 생활세계의 성찰,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문학이어야 한다[40]는 원론적인 과업을 지니기 때문이며, 그러한 작가의 시선이 얼마나 집단적 경험과 합치되어 지배 담론 하에 굳어지고 몰각되었던 장소성을 ‘표현’해내고 의미화하는가에 문학적 성공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학과 장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이미 이-푸 투안에서 강조된 바 있다. 투안에 따르면 “문학작품의 기능은 〔장소의 경험을 포함해서〕 친밀한 경험에 가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간의 장소는 궁극으로 표현됨으로써 생생한 실재가 된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장소에 속한 사람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무의식적 층위의 장소감과 장소 정신이 문학의 언어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장소의 정체성이 인지 가능한 차원으로 의미화된다는 뜻이다.[41] 지역문학을 담당하는 작가의 사명은 이렇듯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체성을 문학을 통해 가시화하고 재의미화하는 데 있다.

이 점에 비춰보면 오경훈의 〈제주항〉 연작은 “제주도라는 공간의 의미를 부각시킨 가운데 섬에서 살아가는 변방인들의 행태와 의식을 조명”하며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섬의 운명”[42]을 장소성의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제주문학뿐 아니라 지역문학사의 자장 안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제주섬의 지정학적·문화적 특성이 공간으로 집약된 ‘제주항’이라는 장소를 전경화하여, 출륙이 금지되었던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 개발담론이 공고히 안착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섬을 둘러싸고 휘몰아치는 하나의 도저한 폭력적 흐름이 제주사회를

38) 문재원, 앞의 책, 25쪽.
39) 송기섭, 앞의 논문, 163쪽.
40) 박태일, 「지역문학의 현실과 과제」,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41) 이-푸 투안, 앞의 책, 286쪽.
42) 김동윤, 「항구에서 꿰어낸 섬의 운명과 역사」, 앞의 책, 2006, 261쪽. (이 글은 오경훈이 연작소설집 출간 이후 〈제주항〉 연작을 『제주작가』에 추가로 게재함에 따라 내용을 부분 수정하여 「섬의 고투를 조망한 등대지기의 혜안」(『귤림문학』 15호, 2007.)이라는 글로 재발표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휩쓸고 있는 양상, 이런 사태가 도민들의 심성구조에 녹아들어 장소상실을 유발하는 한편 그것이 다시 섬의 장소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주항〉 연작은 중심부에 대한 '변방'으로 내/외부적으로 인식되는 지역의 역사를, 그러한 지역적 특성의 중심적 공간 표상으로서의 '항구'의 장소상실 과정을 통해 지역인들의 입장에서 그려내었다. 더불어, 그처럼 무장소화된 장소 안에서 면면히 출몰하는 개개인의 '장소애'와 집단 층위의 '장소 정신'의 변증법적 산물로서의 장소성을 작가의 시각에서 '표현'함으로써 제주의 로컬리티를 재의미화하고 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구를 걸으면서 끝 모르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바닷바람을 몸으로 맞으며 제주섬과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던 작가 자신의 인식의 총체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심상지리적 측면에서 작가 자신과 제주 사람들에게 항구와 바다가 어떻게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이 제주문학이 갖는 지역성의 한 단면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간 인식의 바탕 위에 역사성과 현장성을 내재한 복합적인 층위의 '제주'에 대한 공간 인식이 〈제주항〉 연작 속 제주항과 그 주변 공간의 장소성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검토해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제주에 대한 여러 공간 인식을 토대로 연작에 나타나는 제주항과 그 주변 공간의 장소성을 '개항 전후-해방 직후-개발 이후'로 구분지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때, 각각의 시대 안에서 항구를 매개로 이뤄지는 지역인들의 생활세계와 역사가 제주항을 환유한 제주사회의 장소성을 어떻게 말살/형성시켜왔는가를 작품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소성 말살/형성의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키고 이를 개개인의 미시사로 풀고 엮는 방식을 통해 〈제주항〉 연작 속에서 제주의 지역사와 지역성(locality)이 어떻게 총체화되고 재의미화되는가를 밝혀 보이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는 〈제주항〉 연작이 구사하는 문학적 시도가 지역문학사 안에서, 특히 제주의 지역문학사 안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제주문학이 나아갈 길의 하나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으로 제주문학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연작의 구성과 공간 인식

1. 연작의 구성 전략

오경훈의 〈제주항〉 연작은 단행본 『제주항』에 수록된 9편과 미수록본 3편을 포함한 총 12편을 지칭한다. 「객사(客舍)」·「모변(謀變)」·「비극의 여객선」·「유한(遺恨)」·「가신 님」·「빌린 누이」·「어선부두」·「기념탑」·「동거(同居)」 등 9편은 단행본에 수록되었고, 「진상 가는 배」·「탑동광장」·「항구다방」 등 3편은 그 후에 추가 연재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연작소설집 『제주항』(2005)을 기본 텍스트로 삼되, 단행본에 실리지 않은 추가 발표작 3편도 함께 묶어서 살피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단행본 상의 작품 순서와 실제 연작 발표 당시의 연재 순서, 발표시기와 발표지, 단행본 수록 여부, 연작 연재 표시 여부 등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순 서		작 품	발표시기	발 표 지	단행본 수록 여부	연작 연재표시 여부	비 고
발표 기준	단행본 기준						
1	4	유한(有恨)	2000. 12.	제주작가 3호	○	×	연작 연재 이전 발표작 「바람 속에서」 개제·전체개작
2	5	가신 님	2001. 12.	제주작가 7호	○	×	연작 연재 이전 발표작
3	1	객사(客舍)	2002. 6.	제주작가 8호	○	○	
4	2	모변(謀變)	2002. 12.	제주작가 9호	○	○	
5	3	비극의 여객선	2003. 6.	내일을 여는 작가 31호	○	×	연작 연재 중 별도 발표작 「아, 제주항」 개제·부분개작
6	6	빌린 누이	2003. 6.	제주작가 10호	○	○	
7	9	동거	2003. 12.	제주작가 11호	○	○	
8	8	기념탑	2004. 12.	제주작가 13호	○	○	
9	7	어선부두	2005. 6.	제주작가 14호	○	○	
10		탑동광장	2005. 12.	제주작가 15호	×	○	
11		진상 가는 배	2006. 6.	제주작가 16호	×	○	
12		항구다방	2006. 12.	제주작가 17호	×	○	

〈표1〉〈제주항〉 연작 발표 관련 현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오경훈은『제주작가』에〈제주항〉연작을 연재하기 이전에 단편소설「바람 속에서」(「유한」의 원작)와「가신 님」을 먼저 발표하였고, 그 직후에〈제주항〉연작 연재를 명기하여 개시하였다.『제주작가』연재 당시 순서는「객사」-「모변」-「빌린 누이」-「동거」-「기념탑」-「어선부두」순이었으며, 그 도중에『내일을 여는 작가』지면에는 연작 중 1편(「아, 제주항」(「비극의 여객선」의 원작))이 발표되었다.

「아, 제주항」은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과정에서 큰 수정 없이「비극의 여객선」으로 제목을 바꾸어 연작소설집의「모변」뒤에 배치되었다.「유한」의 경우,〈제주항〉연작을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제주작가』에 기고하였던 단편소설「바람 속에서」를 개제·개작한 작품으로[43]「비극의 여객선」뒤에 배치되었다. 마찬가지로〈제주항〉연작 연재 이전에『제주작가』에 발표하였던 단편소설「가신 님」도 단행본 제작 과정에서 연작에 편입되어「유한」뒤에 배치되었는데 별도의 개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단행본 수록 순서는 작품상의 시간적 배경 순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이후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 곧「유한」(초고「바람 속에서」의 집필 시기 기준)-「가신 님」-「빌린 누이」-「동거」-「기념탑」-「어선부두」순으로 연재되었던 연작들은 서로 시기가 엇비슷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시간적 흐름에 따라 혹은 작가가 의도한 주제의식에 맞춰 순서를 재구성하였다. 곧 4·3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전란 상황을 겪고 난 후 그 여파에 시달리는 인물들과 사회상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비교적 앞부분에, 국제자유도시 지정 이후 개발 열풍에 직면한 제주의 현재상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은 비교적 뒷부분에 배치되어「빌린 누이」-「어선부두」-「기념탑」-「동거」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 단행본이 발간된 이후에도 그는『제주작가』에 3회 더 연작을 기고하였다. 제주의 현재적 상황을 다룬「탑동광장」과「항구다방」을 추가로 발표하였고, 둘 사이에 19세기 중엽을 배경으로 한「진상 가는 배」를 발표하였다. 18세기 초가 배경인「객사」와 20세기 초가 배경인「모변」사이의 역사적 공백을 의식해 해당 시

43) 기본 플롯 구조와 인물 설정, 작품의 도입부와 결말 자체는 엇비슷하게 유지하되 기존에 없던 4·3의 모티프를 녹여내는 과정에서 중·후반부 스토리와 주제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에서 둘은 사실상 별개의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를 다룬「진상 가는 배」를 추가하여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44]

이와 더불어 단행본 출간 과정에서도 기존에 연작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았던 작품이 중간에 삽입되고 연재 당시의 기고 순서와 다르게 배치된 과정을 고려할 때, 그가 처음부터 〈제주항〉 연작의 형식적 틀을 용의주도하게 기획해두고 창작에 임했다기보다는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번의 숙고와 탈고를 거쳐 창작에 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만약 〈제주항〉 연작소설집이 추가 연작 3편을 포함하여 개정 출간된다고 할 경우 그 순서는「진상 가는 배」가「객사」와「모변」 사이에 추가되어 두 번째에 배치될 것이고, 근래의 상황을 소재로 한「탑동광장」과「항구다방」은「동거」의 전후에 자리 잡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단행본과 추가 발표작을 합한 〈제주항〉 연작은 발표 순서와는 달리「객사」→「진상 가는 배」→「모변」→「비극의 여객선」→「유한」→「가신 님」→「빌린 누이」→「어선부두」→「기념탑」→「동거」→「탑동광장」→「항구다방」의 순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순서로 〈제주항〉 연작의 구성을 확정적으로 파악해 둔 가운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주항〉 연작의 큰 흐름을 간단히 요약하면, 조선 후기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별도포 축항에 힘쓴 김정 목사의 사연을 다룬「객사」에서 시작하여, 이양선이 출몰하던 19세기 중엽 영국 군함 2척이 가파도에 있는 국우를 노략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프로 한「진상 가는 배」와, 구한말 신축항쟁(이재수란)을 전후하여 일본 어민들의 어장 침범에 제주 어민들이 저항하는 내용의「모변」,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 막바지 때의 제주사회의 혼란한 상황과 미군의 여객선 폭격 사건을 다룬「비극의 여객선」을 지나, 4·3과 한국전쟁이라는 연속된 비극 속에서 희생당한 이들과 여전히 그 여파 속에 신음하는 인물들을 그린「유한」,「가신 님」,「빌린 누이」, 한일어업협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아내가 가출하는 등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는 선원의 삶을 다룬「어선부두」, 4·3과 베트남전쟁을 연계시켜 부자(父子)로 이

44)「진상 가는 배」가 발표되기 이전에 김동윤은 단행본 상의 이같은 역사적 공백을 지적하면서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까지의 역사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점은 아무래도 찜찜"하며 "이왕 제주항을 둘러싼 제주섬의 역정을 담아낼 양이었다면 격변으로 점철된 160년 세월의 한 부분만이라도 짚고 갔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 김동윤,「항구에서 꿰어낸 섬의 운명과 역사」, 앞의 책, 266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지는 비극의 대물림을 형상화한 「기념탑」, 개발 열풍 속에 몰락한 인간이 외지 젊은이들과 이어가는 동거생활을 그린 「동거」, 해군기지 유치 반대로 떠들썩한 탑동광장과 그 주변에서 한국전쟁 참전 경력의 노인과 노숙자들의 일상을 그린 「탑동광장」, 항구부두를 중심으로 사업하는 이와 부두에서 일하는 노무자, 다방 사장 등의 애환을 담은 「항구다방」에 이르기까지, "제주 항포구를 배경으로 18세기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제주 역사를 날줄과 씨줄로 풀어내고 있다"[45]. 출륙 금지령이 내려졌던 조선시대로부터 국권을 빼앗겼던 식민지시대, 이념 혼란이 극심했던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46]의 제주 역사가 '제주항'을 매개로 작가가 던진 저인망에 단단히 걸려들어[47] 있는 것이다.

작품별 시대적 배경과 주요 사건들을 일별하면 〈표2〉와 같다.

이 중에서 「객사」와 「진상 가는 배」, 「모변」, 「비극의 여객선」은 해방 이전 제주의 역사적 사건과 허구가 합해진 소설들이다. 조선 후기 출륙 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1700년대, 이양선이 출몰하던 1800년대, 민란이 잦던 구한말과 해방을 앞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근대 이행기가 실제 모티프들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객사」는 제주에 출륙 금지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실존인물 목민관 '김정(金儌)'(1670~1737)이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고 축항 공사에 힘쓴 이력을 담고 있다. 연재 당시에는 김정의 실명이 사용되었다가 단행본에는 김정의 호(號)였던 '노봉(蘆峯)'으로 수정 표기되었다. 한 목민관의 노력이 오늘날 개방도시로서의 제주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연작의 포문을 열어젖히는 작품이다.

「진상 가는 배」는 이양선이 출몰하던 19세기 중엽을 배경으로, 영국 군함 2척이 가파도에 배를 대어 소들을 노략질한 일과 그로 인해 제주목사와 대정현감이 파직된 역사적 사건이 다루어진다.[48] 이러한 실제 사건의 토대 위에 당파싸움에 연루되어 제주로 정배된 '원석'네 가족의 사연이 덧씌워져, 격군을 맡은 원석이

45) 진선희, 「〔제주바다와 문학〕 (3) 오경훈 연작소설 '제주항'① 어민 장두의 외침 "용감히 일어나라"」, 『한라일보』, 2019.05.10.
46) 홍기돈, 「동백꽃 보며 장두를 떠올리다」, 앞의 책, 81쪽.
47) 김동윤, 「항구에서 꿰어낸 섬의 운명과 역사」, 앞의 책, 262쪽.
48) 이전의 단편소설인 「역사 만들기」(1987)에 나타난 영국 군함의 국우 노략 사건의 모티프를 확장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작 품		당대 시대적 상황 또는 *과거의 시대적 상황(회상)*	주요 사건
1	객사	조선 후기(1735~37년) 출륙 금지령 시기(1600~1800년대)	- 김정 목사의 별도포 축항 공사
2	진상 가는 배	19세기 중엽(1840~41년 헌종6~7년) 이양선 출몰 시기	- 영국 군함 2척의 가파도 국우 노략 사건 - 구재룡 제주목사, 강계우 대정현감 파직
3	모변	구한말(1900년대 무렵) 제주신축항쟁(이재수란) 전후 재조선국 일본인민통상장정 발표 이후	- 일본 어민의 어장 침탈, 해녀 겁간 사건 - 제주어민들의 봉기 시도
4	비극의 여객선	태평양전쟁 말기(1945년 5월) 일제의 결7호 작전 당시 제주도내 소개령 선포	- 미군의 고와마루호 여객선 폭격 사건
5	유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추정 *제주4·3, 한국전쟁*	- 예비검속자 행방불명 문제
6	가신 님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추정 *제주4·3, 한국전쟁*	- 제주도의 인정투쟁(자발적 해병대 입대) - 참전용사 흉상 제막 문제
7	빌린 누이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추정 개발열풍 성행 시기 *제주4·3, 한국전쟁*	- 애기업저지의 기구한 삶 - 부동산사업 통한 출세욕구와 좌절
8	어선부두	1998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전후	- 어업 종사자들의 많은 수 일자리 상실 - 아내 가출
9	기념탑	2002년 4·3 피해자 신고서 접수상황 *제주4·3, 베트남전쟁*	- 기회주의자 아버지의 신고서 왜곡 -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기념탑 설치 반려 - 베트남전쟁 참전인들의 고엽제 후유증
10	동거	2000년대 초 온천 개발 열풍	- 몰락한 도내 사업가와 외지 젊은이들의 연대
11	탑동광장	2005년 화순항 해군기지 유치논란 *한국전쟁*	- 참전 경력의 아버지와 진보진영 아들의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 노숙자 문제
12	항구다방	2005년 검찰의 제주항 항운노조 압수수색 상황 *베트남전쟁*	- 항운노조의 비리와 전복 움직임 - 베트남전으로 남편을 잃은 마담과, 베트남 여인과 재혼하겠다는 그의 아들

〈표2〉〈제주항〉 연작 개별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주요 사건

파직될 수령들을 싣고 가며 꿈에 그리던 육지로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한다.

「모변」은 1900년 무렵의 제주로 무대를 옮겨와, '재조선국 일본인민통상장정' 발효 이후 일본 잠수기선이 어장을 함부로 침범하고 해녀들을 유린하며 조정 관리들은 이를 묵인하는 행태를 고발한다. 어민 '기돌'을 주축으로 도모되었던 거사는 마침 같은 시기에 벌어진 신축제주항쟁과 맞물려 실패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평양전쟁 시기 여객선 고와마루호에 대한 미군의 폭격 사건을 다룬 「비극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객선」은 일제 말기 세계대전의 결전장으로 빨려 들어갔던 제주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들뜬 마음으로 제주항을 떠났던 여객선은 불시의 폭격으로 무참히 침몰 수장되어 일부의 생존자들만을 실은 채 다시 쓸쓸히 제주항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현재 시점에서 전쟁의 비극이 오늘에까지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일상의 고단함을 다룬 소설들로 이어진다. 전쟁의 비극과 현재 상황을 결부하는 작품으로 「유한」, 「가신 님」, 「빌린 누이」, 「기념탑」이 있다. 4·3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같은 근현대사의 주요한 비극들이 중첩되거나 현재와 연계시켜 이야기된다. 한편 「어선부두」, 「동거」, 「탑동광장」, 「항구다방」은 항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한 일상을 위주로 다룬 작품들이다.

「유한」의 경우, 4·3 때 징역을 살았다가 한국전쟁을 거쳐 예비검속으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기리며 한을 씻어내리지 못하는 노년의 아들 '한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49]

「가신 님」은 해녀 '수자'의 사연을 담아냈다. 어느 날, 50여 년 전에 한국전쟁에서 죽은 옛 남편 강승운의 동창회장이 수자를 찾아와 승운이 호국영웅으로 선정되어 흉상을 세우니 제막식에 참석할 것을 강권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다루고 있다.

「빌린 누이」는 주인공 양심석의 '애기업저지'로 들어왔던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다룬다. 4·3 당시 여인의 어머니는 서북청년에게 겁간당했고 이에 분노한 아버지는 무장대에 가담했다가 이송되어 한국전쟁을 거쳐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인은 일평생을 항구 주변에서 생선 장수로 일하며 가족을 기다리다 생을 마친다.[50]

「기념탑」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들과, 4·3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를 오고 가며 생사의 기로에 서왔던 아버지의 사연을 통해 세대

---

49) 연작 연재 이전에 발표하였던 단편 「바람 속에서」의 개작본으로, 개작 전에는 노년기에 은퇴하여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인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었다. 주인공 한수와 그의 이웃주민 전직 경찰, 그를 닦달하는 며느리 등의 설정과 작품 초반, 후반의 전개는 그대로 살린 채, 오경훈은 「유한」으로 제목을 바꾸고 4·3과 예비검속의 비극적 사연을 주요 소재로 도입해 남겨진 자식의 설운 한을 형상화함으로써 개작 전보다 훨씬 깊이 있는 작품으로 탈바꿈시켰다.

50) 이전의 단편소설인 「호랑가시나무 추억」에서 활용한 '애기업저지' 모티프를 확장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를 거쳐 이어지는 비극의 대물림을 형상화한다. 여기에 항구에 '기념탑'을 세워 역사로부터 잊히지 않고자 분투하는 월남 참전용사들의 인정투쟁을 병치시킨다.

이상 「유한」, 「가신 님」, 「빌린 누이」, 「기념탑」은 공통적으로 근현대사의 비극을 겪고 난 이후의 남겨진 이들의 문제적 일상을 조명하는 한편, 4·3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이라는 과거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서로 연속된 맥락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 소설들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의 과거 회상, 그리고 과거의 이들을 현재의 욕망에 맞추어 끄집어내는 시도들과 맞물려 현재와 과거가 교차한다.

「어선부두」는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 등 근대화 과정 속에서 "변해버린 항구의 모습을 통해 소외된 인간 군상과 붕괴되는 가족과 공동체"[51]를 그린 작품이다. 협정의 여파로 보제기 출신의 '선우'가 일자리를 잃고, 수산시장이 새로 생기며 노점상에서 고기를 팔던 아내 '재숙'까지 일자리가 뺏기는 등 힘든 생활 속에서 가출을 감행한 재숙을 선우가 찾아다니는 사연을 그리고 있다.

단행본 상의 연작에서 마지막 작품에 해당하는 「동거」는 개발 열기와 그 주변에 모여든 인간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투자에 실패하여 몰락한 한 인간이 '외래자' 출신 젊은이들과 이어가는 기묘한 동거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다.

「탑동광장」은 6·25전쟁에서 부상당한 '상민'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그려진다. 그는 인근의 노숙자들과 갈등을 벌이는가 하면,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진보 색깔 아들과도 언쟁한다. 여기에 화순항 해군기지 유치 찬반 집회가 연일 벌어지던 탑동광장의 화려한 풍경과, 그 건너편 초라한 구도심의 풍경이 대비를 이룬다.

〈제주항〉 연작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항구다방」은 귀족노조화된 항운노조의 비리로 압수수색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 항구부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업하는 이와 부두에서 일하는 노무자, 다방 사장 등이 다방에 모여 풀어내는 애환을 담고 있다.

이상 현재의 일상에 주로 집중하는 「어선부두」, 「동거」, 「항구다방」은 과거사와의 연속성보다는 근대화 기획과 개발 열풍으로 변해버린 제주항 주변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의 제주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안에서 사태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행동방식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집중한 작품들이다.

---

51) 오어진, 「제주 해양소설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2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리하면, 오경훈의 〈제주항〉 연작은 제주항이라는 공통 소재 혹은 장소를 매개로 저마다 독립된 이야기들 간의 연결고리를 획득하며, 이를 통해 항구를 중심으로 한 제주섬의 미시사가 구축된다. 그 안에서도 개별 작품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곧 태평양전쟁기까지의 제주의 과거사를 당시의 맥락에서 묘사한 작품군, 전쟁의 비극을 소재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작품군, 오늘날 항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에 주목한 작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간 인식의 구현 양상

오경훈은 인근에 바다와 포구를 면한 구좌읍 세화리에서 출생하였고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후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항구를 통해 육지와 섬을 오고 갔다. 그러다 2학년 때 제주시 오현고등학교로 전학 오면서 건입동에 거주하였다. 제주항이 가깝고 뱃고동 소리가 귓전에서 들리는 그곳에서 젊은 날의 오경훈은 자신을 '큰사람'[52]이 되게 해줄 섬 밖의 육지, 그곳으로 자신을 실어줄 항구를 끝없이 그리고 또 그렸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 '제주항'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항』 단행본의 '작가의 말'에서 오경훈은 항구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항구를 볼 때마다 귀때기가 서늘하도록 불어오는 바람이 내 마음을 멀리 끌고 간다. 전송할 사람이 없어도 마중할 사람이 없는데도 발 따라 친구 따라 부두로 나가곤 했던 어린시절이 잊혀지지 않는다.
>
> 항구가 없었다면 꿈을 띄워 보낼 곳도 기다려지는 사람도 상상이 피어날 곳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나는 새벽녘에 또 늦은 저녁에 뱃고동소리를 들을 때면 대번에 마음이 항구로 달려가곤 한다. 나는 항구의 전경을 본다. 그 파노라마 그림은 언제나 나의 의식 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사이다 냄새를 품은 물내음을 풍기는 것이다. 밤새 지치도록 달려온 여객선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내항으로 들어올 때면 또는 출항하는 배가 안벽을 밀어내면서 스크루 물결을 일으킬 때면 중유 연기냄새가 고소하게

52) 오경훈, 「문학적 자화상 - 다시 시작하기」, 제주작가회의 엮음, 『제주의 작가들 2』, 심지, 2005, 140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맡아지면서 연락선을 바라보던 옛 정회가 느껴지는 것이다. 꿈을 싣고 슬픔을 싣고 여객선들은 내 가슴 속을 항해한다.[53]

여기서 알 수 있듯 유년 시절부터 오경훈에게 항구는 특별한 애착이 깃든 장소였다. 틈날 때마다 항구를 드나들던 그에게 항구의 전경은 언제나 그의 의식 속에 선명히 떠올라 '사이다 냄새를 품은 물내음을 풍기'게 한다. 내항하거나 출항할 때의 뱃고동 소리와 연기 냄새, 스크루 물결을 일으키며 이동하는 연락선은 그의 가슴속을 항해하는 여객선이 되어 꿈과 슬픔을 싣고 다녔다. 이처럼 항구가 오경훈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녔던 것은, 그것이 바다를 면하여 배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항은 "제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외지사람들이 제주로 돌아오는 도착점"[54]이었다. 그는 관광 온 외지인의 이국적인 행색을 보면서 섬 밖을 동경하였고 큰 꿈을 좇아 섬 밖으로 떠나는 이들을 부러워하였다. "문학에서 장소는 이야기의 출발선이자, 도달할 당위의 공간"이듯, 그에게 바다와 항구는 "실제(actual) 공간과 실재(reality) 공간"[55]이 얽힌 복합 층위의 공간이었다. 사람들을 싣고 바다로 떠나는 배를 보며 바다 너머의 이상을 향해 부푼 꿈을 갖게 하는 한편, 막상 그것을 보는 자신은 바다 너머로 진출할 수 없다는 쓸쓸한 처지를 돌아보게도 하는 공간이 항구였던 것이다.

다음의 회고 글을 보면, 문학을 대하는 작가로서의 오경훈의 태도 안에 이것과 비슷한 면모가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나는 이상과 현실의 어그러짐 때문에 실의를 씹으며 초쇠한 모양이 되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때문에 가슴 속에서 문득문득 염세적인 생각이 일었다. 나는 얼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져 외톨이 되어갔다.

이때 슬며시 떠오른 생각이 문학이었다. 현실과 꿈 사이의 엄청난 괴리, 갈등은 어쩌면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 자신을 꿈속으로 환상 속으로 던져 넣어 살 수 없을까, 내가 또 하나의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만들어버리

53) 오경훈, 「작가의 말」, 앞의 책, 283쪽.
54) 김동윤, 「항구에서 꿰어낸 섬의 운명과 역사」, 앞의 책, 261쪽.
55)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32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나는 이상향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약간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56]

이상과 현실이 어긋나 실의를 느끼던 그에게 돌파구로 떠오른 것이 바로 문학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문학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이순을 앞두고 쓴 회고에서 오경훈은 "나는 내 재주의 가난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은 가련한 것이지만 나의 조울증 속에서 짱뚱이처럼 머리를 쳐드는 욕망을 죽여버릴 수 없다"[57]고 말하였다. 끝없이 도전하며 이상을 향해 도전하다가도 자신의 역량 부족을 깨닫고 실의에 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그의 문학 생활의 연속이었다. 낙관과 비애감으로 범벅된 제주항 앞바다가 오경훈의 문학 안에서 반복적으로 형상화된 것은 그곳이 그 자체로 작가 자신의 심상이 반영된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연작 속에서 묘사되는 항구와 바다는 "고독한 사람의 내면이 만들어내는" 풍경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절대공간'[58]이 된다.

이를 단지 오경훈 한 사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인식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다가 보이는 개항장 위에 서 있던 많은 지역의 문인들, 특히 '섬'에서 나고 자라 좁고 답답한 섬에서 벗어나 신분 상승과 해방을 꿈꾸던 많은 제주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던 심상이기도 했다. 나아가 이것이 섬의 속성상 개방성과 폐쇄성을 양가적으로 내재한 제주 사람들의 공통된 정신세계라고 할 때, 〈제주항〉 연작 안에서 반복적으로 형상화되는 항구와 바다에 대한 이중적 심상은 작가 개인의 내면 인식일 뿐 아니라 지역문학으로서 제주문학이 갖는 지역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제가 된다. 즉 땅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중심부적 인식이 체화된 탓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와 단절"되어 있다는 스스로의 고립성과 열등감을 재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언제나 다른 세계로 떠날 가능성을 지닌 중간 기착지"라는 점[59]에서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갖게도 하던 것이 제주 사람들이 지닌 항구와 바다에 대한 인식이자 제주 사람들에게 근원적으로 내재된 심성구조였던 것이다. 이러한 양가적 속성은 모두 섬사람들로 하여

56) 오경훈, 「나의 등단기 - 옛 이야기」, 『제주작가』 31호, 제주작가회의, 2010 겨울, 56~57쪽.
57) 오경훈, 「문학적 자화상 - 다시 시작하기」, 앞의 책, 149쪽.
58) 서영채, 앞의 책, 342쪽.
59) 현길언, 「바다와 섬의 문학성과 문학의 본질성」, 제주국제협의회·제주시 편,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도서출판 오름, 1999, 1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금 스스로를 '주변부'라고 인식케 한다는 점에서 '변방'의식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인들의 실존적 처지를 자각하는 공간으로서의 바다와 항구는 〈제주항〉 연작 곳곳에서 제주섬 자체의 존재론적 공간 인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아울러 오경훈이 바라보는 제주항은 그 장소가 탑재한 구체적인 현장성과 역사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를 통해 〈제주항〉 연작 속 항구와 바다가 갖는 '주변부'적 속성은 앞서 언급한 존재론적 층위에 더하여 삶의 터전이자 "제주 사람들의 숨결과 양식", "싸움과 괴로움과 울부짖음"[60]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장소성을 더하게 되면서 더욱 구체적인 지역성을 획득한다. 「작가의 말」에서 오경훈은 다음과 같이 이어 말하고 있다.

> 어선이라면 어떤가. 신새벽에 파도를 쓰고 진동한동 달려와 어선부두 선석에 찰싹 매달리는 발동선들. 수협공판장 앞길에는 좌판 생선장수들이 새벽 장을 벌이고 서민 아낙네로부터 고관, 부잣집 바깥주인들까지 앞 다투어 모여들어 북새를 이룬다. 선박의 기관소리, 하역 기중기소리, 사람들이 왜자기는 소리로 항구는 언제나 떠들썩하고 바쁘다.
>
> 요즘은 연륙의 수단으로 시간이 절약되고 좌석이 편한 항공편을 편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고가(高架) 삭도를 타고 산에 오르는 사람보다 산길을 걷는 사람이 값이 떨어지겠는가.
>
> 나는 항구의 오늘 모습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중엽 항구의 기반이 된 산지포구를 축항하면서 몸소 돌을 졌던 한 목민관의 이름을 알고 있다. 섬을 짓밟았던 외양선의 침범과 어민의 자원을 약탈해간 왜인 머구리들의 만행도 항구를 통해서 보고 있다. 섬을 비극의 참화로 몰아넣은 폭력이 이곳으로 들어왔으며, 배로 실려나간 많은 인명들이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였다.
>
> 섬은 이제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외지인들이 이주해오고 있다. 직업을 찾아서 연인을 찾아서 살고 싶은 곳을 찾아서….[61]

오경훈은 어선부두에서 생업을 이어가거나 그곳을 찾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

60) 위의 책, 23쪽, 29쪽.
61) 오경훈, 「작가의 말」, 앞의 책, 284~28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로 이주해오는 외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북새를 이루는 항구의 풍경, 선박 기관소리와 기중기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들로 소란한 현장을 함께 본다. 국제관광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된 제주의 현재적 모습, 그 안에서도 저마다의 현실을 영위해나가는 제주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구의 오늘만을 보지 않는다. 그는 항구를 보면서 산지포구의 축항→이양선의 침범→왜인 어민들의 만행→4·3→해방 후 예비검속→국제자유도시로 이어져온 제주섬의 역사적 경로를 상상한다. 이러한 역사가 그대로 〈제주항〉 연작 안에 제주항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압축적으로 형상화된다. 개항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였던 목민관 '노봉'(김정)의 기대가 무색하게 개항 이후 제주는 국가와 외세로부터의 식민주의적 폭력과 억압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이런 사정은 개발과 발전의 외피를 두른 근대화의 기획과 글로벌 자본을 유통하는 신식민 체제가 제주사회에 깊이 침투한 오늘날까지 크게 다르지 않게 이어졌다. 항구는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누적되어오는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식민지 제국주의, 근대적 개발독재의 담론이 유포, 확대 및 재생산되어온 공간이며, 섬 사람들의 태생적인 비애감과 식민주의의 내면화, 다른 한편의 끊일 듯 끊이지 않는 저항의식과 같은 복합적인 심성구조를 조장해온 공간인 것이다.

고대 시기부터 제주는 바다를 통해 주변국가/지역들과의 교역을 왕성히 이루어온 한편, 육지와 떨어진 공간적 특성에 의해 내부의 자족성과 독립성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사정은 고려 중기 이후 한반도 정권에 복속되면서부터 심각한 변화에 봉착했다. 경래관(京來官)이 파견되어 말이나 해산물 등의 특산품과 진상품을 포구를 통해 섬에서 반출해가고 다수의 유배인들이 드나들면서 제주는 중앙권력에의 복속과 '변방'의식이 팽배한 타자적·부정적 공간으로 탈바꿈된 것이다. 중앙집권화를 강력히 추진한 조선 전기 태종과 세종 대를 거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제주는 국가에 의해 부의 창출과 교역, 이동 등이 통제되는 '내부식민지'[62]로서 배제의 정치가 작용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특히 조선 후기인 1600년대부터 약 200여 년간의 출륙 금지 기간 동안에는 포구를 통한 물자 이

62) 지방을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 파악하는 관점은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지방자치 지방문화 지방언론의 정치학, 내부식민지론』(개마고원, 2008)에서 제기되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은 현대 한국사회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동과 문화 교류가 국가에 의해 전면적으로 통제되면서 섬의 고립성과 폐쇄성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는 낙후된 사회문화적 환경과 착취의 일상화로 이어졌으며 이 시기를 전후로 제주를 변방으로 여기는 공간적 인식은 더욱 견고해졌다. 제주인들 스스로도 중앙의 하위 단위로서 제주섬과 자신들을 인식하면서 변방의식을 내면화하였다.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한 제국주의의 전 지구적 확장 단계에서 제주는 강대국에 유린당하는 공간이 된다. 프랑스와 일본, 미국의 군함이 차례로 항구를 드나드는 동안 국가와 제국의 이중 억압과 착취로 인한 이중식민성을 경험하였다. 개항의 시점에 조선이 일제와 체결한 통상조약은 포구 앞바다를 왜인들에게 열어주게 되어 제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축소시켰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제국적 식민지배와 자본주의 기획의 일환으로 1920년대에 축조되어 본래적 의미의 항구로서 중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 제주항은 탐라국 시대부터 제주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이었던 제주성의 성곽을 무너뜨리고 그 돌들을 날라다가 만들어진 장소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장소상실의 방식을 담지하였다. 제주 사람들은 이렇듯 자국과 외세의 이중 수탈과 억압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결속하여 폐쇄적인 공동체를 구축해오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창발된 '장두'를 주축으로 끊임없이 집단적 항거를 일으키기도 하며 중앙권력과의 긴장관계를 형성해왔다. 관제조합의 수탈에 맞선 집단적 항의가 전도민적 항일운동으로 뻗어나갔던 제주도 해녀투쟁(1931~1932)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이는 예전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제주섬 특유의 공동체주의이자 자생적인 장소성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나아가 해방 공간에서 '반공'을 국시로 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은 1948년 4·3 항쟁 발발 이후 자유·자본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항구로 들어와 저항하는 섬의 목소리를 말살하였다. 한국전쟁 때에 시행된 예비검속은 그러한 상황의 연장으로, 부둣가 인근 주정공장에 수용되어 있던 예비검속자들 중 많은 수가 제주항 앞바다에 수장되기도 했다. 이렇듯 '절멸의 땅'이었던 제주는 다른 한편 한국전쟁기 동안 '반공의 최후 보루'라는 변용된 공간 인식으로도 표상되었다.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더불어, 제주섬 초토화의 이념적 명분이었던 '반공'사상이 지역 내부에까지 연장·재생산되면서, 4·3 때의 무고함을 증명하고자 자원입대한 이들의 군사훈련의 열기와 그들을 육지로 떠나보내는 남은 이들, 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란을 피해 이주해온 외지인들의 애환이 혼란하게 뒤섞인 분위기가 당시의 항구와 그 주변 장소들을 뒤덮었다.

냉전 체제의 종식과 함께 비극의 흔적이 덮인 자리에, 다시 제주는 '국제관광도시'라는 이름을 걸고 새롭게 도약하려 끊임없이 바다를 메우고 항구를 확장해왔다. 그 시작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에 맞춰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항만 건설과 관광개발이 추진되면서부터였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대규모 투자와 함께 제주공항의 급속한 변모와 더불어 제주항은 지금의 화려한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제주사회를 잠식한 개발담론은 뿌리 깊게 이식된 식민주의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외지 자본·인구의 유입과 도민들의 욕망이 혼재된 개발의 파토스가 항구와 바다를 지배하는 동안 섬의 자족성은 눈에 띄게 상실되었고 지역 내부의 갈등과 경관 훼손 등의 제반 문제들도 함께 초래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규모를 넓혀가는 제주항의 모습에서 이러한 제주섬의 현주소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제주 사람들의 내면에는 식민주의의 내재화와 함께 그 깊은 배면에 자리한 열패감과 저항의식 등으로 복합적인 심성구조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이처럼 장소성이 상실된 항구와 그 주변 공간은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는 이들이 무리를 이루고, 특히 개방이라는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외지인과 내지인이 공생, 연대하는 독특한 모습의 자생적 공동체성을 형성해나가고 있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글은 제주항의 변모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제주사회의 역사적 변천과 그에 따른 '제주'에 대한 주요 공간 인식을 크게 '변방', '항거', '절멸', '반공', '개발', '상생'[63]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는 〈제주항〉 연작 안에 이 같은 공간 인식들이 〈표3〉과 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때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절멸', '반공', '개발'은 "중심의 필요에 의해 '발견'된 것"[64]으로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장소상실'의 측면을 반영하며, '항거'와 '상생'은 이러한 장소상실에 대응하여 공동체 내부에서 형성된 '장소화' 양상을 반영한다. '변방'의

63) '항거'와 '반공', '절멸', '개발'의 제주사회에 대한 로컬리티적 표상은 김동현,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에서 제시한 개념을 차용하였다.
64) 위의 논문, 6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간 인식의 경우 이러한 장소상실의 외부적 상황과, 그로부터 제주민들의 인식 기저에 축적된 근본적인 장소감을 함께 지칭한다.

작품 \ '제주' 표상		변방	항거	절멸	반공	개발	상생
1	객사	○					○
2	진상 가는 배	○					
3	모변	○	○				○
4	비극의 여객선	○	○	○			
5	유한			○	○		
6	가신 님			○	○		○
7	빌린 누이	○		○	○	○	
8	어선부두	○				○	○
9	기념탑			○	○		
10	동거	○				○	○
11	탑동광장		○		○	○	○
12	항구다방	○	○		○	○	○

〈표3〉〈제주항〉 연작에 나타나는 '제주'에 대한 공간 인식

이러한 인식들은 특정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이후에도 잔여 혹은 다른 이름과 형태로 파생되어 왔기에 서로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 〈표3〉에서 알 수 있듯 연작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공간 인식 간의 얽힘은 작가가 이 점을 인지하고 작품 안에 심층적으로 녹여내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먼저 오경훈은 「객사」, 「진상 가는 배」, 「모변」, 「비극의 여객선」에서 근대 이행기 제주의 장소성을 '변방'과 '항거', '상생'의 공간 인식이 긴밀하게 혼재된 양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객사」와 「진상 가는 배」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제주를 '변방'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객사」는 그러한 제주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지식인의 의지를, 「진상 가는 배」는 자신을 곤궁케 하는 이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유배자의 열망을 포구를 매개로 각각 상반되게 표출한다. 한편 「모변」과 「비극의 여객선」은 내부인의 관점에서 '변방'과 '항거'의 공간 인식으로 뒤섞인 제주의 장소성을 보여준다. 「모변」에서는 자국과 외세의 이중 착취와 억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일상화된 상황과,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제주 어민들의 의지가 포구를 중심으로 대립각을 이룬다. 「비극의 여객선」은 제주를 탈주해야 하는 자기부정적 공간으로, 또는 끝까지 싸워야 할 공간으로 상반되게 인식하는 두 인물의 갈등이 항구를 둘러싸고 이중의 장소감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 「객사」와 「모변」은 서로 다른 방식의 '상생'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객사」는 외지에서 온 개항 주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이를 섬의 개방성의 속성에도 부과하여 이후 현재상을 다룬 작품들에 나타나는 외지인과 주민 간의 공생의 모습을 예비하며, 「모변」은 '장두'로 표방되는 '항거'의 근거가 내 옆의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연민과 연대의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생'과 '항거'의 모습은 앞서도 언급하였듯 장소상실에 대응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제주섬의 장소성을 표상한다.

이어서 해방 이후 4·3과 한국전쟁의 국면에서 표상된 '절멸'과 '반공'의 공간 인식은 「유한」, 「가신 님」, 「빌린 누이」, 「기념탑」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유한」, 「가신 님」, 「빌린 누이」는 관찰자적 초점화자의 시선을 빌려 4·3과 한국전쟁의 경험을 모두 겪었던 이들의 중첩된 비극을 다루면서, 절멸과 반공이라는 공간 인식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준다. 또 「유한」, 「가신 님」, 「기념탑」은 제주항 부둣가 인근의 주정공장 터를 중심으로 절멸과 반공의 기억이 도사리는 무장소화된 공간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내부인들의 변방의식이 인정투쟁의 방식으로 표출되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다시 주정공장의 폐쇄와 함께 국가에 의해 지워지기를 강요당하면서, 기억이 현재화되지 못하고 과거 속에 박제되거나 없던 일처럼 은폐되던 장소상실의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이때 「유한」과 「기념탑」은 이러한 장소상실의 과정 속에서 면면히 출몰하는 대항기억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기억의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유한」은 4·3과 한국전쟁으로, 「기념탑」은 4·3과 베트남전쟁으로 각각 대표되는 절멸과 반공의 기억을 항구와 그 주변 공간 안에 중첩시키고 오늘날 남은 이들의 기억 찾기와 인정욕망으로 현재화되는 모습을 거기에 덧씌움으로써 이러한 공간 인식들에 시공간적 연속성과 현재성을 부여한다.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무장소화된 공간을 '재장소화'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러한 과거의 무장소적 공간 인식 위에 「가신 님」과 「빌린 누이」, 「어선부두」, 「동거」, 「탑동광장」, 「항구다방」은 남은 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각해 '개발'과 '상생'의 현재적 공간 인식을 중첩시킨다. 특히 이들 소설들은 개발 담론이 팽배해진 상황 속에서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무장소화된 항구와 제주의 오늘날을 보여주며, 장소로부터 소외되어가는 주민들의 고단한 처지와 내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근대 이행기를 전후로 극대화되었던 변방의식이 발전의 외피를 두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음을 보임으로써 내부식민지적 상황의 지속과 현재적 변용 양상을 보여준다. 「빌린 누이」는 절멸, 반공, 개발의 세 가지 공간 인식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항구부두의 모습을 보여준다. 절멸·반공과 개발은 그 외적 모습이 확연히 다르지만 제주의 오랜 장소성을 상실케 하는 동일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임이 작품 안에서 확인된다. 「탑동광장」과 「항구다방」 역시 나날이 규모를 키워가는 항구부두와 주변 공간에 각각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표상되는 반공의 기억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신 님」은 산업구조의 근대적 재편 과정에서 소멸해가는 해녀 공동체의 현주소를 보여줌으로써 개발 논리로부터 상실되어가는 제주 어민들의 생활세계를 보여준다. 「어선부두」과 「동거」의 경우 개발의 상황 속에서 소외되어가는 주민들의 변방의식을 불러와 개발담론의 모순과 허위를 부각시킨다. 한편 「어선부두」, 「동거」, 「탑동광장」, 「항구다방」은 이러한 절멸과 반공, 개발의 표상 위로 자생적인 공동체성이 생성·유지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탑동광장」과 「항구다방」은 이러한 소외된 이들끼리의 연대를 도모하는 한편, 그 옛날 제주섬에서 적극 분출되었던 항거의식이 현재에 와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때때로 출몰하는 모습을 부각시킨다. 특히 「객사」에서 예고되고, 「어선부두」와 「동거」에서 강조되고 있듯 제주항 주변 마을에서 싹터온 외지인과 주민 간의 상생과 연대는 제주섬이 자생적으로 지녀온 공동체주의가 개방의 시점 이후 새롭게 변용되어 독특한 공동체성으로 확장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제주항〉 연작의 작품들은 대부분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하되 액자식 구성이나 이중 플롯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위에 제시한 6가지의 공간 인식이 특정 시공간의 층위를 막론하고 복합적으로 얽히고 현재화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의 공간 안에 누적되어온 무장소성과 장소성의 길항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오경훈은 제주항과 그 주변의 장소들 안에서 근대적 기획이 장소상실을 불러오고 무장소성을 야기하는 모습, 그 안에서 로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 장소성이 훼손되었다가 복원되기를 반복하며 무장소성과 충돌하는 양상을 포착한다. 이러한 제주항의 복합적인 공간 인식들을 통해 작가 오경훈은 제주섬의 역사를 지역인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총체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제주항과 그 주변의 장소성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제주섬에 대한 작가의 공간 인식이 〈제주항〉 연작 안에서 구체적인 제주항 부두와 그 주변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양상의 (무)장소성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살필 것이다.

〈제주항〉 연작은 개항 이전의 별도포와 산지포, 그리고 개항 이후의 산지항(제주항) 부두와 그 인근의 주정공장 옛터, 탑동광장 등을 제재로 12편의 이야기들을 전개해나간다(〈지도1〉, 〈지도2〉 참조). 이때 오경훈은 이 장소들 안에서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무장소성과, 그 안에서 훼손되었다가 복원되어가는 로컬적 장소성이 충돌하는 양상을 포착한다. 중앙에 의해 구획되고 강요되는 공간적 질서, 매끄럽고 획일화된 공간적 질서를 지향하는 근대적 기획은 렐프가 말한 무장소성을 불러온다. 제주항 부두와 그 주변의 장소들은 이렇듯 제주의 숨결을 의도적으로 말살한 무장소성의 측면을 보여주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섬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장소성이 출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이렇듯 항구를 매개로 이뤄지는 지역인들의 생활세계와 역사가 제주항을 환유한 제주사회의 장소성을 어떻게 상실/형성해갔는가에 방점을 두어 연작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도1〉 제주항 부두 주변 지도. 왼쪽부터 탑동광장(A), 서부두(B), 서부두 수산시장(C), 지장각동산 동네(D), 동부두(E), 주정공장 옛터(F), 칠머리(G), 구릉곶(H)

〈지도2〉 제주항 부두 주변 지도. 왼쪽부터 곤을포(고노포)(I), 화북포(별도포)(J)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개항 전후의 장소성

"항구야말로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섬의 운명을 고스란히 떠안은 공간"이라는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주섬의 항구는 제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외지사람들이 제주로 돌아오는 도착점"[65]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항의 속성에는 양가적인 측면이 담겨 있다. 폐쇄성의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생사여탈권을 포함한 자족성 상실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근대 이행기의 산지포구 또는 산지항(제주항)의 모습을 다룬 「객사」, 「진상 가는 배」, 「모변」, 「비극의 여객선」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출륙 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1700년대, 이양선이 출몰하던 1800년대, 민란이 잦던 구한말과 해방을 앞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실제 모티프들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어 개항을 전후한 다양한 인물들의 저마다의 사연을 통해 제주의 근대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특히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전후로 제주섬을 지배하던 변방의식이 내부식민화, 이중식민화, 식민성 내면화, 항거의식, 상생 의지 등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던 항포구 주변 상황의 전모를 이 연작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절해고도 탈피의 가능성과 한계

해양문화가 발달했던 고려 시대나 그 이전 시기에 제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제주도는 이른바 방사상 형태로 뻗어가는 해양 항로의 센터였고 이 항로를 따라 형성되는 물류체계의 거점이었다. 동아시아 대부분의 항로들이 제주도 해역을 거쳐야 했고 특히 한반도 남부를 거쳐서 항해하는 선박들은 반드시 한라산을 물표로 삼아 항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조선시대로 들어서면 크게 달라진다. 명나라의 해금(海禁) 정책을 추종하였던 조선은 상업을 천시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산업구조를 정착시켰으며 민간인들의 대외 해양활동을 원천적으로 금하였다.[66] 제주와 육지와의 해역항로는 진상, 유배, 군사이동 등의 내용[67]

65) 김동윤, 「항구에서 꿰어낸 섬의 운명과 역사」, 앞의 책, 261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제한되면서 그야말로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물류의 거점이었던 제주는 정치·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조선의 '내부식민지' 처지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객사(客舍)」는 조선 후기인 170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출륙 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이 시기는 중앙의 통제하에 제주가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최정점의 시기였다. 이미 중앙집권화를 강력히 추진하던 조선 전기 태종과 세종을 거치면서 제주는 공마(貢馬)와 진상, 노역과 군역을 바치기 위해 존재하는 사실상의 식민지로 취급되어왔다. 특히 제주 경제의 근간이었던 말 산업을 국가 통제 하에 묶고[68] 외국과의 교류를 관에 한정시키는 등 국가가 제주의 부(富)를 독점하면서 도민들의 경제생활은 크게 쇠락하였으며, 조선 중기 이후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섬을 떠나 유민으로 이탈하는 자들이 속출했다. 실제로 세종 때 6만여 명이던 제주 인구가 숙종 때에 이르면 3만여 명으로 절반이나 줄었을 정도였다. 이를 보다 못한 조정에서 진상과 군역의 감소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시행한 것이 출륙 금지령이었다. 1600년대부터 약 200여 년간의 출륙 금지 기간 동안 제주에서는 모든 배의 출입이 통제되고, 국가로부터 특별히 허가받은 항행(航行)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제주와 내륙 사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나 문화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69] 죄를 지은 유배인들이나 관리들, 진상의 목적으로 오가는 것 외에 제주 사람들은 육지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에 복속된 이후 오랫동안 제주섬에 뿌리 내린 '변방'으로서의 공간 인식은 이러한 고립 상황과 함께 극대화되었고 외지인의 시각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식세계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변방의식은 "벌거벗은 생명을 법적·정치적 질서로부터 배제하는 동시에 포섭하면서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되는 '예외상태'[70]로서의 법·제도적 위치를 반영한다. 요컨대, 오랫동안 고립의 땅이었

66) 이동근·한철환·엄선희, 『역사와 해양의식 - 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76쪽.
67) 황경수, 「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 『탐라문화』 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3, 88쪽.
68) 홍기돈, 「근대 이행기 민족국가의 변동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 -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 『바람 타는 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6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241쪽.
69) 현미애,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항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1쪽.
70)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46~47쪽. "조선시대 제주인의 이러한 처지는 아감벤이 설정하고 있는 "벌거벗은 생명을 법적·정치적 질서로부터 배제하는 동시에 포섭하면서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되는 '예외 상태'를 떠오르게 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중앙의 권력에서 밀려난 지배층들의 유배지였던 제주는 중앙의 입장에서 보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 역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기에 의무(진상)만 부과되고 권리는 주어지지 존재, 곧 '말하는 존재'가 아닌 '먹는 존재'로 여겨져왔던 것이다.[71] 오랜 기간 정치적 발화권을 잃어온 제주민들은 이러한 변방의식을 내면화하여, 스스로가 자신들을 타자화하고 열등하게 치부하는 피식민적 집단심성을 지녀왔다.

한편 이 시기 제주 전역에는 30여 개의 포구가 있었는데, 제주 북부와 내륙을 오가는 배들이 이용하는 주요 포구로는 애월포, 도근포, 산지포, 별도포, 조천포, 어등포 등이 있었다.[72] 이 가운데 산지포(건입포)가 오늘날 제주항의 원조격으로, 제주읍성 지경 내에 속한 포구로서 제주의 중심 포구였으나 당시에는 수심이 얕고 좁았으며 방파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람과 물자가 빈번하게 드나들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다.[73] 그로 인해 일제 지배 초기 때까지도 사람들에게 산지포는 항구로서 인식되기보다는 '임시 정박장' 정도로 인식되어왔다.[74] 특히 조선 전기에 한해 수전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탐라순력도』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북향배(北向拜)를 행한다는 '건포배은'(巾浦拜恩)의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75] 운수(運輸)의 중추로서보다는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다. 조에(zōé)로서의 삶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정치적 존재인 비오스(bíos)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 버린 탓에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으로 내몰렸기 때문인데, 그들은 출륙금지령에 의해 한반도 바깥 고도(孤島)에 유폐/추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부역과 진상 의무를 무겁게 져야만 했다. "예외 관계는 추방령의 관계이다. 실제로 추방령을 받은 자는 단순히 법의 바깥으로 내쳐지거나 법과는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며, 생명과 법,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불가능한 비식별역에 노출되어 위험에 처해진 것이다. 그가 과연 법질서의 외부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 홍기돈, 앞의 논문, 241쪽 참조.

71) 김동현,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글누림, 2016, 266쪽.

72) 현미애, 앞의 논문, 7쪽.

73) "산지포는 제주읍성 지경 내에 속한 포구로서 제주의 중심 포구였으나 천연적인 灣의 지형으로 형성된 良港은 아니었다. 평탄한 형태로 인해 풍랑에 무방비하여 선박의 안전한 정박이 어려운 포구였다. 바람과 풍랑을 막아줄 방파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풍랑이 심할 때는 주변 별도포나 조천포 등으로 배를 피난시켜야 했다." 위의 논문, 7쪽 참조.

74) 일본 육군참모본부, 『朝鮮地誌略』, 1888. ; 김은희,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28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전통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인 제주성내(濟州城內)라는 막강한 지역에 속해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가장 대규모의 축항 공사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현미애, 앞의 논문, 8쪽.

75) "그러나 이 수전소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만 기록되어 있고 『耽羅志』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조선 전기에 한해 수전소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당시 건입포 수전소는 조천관포구 수전소, 김녕포구 수전소와 함께 제주목의 좌방(左舫)에 속하였고 별랑포수전소, 도근천포구 수전소, 애월포구 수전소, 명월포구 수전소 등 네 개는 제주목의 우방(右舫)에 속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전선(戰船)이 있었고, 또 군사가 있어서 번갈아 가며 나누어 지키었을 뿐만 아니라, 공납하는 물건과 선물(膳物)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당시에 제주(북부) 사람들에게 '항구'로 인식되던 곳은 산지포가 아니라 별도포(화북포)와 조천포였다.[76] 자연 지리적 조건상 다른 포구들에 비해 해류와 바람에 대처하여 선박을 정박하기에 유리한 편[77]이었던 별도포와 조천포는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關門)으로 여겨졌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포구를 이용하여 제주섬에 들어오고 제주를 떠났다.[78] 더욱이 출륙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아예 두 포구를 통해서만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허용되었는데, 이 시기에 별도포와 조천포는 공선(公船) 및 상선(商船)의 출선포구로 이용되었고 진상선이 출항하는 관포(官浦)의 기능을 담당했다.[79] 특히 별도포는 산지항이 축조되기 전까지 전남 강진과 영암, 해남 등과 제주를 잇는 중요한 관문이었으며, 이 포구를 통해 쌀과 소금 등 생활필수품, 제주에 부임하는 관리와 유배인이 수시로 들어왔다.[80]

「객사」는 대부분 제주항과 그 주변을 중심 공간으로 한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산지포'에서 '별도포'로 중심 공간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작중 주인공 '노봉'(김정 목사)이 처음에 산지포를 수리하다가 여의치 않자 나중에 별도포로 눈을 돌려 그곳의 축조에 힘썼기 때문이다. 노봉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내려왔을 당시, 산지포는 고기잡이배나 겨우 정박하는 마을의 작은 포구 정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매우 열악해 태풍이 불기만 하면 수시로 무너지는 터에 배가 닿지 못하고 들어오다 파손되기도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컸다. 별도포 역시 당시의 활용도에 비해 제 구실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포구가 얕고 비좁아 항만이 불완전하여 풍랑이 일 때는 항내에서 파선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등 배를 부리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81] 이에 노봉은 1735년(영조 11)에 산지포 개축을

여기에서 번갈아가며 운수(運輸)하여 바다를 건넜다." 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 편. 『健入洞誌』, 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 1996, 120쪽.

76) 산지포와 달리 별도포와 조천포에는 진(鎭)이라 불리는 군사 행정구역이 조성되어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성을 쌓은 별도진성과 조천진성이 있었다. 보통 진은 사람과 물자가 자주 드나드는 바닷가 쪽을 중심으로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변방의 방어 특히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음을 감안할 때, 실제 항구로서의 대표적 장소로 제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곳이 어디였는가를 추론하기란 어렵지 않다. ; 고영철의 역사교실(http://jejuhistory.co.kr) 참조(2022.05.20. 접속).

77) 현미애, 앞의 논문, 8쪽.

78) 김오순, 「화북포구에서 제주성(城) 안까지 옛길을 걷다」, 『제주발전포럼』 제38호, 제주발전연구원, 2011, 117쪽.

79) 현미애, 앞의 논문, 7쪽.

80) 김오순, 앞의 글, 117쪽 참조.

81) 고영철, 앞의 사이트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진행해 방파제 80간과 내제(內堤)를 쌓은 데 이어, 1737년에는 쌀 300섬을 내어 1만 명의 일꾼을 모아 별도포의 선창을 축조하였다. 특히 별도포 공사에서는 김정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돌을 나르며 인부들을 격려한 끝에 한 달여 만에 공사를 마쳤다고 전해진다.[82] 「객사」에서는 역군의 태만으로 인하여 산지포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별도포로 옮겨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산지포를 더 넓히지 않고 비교적 간단히 개축하고 끝낸 것은 풍랑과 좁은 규모라는 불리한 자연 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이미 별도포가 제주목의 관문으로서 항구의 역할을 도맡아왔으므로 그곳의 축항이 보다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임이 더 실질적인 이유일 수 있다. 산지포가 근대적 의미의 항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의 일이다. 김정의 별도포 확장 공사는 제주에서 기록에 남은 축항 공사의 초석이라 할 만하다는 점에서, 오경훈은 이것을 사실상 제주항과 관련지어 의미화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이 그리 순탄키만 한 것은 아니었다. 출륙 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였고 진상과 유배의 목적을 제외하면 내륙을 오가는 배가 거의 없었기에 많은 이들은 축항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객사」는 한 별감의 입을 통해 "그 사람들〔백성〕에게 중한 것은 축항이 아닙니다. 하루나마 편히 쉬고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24쪽)[83]라며 무리한 공사와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충을 근거로 공사를 반대하던 목소리도 적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다. 또 일부는 노봉이 "나이가 들어서 허체만 기다리고 있어. 관선을 타고 돌아갈 꿈만 꾸고 있는 거야."(30쪽)라며 그의 의도를 의심하기도 하였고 뒷말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작중에서 노봉의 추진 하에 축항 작업이 시행되는 과정은 공동체의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강제동원의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이 속출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84]

이때 노봉은 일부 제주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어리석고 열등하다고 치부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는 그런 이들을 향해 "천대를 벗지 못할 지질한 놈들"(20

82) 김정(金佐), 『蘆峯集』 卷4: 가장(家狀). ; 위의 사이트 참조.
83) 오경훈, 『제주항』. 앞으로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괄호에 쪽수만 표기한다. (강조-인용자)
84) 이같은 장면은 좀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작중에도 나와 있지만, 별도포 축항 당시 김정 목사는 당시 쌀 300석을 내걸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백성들을 모집, 동원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쪽), “덜먹은 놈들”, “가증한 놈들”(21쪽) 등의 언술을 반복적으로 구사한다. 물론 노봉의 이러한 결단에는 “멀리 보면 섬사람들 나들이 편하고 생업 잘되고 풍속이 좋아지”(42쪽)라는 데에 입각점이 있었다. 다만 이는 지역공동체 스스로가 자력의 능력이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채 섬사람들을 우민화하는 시각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데, 자칫 민족주의와 근대화 담론의 수용과 내재화가 배면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소설의 한계라기보다는 소설이 배경으로 하는 시대의 한계라 보는 것이 온당하다. 외부인이 섬을 ‘변방’으로 인식하던 시각은 그 사람의 성품과는 무관하게 당대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관점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객사」는 출륙 금지령 당시의 고립되고 폐쇄된 제주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그마한 천연포구를 옆에 낀 채 폐쇄된 삶을 영위하던 주민들을 바라보는 중앙 관료의 시혜적 시각은 중앙의 변방으로 인식되던 제주섬의 대외적 위치를 환유하여 보여준다.

「진상 가는 배」 역시 이러한 외부인의 시각에서 섬이 주변부로 인식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이양선이 출몰하던 19세기 중엽을 배경으로, 특히 1840년(헌종 6) 가을 영국 군함 2척이 가파도에 배를 대어 소들을 노략질한 일과 그로 인해 구재룡 제주목사와 강계우 대정현감이 파직된 역사적 사건이 다루어진다. 소설은 이러한 실제 사건의 토대 위에 당파싸움에 연루되어 제주로 정배된 가족의 사연이 덧씌워지고 있다. 이때 별도천 하류의 고노포[85]에 거주하던 주인공 ‘원석’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유배인의 후세대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정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외부인도 아닌 일종의 중간적 존재이다. 소설은 연좌제에 따라 노비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영위하는 원석이 제주를 정주지로 여기지 않고 탈출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며 심정적으로 장소에 편입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① 이 말마구만 한 집에서 원석은 그의 선대의 내력을 듣기도 하였다. 선친이 정조조(正祖朝)에 당파싸움에 연루되어 원방부처(遠方付處) 되었으므로 가족과 함께 낙

85) 제주시 화북1동 서쪽 바닷가에 있는 자연 포구 이름이자 자연 마을. ‘고노포’(古老浦)는 곤을포, 곤을동의 차자 표기로, 본래 고놀개, 곤을개, 곤을포로 불리다가 조선 후기 때는 고로포, 고노포로 불렸다. 일제강점기 이후 곤을동, 곤을포로 불린 이 마을은 제주4·3 때 폐동되었다. 제주시, 디지털제주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jeju/toc/GC00700131) 참조(2022.05.20. 접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로 정배되어 노비 신세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면서 통한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어린 나이로 관노가 되어 화북성에서 사역을 해왔다.

아버지 나이 서른을 넘긴 순조 원년에 나라에서 공노(公奴)를 해방하였으므로 그는 신분이 평민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땅뙈기도 쇠푼도 없는 그는 신분만 바뀌었지 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탄하였다. 그는 노비 처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막일을 하며 살아야 했다. 성을 나와 근동에서 경조사집 돼지를 잡고, 굿일을 하거나 가마를 메고, 구비를 져 나르고, 지붕 개초를 돕고, 남의 신역(身役)을 대신해 주면서 쌀됫박이나 얻어 그것으로 입칠하며 산 것이다. (189쪽)[86]

② "격군은 포작(鮑作)이 맡아온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평역미를 주면서 부려오지 않았습니까."

원석은 땀에 젖어 후줄근한 모양으로 어때를 들먹이면서 항변을 계속하였다.

"상것이 입구멍 하나는 있었군. 이놈아 들어라. 포작은 진상 복(鰒)과 관용 어복(魚鰒)을 캐는 역이다. 그런데도 격군안에 이름을 모다 올려 일백육십 명을 만들었다. 진상물과 진공마를 바다 넘어 운송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지금은 팔십 명 남았어. 예기치 못한 해상 사고로 죽고 달아난 것이지. 진상 물량이 감소하지 않으니 인력 충원은 불가피한 일 아니냐. (중략) 팔십 명 외의 결원을 채우는데 노령은 안 되고 농사일에 바쁜 사람, 가솔을 많이 거느린 사람도 안 되고 단출인 사람을 가려야 했어. 그게 사리에 어긋난단 말이냐? 어디 네 생각을 말해 봐라."

원석은 눈가장을 쓸면서 목멘 소리를 내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는 엊그제 친상을 당한 사람입니다. 몇 달이 될지 또는 해를 넘길지 모르는 뱃길 아닙니까. 일전에 향소에서 부모 제사를 궐하여 윤상(倫常)을 어긴 서생을 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년상도 치르지 못한 사람인데 삭망전은 어찌 하라고 뱃길로 내모는 것입니까."

"중인과 평인을 같이 놓고 말하겠느냐. 상을 당한 사람을 다 빼면 역을 나갈 사람이 몇이 되겠느냐. 아직도 못 알아듣겠단 말이지? 여봐라! 이놈을 끌고 나가라. 고분고분 순응치 않으면 형리에게 맡겨라. 집장이 매를 내놓고 있을 것이다." (192~193쪽)

86) 오경훈, 「진상 가는 배 - 제주항 8」. 앞으로는 인용문 뒤 괄호에 작품 제목과 쪽수만 표기한다. (밑줄-인용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진상 가는 배」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곤궁한 사정의 원석이 격군(格軍)으로 강제 징집되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서 격군은 진상물을 싣고 나르던 뱃사공의 일을 돕는 조졸(漕卒)의 하나로, 제주지역에서는 주로 포작(鮑作)[87]인들이 맡아왔다. 당시는 "한번 격군으로 이름이 오르면 (…) 다시는 이름을 지우지 못"했고, "해마다 포작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늙어 하르방이 되든지 죽어야 구실이 끝난다"(197쪽)고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되었다. 인용문 ②에서 확인되듯 '진상물과 진공마를 바다 넘어 운송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 예기치 못한 해상 사고로 죽고 달아난' 일이 빈번했음에도 '진상 물량이 감소하지 않으니 인력 충원은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해상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잡역(雜役)·잡부(雜賦)에 따른 포작인들에게 주어진 고질적 병폐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출륙을 감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더불어 조정은 이들에 대한 어복(魚鰒) 진상역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에 선격(船格) 혹은 격군이라 불리는 또 다른 성격의 포작의 역(役)을 부과하였는데, 목숨을 담보로 진상공물을 싣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 일은 포작역만큼이나 고된 역이었고, 이로 인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격군 역을 피하는 상황이 속출했다.[88]

한편 인용문 ①을 통해 알 수 있듯 원석네 가족의 사연은 몹시 기구하다. 본래 원석네 가족은 평산에 살던 양반가였다. 그러나 원석 아버지의 종숙이 같은 노론 계열 인물의 조정 삭출에 부당함을 느껴 소론 벽파(僻派)를 박멸한 음모를 꾸몄다가 이를 관에 들켜 중치당하자, 종제였던 "원석의 조부까지 연좌되어 신분을 깎이고 유배된 것"(194쪽)이었다. 이에 원석의 조부는 대정현에서 노비 생활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관노로 전락한 원석의 아버지도 화북성에서 사역을 해왔다. 순조 때 공노 해방으로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났어도 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노비 처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막일을 하며 살아왔다. 이런 사정은 아들인 원석에게로 그대로 답습된다.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들

87) "제주도 포작인들은 바다에서 고기와 해산물(海産物) 등의 채취를 업으로 삼고, 이를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환,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 남자어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여러 고을의 해산(海産)의 진품(珍品)을 진상하는 역으로 동원되었던 사람이라 개념.정의 내릴 수 있다."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2쪽.

88) 위의 논문, 47~49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 못했"던 원석은 "아버지를 업고 다니며 2년간 동냥질을 하"며 "아버지와 둘이 살았"(201쪽)다. 그러다 아버지가 병들어 죽자 장례를 치렀는데, ②에 나와 있듯 장례를 마친 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격군으로 강제 징집된 것이다. 포작인의 수와 격군의 수가 나날이 줄어들면서 작중에는 부친의 일년상도 치르지 못한 원석을 "처자가 없고 농사일이 없"(192쪽)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동원시키는 비인간적 상황이 그려진다. 「객사」가 다룬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제주섬에서는 공물(貢物)과 진상(進上)으로 인한 폐단이 극심했고 1813년의 양제해 모변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1862년의 임술민란, 1890년 경인민요(民), 1896년 병신민요, 1898년 무술민요(방성칠란) 등의 모변과 민란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진상 가는 배」는 이 시기의 한가운데에 놓인 180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한다. 이 당시 불합리하게 부과된 포작과 격군 역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도망가게 하고 다시 그 수습을 남은 이들에게 떠안기며 고통을 가중시키던 사회 분위기는 조선 후기 극심했던 진상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여전히 근대적 의미의 항만 규모를 갖추기 이전인 산지포구이다. 김정 목사의 축조 이후로도 산지포가 도내에서 내륙과 연결되는 물류의 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항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이후의 일이며, 더 본격적으로는 일제에 의한 산지항 수축공사가 시행된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기록에 따르면 특히 1735년 이후 사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노역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조정은 조천포와 별도포에 한하여 배를 놓을 수 있게 하였고 배가 떠날 때는 목사와 군관 1인이 문부(신상명부)를 확인한 다음 출항을 허가했다.[89] 이처럼 관의 허가 아래 일정 정도 사선의 출항이 가능해진 조천포, 별도포와 달리 산지포는 여전히 인근 주민들의 고기잡이배가 정박하거나 관에 의한 공물·진상과 유배가 이뤄지는 데 그 역할이 그쳤다. 「진상 가는 배」는 이러한 모습의 산지포를

89) 김태림, 「항만」,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 『濟州道誌 제4권: 산업·경제』, 제주도, 2006, 762~763쪽. "해상교통의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 항만은 1876년 한일우호조약의 체결로 개항되어 항만을 개항장, 지정항, 세관지정항, 지방항 등 4종항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제주항, 성산항, 서귀항 등 3개 항이 지정항으로 조천항이 지방항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도내 4개항이 지정되었으나, 본토와의 연륙기지항으로서는 제주항이 이용되었다. 1890년부터 제주항과 부산항 사이에 조선우선 소속의 기선이 취항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섬과 본토 사이에 여객과 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위의 책, 76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배경으로 당시 제주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진상용 국우가 영국 군함에 의해 노략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조정에서는 제주목사와 대정현감에게 이 일의 책임을 묻고자 이들을 산지포를 통해 한양으로 이송시킬 것을 명한다. 이에 본래 국우를 싣고 출항할 예정이었던 원석은 파직될 수령들을 대신 싣고 산지포를 출항하게 된다. 국가 내부에서 동등한 지역 단위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유배지이거나 진상용 말과 흑우의 산지(産地)로서 사실상 조선의 식민지와 다름없게 여겨지던 제주의 처지가 잘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에 의해 강요되는 중앙집권적 질서와 내부식민화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출륙 금지 시기였음에도 갖은 수단을 동원 이곳을 탈출하는 다수의 유민들을 양산하였고 거주인들로 하여금 온전한 의미의 장소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작중에서 유배자 집안의 아들로 설정된 원석의 비참한 생활은 제주섬이 고립과 기피의 공간이자 유배지로서 기능하였던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객사」와 「진상 가는 배」는 개항 이전 전근대적 시기에 제주가 처해 있던 변방으로서의 담론적 위치를 외부인의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개항 이후를 다루는 근대 이행기의 「모변」과 「비극의 여객선」은 내부인의 사연을 통해 제주섬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변방'으로서의 공간 인식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2) 개항 이후의 이중식민화

근대 이행기의 국면에서 쇄국정책을 고집해온 조선이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제주 역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정치적 질서로서 '예외상태'와 타자화된 인식으로서의 '변방' 상태가 극복되었음을 말하지는 않는다. 외세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제주는 또 다른 차원의 식민성이 중첩된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자국과 외세라는 두 개의 '중앙'의 식민지가 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렇듯 고립에서 개방으로 나가는 과정은 「객사」의 노봉의 기대처럼 낙관적인 전망으로만 가득하지 않았다. 그 초기 과정을 담은 「모변(謀變)」은 개방도시로서 이후 제주가 맞게 될 고통적 국면을 예고하면서, 한편으로 장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이 상실되어가는 공간 안에서 자생적으로 도모되는 공동체주의와 '항거'의식도 함께 예고하고 있다.

「모변」은 구한말이 시대적 배경으로,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 이후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체결한 1883년의 '재조선국 일본어민통상장정'의 발효를 기점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 조약은 조선의 입장에서 관세 자주권과 식량 통제권, 통화(通貨)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90] 오히려 일본이 조선의 근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양산하였다.[91] 실제로 개항 이후 일본의 제주도에 대한 무분별한 어업 침탈로 제주도 어장의 전복과 해삼류를 남획해간 결과, 1890년대 이후 제주도의 어장은 황폐화되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92] 당시 산지포 어민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다음의 구절에서 잘 확인된다.

> 그들이 제주도민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산지포구 동쪽 동대머리 언덕에 살던 어가(漁家)들 반이 전라도 경상도로 이사를 가 버렸을 정도였다. 제주목사가 저쪽 관찰사에 서한을 보내 그들을 귀환시켜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
> 그런데도 관아는 일본 잠수기선의 해녀 어장 침범을 묵인하였다. 때문에 성산포 가파도 한림 등지에 막을 치고 섬의 해안 전역을 누비는 일인 잠수부들은 해녀들의 작업장을 마음놓고 드나들었다. (중략)
>
> 세상이 이처럼 문란한 모양이 돼버린 데는 위정의 그릇됨과 관속의 무능, 민중의

90) "제31관은 각 상선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톤당 225문의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세 자주권의 핵심이 되는 조항이다. 대신 일본 상선은 한 번 관세를 내면 4개월에 한해 조선의 항구에 관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37관은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조선의 주요 생산물이자 핵심 식량 자원이었던 쌀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다만, 위 내용처럼 방곡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당시 조선의 행정 체계로는 한 달 전에 미리 곡물가의 변동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행정 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결과 조선의 지방관들이 수 차례 방곡령을 선포했음에도 매번 일본의 반발에 부딪쳐 소기의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701&tabId=03&levelId=hm_115_0040) 참조(2022.05.20. 접속).

91) "이 조약 결과 일본국 어선들이 조선의 전라도·경상도·강원도·함경도 연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41관). 조선의 어선들도 일본국의 히젠(肥前)·치쿠젠(筑前)·이시미(石見)·나가도(長門)·이즈모(出雲)·쓰시마(對馬島) 연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일본의 어선 혹은 해적선은 조선의 연안에 자주 침범했던 반면 조선의 어선들은 그러한 일이 드물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어업 회사들이 설립되면서 대형 선단이 형성된 반면 한국의 어선들은 아직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조선의 어업에는 실효적인 이익이 없었다." 위의 사이트 참조.

92)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 130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약함에 원인이 있었다.

몇 해 전, 통리아문주사 안길수가 제주도에 왔을 때 조정은 그로 하여금 일본 어선의 출어에 반대하는 제주 어민들을 설득토록 했다. 그 설득이라는 것은 조선국과 일본국 사이에 합의한 조약은 평등한 것이므로 섬 주민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타이르는 것이었다.

어민들은 항의했다. 강자와 약자 간에 서로 바다를 개방키로 한 것이 어찌 평등이 되는가. 동력선을 만들지 못하는 조선이 어찌 일본 바다로 나가 조업할 수 있는가. (46~47쪽)

이렇듯 일본 잠수기선이 제주 사람들의 어장을 함부로 침범하고 해산물을 채취해가면서 제주 사람들이 겪은 피해는 극심했다. 그로 인해 산지포 주변 동대머리 언덕에 살던 어가들 절반이 한반도 남부로 이주해버렸을 정도였다. "물속에서 송기관으로 숨을 불어내는 일본 머구리들은 한 사람이 생복 40관을 잡는데 물속에서 가쁜 숨을 누르고 버지럭거리는 우리 해녀들은 고작 2관을 잡는 거예요. 왜놈들을 빨리 쓸어버리지 않으면 해산물을 다 잃고 말 겁니다."(64쪽)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본 어민들은 근대장비와 잠수기업자들을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제주 바다의 해산물을 어획해간 반면, 동력선도 만들지 못하는 제주 어민들은 일본 바다로 나가 조업할 수 없었기에 이 조약은 제주 어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강자'(일본)와 '약자'(조선) 간 서로의 바다 개방이 갖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는 제주 어민들에게 생존권 확보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사실상 고려 때부터 특출났던 제주 어민들의 조선(造船)·항해기술을 조선 중기 출륙 금지 시기 이후 꾸준히 축소하고 금지시켜 기술 단절을 초래한 조정의 책임도 없지 않다.[93] 그런데도 일본 어민들과 결탁한 관아는 '일본 잠수기선의 해녀 어장 침범을 묵인하였'으며, 심지어 관리들을 보내 반대하는 제주 어민들을 설득하고 분쟁을 막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인 '한기돌'을 주축으로 한 건입포(산지포) 어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쌓여갔다. 그것이 극에 달한 것은 일본 잠수부들이 해녀들을 성적으로 유린하여, "마을 부녀자가 일본인 어부들에게 끌려가 봉변"(45쪽)당한 사건

93) 한승철,「역사 속의 제주 물류」.『제주발전연구』12호, 제주발전연구원. 2008, 321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기점으로 해서였다. 동료인 고원평의 아내는 중간에 빠져나왔지만, 죽은 어민이자 선계의 계주였던 김여범의 딸(기돌이 남몰래 연모하던 수화의 딸이기도 했다)은 참혹하게 능욕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실성하였다. 어민들은 이 일을 관청에 호소하고 응징을 요청했으나 관은 예상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기돌은 그것이 목사 이하 제주 관리들이 일인 머구리들로 받아먹는 뇌물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일인 어부들·관의 횡포와 이로 인한 이웃의 불행까지 더해지자, 더는 분노를 참지 못한 기돌은 거사의 뜻을 내비치고 모변을 계획하기에 이른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포구와 바다가 자국과 외세에 의해 이중으로 갈취당하던 당시 제주사회의 부조리하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기돌 등 건입포 어민들이 맞닥뜨렸던 상황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비극의 여객선」역시 개항 이후 주체적 장소로부터 한층 더 멀어진 내부인의 상황을 그려낸다. 다만 그 행동 방식은「모변」과 상반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비극의 여객선」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5월 7일 미군기가 목포행 여객선 고와마루호(晃和丸)를 폭격한 사건을 제재로 한다. 이 사건으로 780여 명의 승객 중 단 170여 명만이 살아남았다고 전해진다. 소설은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제주도에서 결7호 작전을 수행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본토로 소개령을 내린 시점에서 시작한다.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제는 연합군의 일본 본토 공격에 대비해 제주도를 본토 사수를 위한 전초기지로 상정하고, 징병자를 포함해 중국 만주와 일본 본토 등으로부터 6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집결시켜 제주도 곳곳에 중무장한 요새를 만들었다.[94] 이때 일본군의 방침은 미군이 제주섬에 상륙했을 때 최후까지 싸운다는 이른바 '옥쇄 작전'을 상정하고 있었다. 섬 전체가 요새화되면서 제주도민들이 당한 고초는 당시 조선 전체에서 가장 심했는데, 해안가와 중산간 지대를 막론하고 특공기지 설치, 비행장 건설, 전쟁물자 강제공출 등의 엄청난 작업들을 섬 전역의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한편 이런 이유로 제주섬에는 미군 공군기와 잠수함의 공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다.[95] 그러한 전조 상황을 예고하면서 작품의 도입부는 "B29의 거대한 기체가 시야에 들어오면서

94) 허호준,『4·3, 미국에 묻다』, 도서출판 선인, 2021, 47~48쪽.
9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61~62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머리 위에서 불덩이가 작렬하는 위험" 속에, "일본이 내지 수호를 위해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할 것이라는 풍문"(87쪽)으로 어수선하던 당시 사회상을 보여준다. 이런 사정 속에서 이주할 능력이 있는 자들은 피난을 감행했고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이나 의지가 없는 이들은 잔류하였다. 작중의 주인공 '한진'과 그의 동료들은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갖춰진 자들로 소개를 꾀하는 입장에 속해 있다.

이 시기 제주 사람들이 출향을 위해 향한 장소는 산지포가 항구로 확장된 산지항이다.[96] 앞에서도 언급했듯, 최초로 항만이 건설된 1730년대를 지나, 1897년부터 기선이 취항하면서 산지포는 명실상부한 제주도의 주교통항으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1926년에 일제에 의해 산지항이 축항되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 풍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산지항 수축공사는 1926년에 제1차 확장공사를 착수하여, 2차(1928년), 3차(1935년)에 걸쳐 완공한 대사업이었다. 1차 때는 제주읍성의 성담을 헐어서 나온 돌로 바다를 매립하였으며, 이때 서부두 수협어시장 자리에 '서축항'이 탄생했다. 1928년 제2차 산지항 확장공사 때부터는 금산 언덕 단애를 이루는 다량의 암반과 흙을 깎아내서 바다를 매립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때부터 기존의 포구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제3차 확장공사 때인 1930년대 말에 이르면 이른바 '동축항'이라 불리는 동부둣가를 매립하면서 금산 언덕 위 밭과 황무지를 깎아 무너뜨려 평평하게 만들고, 위의 바위지대 부근에도 그 흙을 운반해서 평지로 만들어 각각 전분공장과 주정공장을 설립하였다.[97]

이렇듯 일제에 의해 축항된 산지항은 그 자체로 명백한 식민주의적 수탈과 병참기지 기획의 반영물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가 전국에 시행한 주요 통치 시책이 산지항 축항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 3기 축항으로 갈수록 실제 이용자인 제주도민의 편의와 발전이 아닌 일제의 병참기지 개발의 의도와 정책이 축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98] 특히 제주도 개발계획 차원에

---

96) 산지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제주항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1472)
참조(2022.05.20. 접속).

97) 고영자,「제주 산지항, 포구의 신 풍속도…제주사람에 익숙한 '서부두'」,『제주의소리』, 2020.01.23.

98) 우선 1920년대에 시작된 산지항 1기 축항은 당시 제주의 상황에서는 꼭 필요했던 항만시설 확충을 제주면의 요구에 의해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 제주면의 해운업, 운송업 운영자 중 행정력을 쥐고 있던 조선인과 일본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축항기성동맹회'의 요구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 검토된 3기 축항은 논의 시점이 중일전쟁 발발 직후이고, 연료 국책화 정책에 따른 무수주정 제조공장(주정공장) 설립 등을 통해 전시체제 하 통제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 축항의 내용도 앞선 1·2기와 다르게 일반 선박의 출항과 정박, 계류를 위한 설비 확충이 아닌 항공기용 연료라는 특수 목적의 화물을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항만 설비를 확장·개조하였다. 3기 축항은 비상시국 하에서 준공에 이르지는 못했고, 이때부터 산지항은 전시에 군의 통제를 받기에 이른다.[99]

「비극의 여객선」은 일제 말기 당시 산지항이 군의 통제하에 전시 대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 아침저녁으로 병원 앞길을 지나는 일본군의 말발굽소리, 군가소리를 들으며 또 지붕 위를 스쳐가는 항공기 소음을 들으며 한진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외출길에 임항도로를 지나며 항구를 바라보았다.
>
> 주간의 항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항구를 나간 배들은 밤이 되면 슬며시 들어와 불을 끄고 괴물 같은 모양으로 항내에 웅크리고 있다가 새벽이 오면 달아나듯 사라졌다. 적의 항공기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는 것일 터다. 때문에 군수물자 수송은 소형 민간 화물선을 징발하여 개미수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106쪽)

강하게 반영되었고, 이들에게 대규모 산지항 축항은 자신들의 사업 기반이 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용과 개인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1930년대 전반에 시행된 산지항 2기 축항은 일본 내각과 조선총독부의 주요 정책인 '궁민구제토목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1920년대 후반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실업난을 타계하고 빈민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대규모의 토목사업이다. 지주제의 심화로 몰락 농민이 증가하고,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실업난이 가주되어 도시 빈민이 증가하면서 조선인의 구직 도일이 잦아지자 이를 저지하고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 실업구제책이지만 그 본질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이었다. 이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산지항 축항 노동자의 낮은 임금 문제가 대두되었고 축항 노동자들의 시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 후반에 시행된 산지항 3기 축항은 일제의 식민지배 전략의 양상이 대놓고 노골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일제의 항만 개발이 식민지민의 편의와 발전이 아닌 식민지 통치의 기초 시설 정비가 그 목적이었음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에 발표된 '제주도 개발계획안'은 이른바 '농공병진'으로 포장한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해 후방 병참기지 개발을 목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연료 국책화 정책에 따른 동양척식회사의 무수주정 제주공장 설립과 함께 추진되었다. 이때 축항의 내용도 앞선 1·2기와 다르게 일반 선박의 출항과 정박, 계류를 위한 설비 확충이 아닌 항공기용 연료라는 특수 목적의 화물을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항만 설비를 확장·개조하였다. 3기 축항은 비상시국 하에서 준공에 이르지는 못했고, 산지항은 전시에 군의 통제를 받기에 이른다. ; 현미애, 앞의 논문, 75~78쪽 참조.

99) 위의 논문, 78쪽, 8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낮 동안의 산지항은 한산한 모습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제주를 병참기지로 삼고 군의 요새로 만들려는 일제의 기획이 도사리고 있다. 이럴 때 항구는 더 이상 제주 사람들의 장소감을 유발하는 공간이 아니며, 불안감과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한진이 바라보는 항구의 한산한 모습은 "자신이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부조리한 공간"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부조리성은 "사건들이 나의 능력 밖에 있으며, 인간은 누군지도 모르는 것에 조종되고 거의 의미도 없는 권력의 그물에 잡혀 있다는 느낌"[100]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제주항에 배태된 장소상실의 측면을 반영한다.

이때 일제가 산지포구를 매립하여 산지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주성의 성곽을 해체해버렸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성담 대부분을 바다를 매립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오현단 부근의 남성 성곽 일부만 남기고 제주성의 성체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성 굽을 이루던 곳의 2/3 정도는 도심 내의 간선도로로 활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탐라고성을 포함한다면 1천 년 이상, 조선 왕조만 해도 500년 이상을 제주목의 주도적인 경관으로 지속해온 제주도 역사·문화의 상징인 제주성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산지항 개발 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이후 구도심의 역사·문화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큰 사건"[101]이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라봉에서 서쪽으로 길고 완만하게 형성된 금산 언덕이 산지천 하구까지 펼쳐져 포구와 민가를 감싸고 있던 풍경이 산지항 공사 이후 완전히 사라지면서 기존 건입포의 경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어민들의 장소감은 크게 뒤바뀌게 되었다. 한편 수많은 도민들이 더 큰 꿈을 좇아 돈벌이를 위해 목포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도 이 시기 이후부터였다. 제주-목포 항로의 경우 1913년에 부정기 운항을 시작했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 정기 운행을 본격화했다. 제주-일본 항로는 1910년대 후반에 정기화되었다. 각각 1945년 5월과 2월에 미군기의 공습으로 여객선이 격침되면서 운항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산지항은 약 20여 년간 제주에서 목포로, 시모노세키를 거쳐 오사카로 제주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역할을 수행해왔다.[102]

100) 서영채, 앞의 책, 257~258쪽.
101) 박경훈, 『박경훈의 제주담론 1』, 도서출판 각, 2013, 123쪽.
102) 고영자, 앞의 기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런 점에서 일제에 의해 축조되고 확대되어온 산지항은 기존의 장소성을 말살하고 그 일대를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렐프가 규정한 무장소성의 전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이때 '경제체제'와 '중앙권력'은 이러한 무장소성을 전달하는 매체이자 체계가 된다.[103] 이미 조선조부터 중앙집권화된 권력은 포구의 출입 물품과 권한을 통제해왔으나, 이 시기부터는 공간 자체를 변형, 확장,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그 일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완전히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산지항의 장소상실적 측면은 그대로 제주사회 전체가 식민적 제국질서 체제에 포섭된 모습과 더불어,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타지와 타국으로의 이탈이 속출하던 상황을 함께 반영한다. 항구가 군의 통제하에 전시 대비용으로 쓰여지던 1940년대 일제 말기에 이르면 제주는 미국과 일본의 각축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야기하는 공간으로 전락되기에 이른다. 작중 주인공 '김한진'과 그의 친우 '김도환'의 대화에서 "수평선 위로 까만 새들이 날아오르는 것 같아. 그 새들은 히엔기(海燕機)가 아니라 미국의 그라만기야."(96쪽)라던 도환의 발언은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에 더해 미국까지 합세하면서 제주사회에 드리워질 거대한 암운과, 이를 절망적으로 예감하던 제주 사람들의 내면 인식을 복합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그리하여 일본군의 소개령 방침에 따라, 작중에서 한진을 주축으로 이주할 여건을 갖춘 이들은 미련이나 애향심 없이 산지항을 통해 제주를 탈출하고자 한다. 한진의 친구들인 전 도속(島屬) 서기 이기환, 양곡상 송윤희, 전 어업조합 기수 양천수, 양조장을 운영했던 김도환 등도 한진처럼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건을 갖춘 인물들로, 모두 "민첩하게 출향 준비를 마쳐놓고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110쪽)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은 당대 기회주의적 지식인 계급의 전형적 인물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다만 이들이 처한 급박한 전시상황은 생존의 욕구 외에는 모든 것을 가치절하하게 만들며, 이 점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횡행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이르는 동안 전시상황 안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들의 공통된 정서이기도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난날에는 섬을 떠나지 못하도록 관에서 막았는데 이제는 떠나라고 내몰 판이니

103)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35~236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게 무슨 세상인가. 제주도가 무엇인데 이 전쟁에 만신창이가 되는가. 벌써부터 조선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되지 않았는가."

도환은 턱부리의 구레나룻을 쓸면서 탄식하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군의 명령이기 때문이지. 저쪽에선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의 희생을 막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소리. 실은 그 반대야. 우리를 적으로 보고 쫓아내려는 거지." (95쪽)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일제가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아 군 요새로 쓰고자 하는 전략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기 위해 순응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중일전쟁 이후 조선의 병참기지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일제의 방침에 무력하게 휩쓸리던 한반도 전체의 수난상이 이러한 제주민들의 소개 상황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그런 한편, 제주의 경우에 이러한 수탈과 억압은 일제에 의해서만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조선조부터 이미 줄곧 지속되어온 역사임을 소설은 함께 강조하고 있다. '지난날에는 섬을 떠나지 못하도록 관에서 막았는데' '이제는〔일본군이〕 떠나라고 내몰 판'이니 이게 무슨 세상이냐며 탄식하는 도환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장면은 중앙집권체제와 식민지 지배체제에 의해 고립 또는 이주의 일방적 선택지를 강요당해온 제주사회의 역사적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때 산지항은 이들이 출향을 위해 자의적·타의적으로 거쳐야 하는 출발지라는 점에서, 안정적 정주성을 상실한 제주섬의 유목적 공간성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이 오경훈은 「모변」과 「비극의 여객선」을 통해 일제로부터 자신들의 공간을 빼앗기고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던 섬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준다. 특히 자국의 지배구조에 더해 외세의 지배가 합해진 이중식민화된 상황 속에서 항포구 주변 장소로부터 주민들이 소외되어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3) 변방의식과 식민성 내재화

한편, 「진상 가는 배」와 「모변」, 「비극의 여객선」은 외부에 의해 무장소화된 공간 속에서 장소애가 상실되고 변방의식과 식민성 내재화가 공고해진 섬사람들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심성구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먼저 「모변」의 경우, 항구와 바다를 둘러싼 장소상실의 상황을 겪어가며 장소에 대한 일체감과 안정감을 잃어가는 제주 어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소설은 실성한 딸 연주와 그의 어머니인 수화에게 남겨진 절망적인 삶과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기돌의 심경을 상세히 묘사한다. 수화는 기돌에게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네요. (…) 살다 보니 여자라는 사실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섬에 태어난 게 두 배 세 배로 더욱…."(67~68쪽)이라고 하소연하며 흐느껴 울고, 그 말을 듣는 기돌은 "여인의 여린 감정이 이쪽의 가슴으로 감겨와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무엇에 몸을 짱짱 찧고 싶"(69쪽)고만 싶어진다.

여기서 작중 주인공인 기돌은 평범한 어민이지만 국가와 외세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은 그 출발부터 이미 예견되었듯 거사의 실패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기돌은 거사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바닷소리를 들으며, 꿈에서도 바다를 느끼는데, 그 모습은 기돌이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투영한 것과는 상반되게 '적막'과 '비애'와 '불안' 등의 심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상하게 점점 적막 속으로 비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어쩌지 못하였다."(59쪽),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불안은 점점 구체화되면서 초조롭게 그의 가슴을 압박했다."(61쪽) 등의 구절에서 확인되듯, 거사가 실패하리라는 예감은 이미 기돌의 내면 묘사를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노출된다. 그를 에워싼 건입포 앞바다는 그런 기돌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심상적 공간이자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이질적 경관으로 기능하며, 이렇게 왜인과 관의 횡포 속 빼앗긴 삶의 터전은 기돌을 주축으로 한 제주 어민들의 무력한 계급적 위치를 자각케 하는 외부적 공간으로 재인식된다.

① 여범은 그해 12월 공물선을 탔다가 실종하였다. 관이 선부를 차출할 때 여범이 점 찍혔다. 부역은 군역에 해당되는 구실이었으므로 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사공 일을 맡는 격군이 되어 한양으로 향하는 공물선의 노잡이가 되었다. 선단이 독거도 앞바다를 지날 때 그는 그가 탔던 삼장선과 함께 익몰하고 만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범은 젊은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겼다. 예로부터 해난사고는 잦았으므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나 주장을 잃은 선계의 계원들은 여범이 관에 밉보였기 때문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가 끌려가 항해 길에 변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부들은 사람이 살다 가는 것을 바다 위로 범선이 지나간 것 같다고 말한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거짓처럼 없어지고 바다는 변함없이 텅 빈 채로 남는 것이다. (58쪽)

② "가고 싶으면 가라지. 당신 같은 사람 떠나든 말든 누가 맘을 쓰겠소. 어디 간들 누가 반겨주겠소. 그게 이 세상 아니오…."

기돌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허전한 가슴을 누루지 못하며 뒤로 쓰러져 누웠다. 눈을 감자 눈구석 가득 눈물이 괴어올랐다.

그는 푸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는 뱃고동소리도 들려오지 않는구나. 떠날 사람은 다 간 건가…." (84쪽)

인용문 ①과 ②는 각각 작품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포구와 바다를 둘러싼 비관적인 심상이 작품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 ①에서 알 수 있듯이 선계의 계주였던 여범은 관에 밉보였기 때문에 부역에 차출되어 공물선을 탔다가 익몰되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거짓처럼 없어지고 바다는 변함없이 남는 것을 보면서, 어부들은 사람이 살다 죽는 일을 바다 위로 범선이 지나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어부들의 이러한 숙명적인 삶의 조건은 관에 의한 부역(격군)의 강제 차출이라는 외부적 조건과 맞물려 그 허무함과 무력함이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결말부에 해당하는 ②의 인용문은 거사의 실패와 함께, 기돌이 몰래 연모하던 수화가 딸 연주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는 장면으로, 기돌은 뱃고동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텅 빈 바다에 홀로 남아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떠날 사람은 다' 가고 미처 떠나지 못한 이들만 남겨진 산지포는 무장소성이 경관을 잠식해버린 곳으로 작가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특히 결코 도래하지 않을 이상을 멀리에 두고 눈앞에 현존하는 바다는 희망을 좌절케 하고 위태로운 자신의 실존을 자각케 하는 두려움의 경관으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산지포를 둘러싼 장소상실의 감각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진상 가는 배」에서, 유배인으로 정주한 제주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온 원석의 아버지는 제주의 하천과 바다를 보며 가난함을 모르고 살던 어린 시절의 고향 평산과 그 앞으로 흐르던 예성강을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였다. 그리고 이런 심정은 다시 아들인 원석에게로 그대로 옮겨온다.

① 원석은 아버지가 부르곤 했던 노랫가락을 응얼거린다. 아버지는 고량자제로 자랐던 어린 시절, 그 옛 시절을 잊지 못하고 먼 고향을 그리면서 살다갔다.

평산 하면 농산물이 많은 고장이다. 멀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수로가 좋은 곳이다. (중략)

"평산은 마을 앞으로 예성강이 흘렀어. 강가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집은 기흉년을 모르고 살았지."

배고픈 사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옛 얘기가 자꾸 떠오른다. 아득히 먼 곳 얘긴데도 말야." (194쪽)

② "(상략) 내일쯤 떠날 것 같으니 시키는 대로 잘 해줘."

왜골 사나이는 조원들을 제 종 부리듯 거친 억양으로 다루었다.

원석은 가슴속에 푸른 물결이 이는 것을 느꼈다. 제주바다의 물마루 뒤로 격군들이 가야 할 경강의 물결과 아버지가 살았던 예성강의 물결이 보였다. 그 물결들은 하나로 이어져서 물줄기의 한가운데로 이쪽을 띄워보내려 하고 있었다. (203쪽)

여기서 보듯 다음날 대정현을 통해 들어오는 가파도의 희생(國牛)을 제향 진상으로 싣고 산지포를 통해 출항하기로 된 원석은, 출항 전날까지 봉물 싸는 노역에 가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②에 나타나듯 배를 통해 제주를 떠나는 것에 은근하게 설렘을 느낀다. 그의 가슴속에는 ①의 아버지가 살았고 늘 그리워하던 예성강의 물결이 보이는 듯했다. 아버지와 달리 제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음에도 원석에게 제주는 자신과 가족들을 사지로 내몬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며, 예성강이 흐르는 평산은 긍정적으로 상상된 고향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원석에게 산지포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유배지이자 변방인 제주를 떠나 마음속 고향인 평산으로 향하게 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변방으로서의 제주에 대한 공간 인식, 그로 인한 제주에서의 탈주 욕구가 유배인 2세의 관점에 맞춰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다음날, 원석은 이번 진상이 무산되었다는 당혹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는다. 이양선 2척이 가파도에 배를 대 소들을 노략질하여 희생용 검정소가 모두 도적맞았다는 것이었다. 진상에 동원된 격군은 전부 해산하였고, 넉 달 만인 이듬해 3월에 다시 소집되어서야 이들은 "섬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국우 약탈 사건이 영길리〔영국〕 도적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임을 알게"(207쪽) 된다. 더불어 이번 격군의 재소집은 그에 대한 사죄 진상의 차원이자, 제주목사 구재룡과 대정현감 강계우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을 파직하고 육지로 이송케 하는 행선임을 알게 된다. 이제 원석은 파직될 수령들을 싣고 산지포를 떠나 한양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 배는 서서히 호안을 떨어져나갔다. 배가 개어귀를 빠져나가자 뱃머리에 물결이 일었다. 원석은 아, 이제 떠나는군, 하고 자신도 모르게 속소리를 내었다. 그의 가슴은 설레었다. 사람을 싣고 떠나는 거야, 가는 사람을 보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자 그의 머릿속 한 구석이 희읍스레 열리면서 살빛이 검고 키가 작은 사람들 형상이 나타났다. 여송인들이었다. 그들은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원석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
> 40년 전, 그들도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났을까. 아버지는 그들을 실어날랐다고 말했다. 난쟁이같이 생긴 사람들이 검은 살가죽에 잠방이 적삼을 입은 옷거리는 조금도 맵자하지 못해 원숭이 모양이었다고 말하는 걸 원석은 들었다.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잭잭거리고 깡충깡충 뛰면서 이쪽에 머리를 꾸벅거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 감사의 표시였다며 아버지는 눈가장을 붉히기도 하였다. 그에게도 이국인들처럼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던 것이다. 집이 그리운 사람들을 내가 태우고 갔어, 하고 자랑하였던 아버지는 세월이 지나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도 없어 눈물 묻은 회정을 타령으로 읊었다.
>
> 원석은 아버지가 갔던 뱃길과는 다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자신이 태우고 가는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원석은 자신도 훗날 들려줄 얘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아버지처럼 혼자 노래를 부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213~214쪽)

40년 전, 원석의 아버지는 제주에 표류되었던 검고 작은 형상의 여송인(필리핀 사람)들을 한양으로 보내면서 격군으로 배를 탔었다. 아버지는 당시 '집이 그리운 사람들'을 태우고 갔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렇게 잠시 제주를 떠나왔던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희망과 비애감이 양가적으로 공존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에게 각인되었다. 이국인들처럼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던 원석의 아버지는 이 사건을 계속 되새기며 틈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노래로 불렀다. 반대로 지금의 원석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가 떠났던 것과는 반대의 뱃길을 가고 있음을 느낀다. 원석은 자신이 태우고 가는 사람들이 "뱃바닥에 말뚝 박고 서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시선 속에 무엇이 고물거리고 있을까"(214쪽)를 고민하고, 자신 역시 아버지처럼 훗날 들려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산지포를 떠나는 배 안에서 이처럼 그는 여러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도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유배인 2세에 해당하는 원석에게 제주는 자신을 가두고 곤궁케 한 유배지이며 평산이라는 이상적 장소와 대척점을 이루는 변방의 공간이기에, 이곳을 떠나거나 혹은 돌아올 때에 거쳐가는 항구, 즉 기항지(寄港地)는 일종의 개방과 폐쇄의 양가적 속성을 담지한 중간 기착지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 원석에게 산지포는 고립된 변방의 섬을 떠나 이상적 중심을 향해 탈주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방적이지만, 막상 그가 꿈꿔온 고향은 일종의 상상된 심상적 공간이기에 도달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는 점에서 폐쇄적이다. 그러므로 유배인 또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산지포는 탈주의 욕망 아래 긍정적·부정적 감정이 혼재하는 장소가 된다. '지금-여기'에 대한 배제가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현실 너머의 허구적 이상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이중적 속성을 갖는 것이다. 이때 원석에게 있어 산지포 앞바다는 그 너머 평산의 예성강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그것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장소애착이 깃든 공간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라는 의식적 층위와, 그와 별개로 삶의 터전으로 계속 몸담아야 하는 엄연한 현실은 그로 하여금 '실존적 외부성'[104]을 고착시킨다. 이렇듯 일종의 매개적·타자적 장소로 항구와 제주를 인식하는 외지인의 관점은, 현지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비극의 여객선」에서도 반복되어 형상화되면서 제주라는 공간의

104) "실존적 외부성은 자각적이고 깊은 생각 끝에 내린 무관심, 사람들과 장소로부터의 소외, 돌아갈 집의 상실, 세계에 대한 비현실감과 소속감의 상실을 포괄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장소가 실존의 의미 있는 중심일 수 없으며, 기껏해야 의식 없는 망상적인 활동의 배경이 될 뿐이며, 최악의 경우는 공허하기도 하다."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정적 속성으로서 '변방' 인식에 연속성을 부여한다.

「진상 가는 배」가 산지포를 유배인의 입장에서 기항지로 인식하고 있다면, 「비극의 여객선」은 주민의 입장에서 산지항을 그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되기에 앞서, 소설은 작중 인물들이 지닌 배경과 사고방식을 통해 중앙권력과 일본제국주의가 유포한 식민성에 경도되어 있던 제주사회의 분위기를 그려낸다. 작중 주인공인 한진은 "건입마을에서 의료업을 하는 사람으로 일본인 의사 밑에서 수련을 거쳐 지나사변이 나던 1937년에 내과의로 개업"(88쪽)한 인물이다. 그가 양의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다. 한진의 아버지는 어느 일본인이 자신을 불결하단 듯 바라보던 시선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여 한진에게 "너도 공부하면 그놈들과 같이 행세할 수 있겠냐?"(89쪽)며 양의학 배우기를 종용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비위생적인 생활 모습을 멸시했었는데, 이들은 "조선사람들은 게으르고 불결해. 위생이 무엇인지 보건이 무엇인지 깜깜 모르는 인간들이야. 병들면 무당으로 달려가는 미개인들이지."(88쪽)라는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한진을 양의사로 키우려 한 아버지의 결심의 바탕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반발감과 "땡볕에 그을며 지게질에 등이 굽는 삶, 그 천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 우선 있었다. 또 거기에는 "이복 형에 대한 선망과 질시의 감정이 깔려 있었"(89쪽)는데, 서자로 태어나 공부를 하지 못한 아버지에 비해 적자인 형은 한방의학을 배웠고, 아버지는 그것보다 양의학이 낫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식민지 주민은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 속에서 끊임없이 주변으로 내몰리는 동시에 철저하게 타자화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한데 거주하는 항구 주변은 이러한 식민/피식민 공간이 분리된 모습을 통해 "더러움과 깨끗함, 전근대성과 근대성, 서구와 비서구라는 이분화된 감각의 체계"[105]를 효과적으로 주입시킨다. 이렇게 타자화된 논리는 식민지 주민으로서의 한진 아버지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새 내면화되어, '오염'(조선)되지 않고 '깨끗하며 건강'(일본)것, '전근대적'(한방)이지 않고 '근대적'(양방)인 것 등 '위생의학'적 관점에서 우열을 따지도록 조장한다. 이렇듯 근대적 질서에 편입하고자 하고, 거기에 미치지

105) 신진숙, 「'항구도시'를 통해 본 식민지 감각의 체계 - 1930년대 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81~182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못하는 이를 다시 자신과 분리하여 열등하게 치부하는 경향은 식민성이 내재화된 피식민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이런 인식은 아들인 한진에게로 그대로 답습된다. 일례로 그는 일제의 식민 정책에 사사건건 맞서는 동생 한구의 행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① 후에 듣기로 동생은 제주항 축항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새마음을 먹은 걸까? (중략)

산남(山南) 지방에서 어느 종교단체 신도들이 일본이 망한다는 말을 퍼뜨려 경찰이 반일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을 때 축항공사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노동자들이 일본인 감독의 중간착취를 규탄하여 작업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제주경찰서에서 경차대를 투입하여 주동자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구속자 중에 한구가 끼었다. 구류처분을 받은 자들은 모두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새마음 먹고 착착하게 살고 있을 것으로 믿었던 한구는 이곳에서도 투사처럼 앞장섰다가 쫓겨난 것이다.

"지게꾼 하는 게 당연해. 그런 성질이라면 천상 낙척하는 거지." (102쪽)

② "아니에요.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더 우습게 보고 있어요. 저는 똥통학교 다닐 때 일본인 교사에게서 배웠어요. (중략) 왜놈에 속지 말자… 우리는 조선인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까요? 형님, 저는 그 선을 긋지 못하겠어요. 형님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에겐 배울 점도 있어. 집을 한 채 지어도 그 사람들은 백년을 본다구. 그런 지긋한 면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104~105쪽)

한구는 중등교육기관인 농업학교에 다니다가 "일본의 교육방침에 항의하여 맹휴를 벌이다가 처벌"(101쪽)되어 퇴학당했던 전적이 있다. 성인이 되고서는 제주항 축항공사장에서 일하며 달라졌나 싶더니, ①에 나오듯 일본인 감독의 중간착취를 규탄하여 작업을 중단하는 노동투쟁에 투사처럼 앞장섰다가 쫓겨났다. 한구는 자신의 생존권에 타격을 입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도 일본인들로부터 당하는 불합리한 처사를 견디지 못한다. 그는 학생 때부터 제주 사람의 혈통이 일본에서 났다는 일본인 교사의 왜곡에 반발감을 느껴왔다. ②에서 보듯, 한구는 근대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질서를 표방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주의, 공동체주의를 견지한 전근대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물이다. 한진이 보기에 그런 한구는 근대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치부된다. 심지어 한진은 한구가 '파라노이아'(편집증)(114쪽)라는 병에 걸렸다며 병자로 단정 짓는데, 이는 위생의학적 관점에서 한구를 '건강'이라는 이름 하에 치료하고 계몽되어야 할 '미개'하고 '오염'된[106] 존재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한진의 이러한 관점은 고향인 제주를 대하는 공간 인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본 사람의 '지긋한 면'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전시상황 속 소개령이 내려진 제주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할 공간이 된다. 그러므로 그는 "산지포구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과, 지게꾼으로 근근이 밥벌이하면서 그런 아들에게 "판검사 돼서 일본놈과 놀아난 사람들 다 잡아가두지"(100쪽) 않겠냐며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려는 한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시골스러운 것, 고향의 토속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감각이 그에게 내재해 있다. 여러 설득 노력에도 한구가 바뀌지 않자, 한진은 이제 한구를 자신의 세계에서 배제한다. 가족들을 데리고 출향할 것을 결심하면서도 한구는 거기서 제외되어 있다. 그가 보기에 한구는 앞날이 불안정한 제주섬의 모습과 동일시되어 여겨지므로 제주에 남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관점은 항구를 둘러싼 두 인물의 상반된 입장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구에게 산지항은 노동에 종사하는 삶의 터전인 반면, 한진에게 산지항은 생존과 이익을 좇아 떠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경유지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진은 장차 제국주의자들의 격전지가 될 고향 제주를 미련 없이 탈출하려 하면서도, 출향 이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자신의 스승이자 기득권층인 일본인 야스오카에게 소개장을 받으려 애쓴다. 그가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한구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을 통해 확인된다. "섬사람이 친일한다면 그건 나라가 만든 일이야. 조정이 섬을 너무 천대했잖아. 그들은 지금 일본 사람보다 더 섬을 홀대했어."(104쪽) 이와 같은 논리는 아래의 인용문 속 산지항을 떠나는 여객선에 몸을 실은 한진과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친일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장면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

106) 위의 논문, 18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는 친일파가 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쪽이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저쪽에서 부르는 게 이름이지."

"어쨌거나 나온 건 잘한 일이야. 앉아 있었다고 친일파 면하겠나."

"나도 귀가 아팠지. 잘 먹고 잘 입으러 간다는 거야. 혼자 잘 살아라, 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더라구. 위험이 닥쳐서 살길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이게 뭔 소린가. 누가 가고 싶어서 가나. 세상이 이렇게 된 데 분노할 줄은 모르고 말야…."

"나는 기회에 잘됐다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진작부터 떠나고 싶었거든요. 송사장은 언제 돌아갈 거요?"

눈빛이 가물가물하고 있던 이기환이 송윤희에게 묻는다.

"돌아가? 나는 육지에서 살려고 해. 처음에는 곧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미운 사람들 많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115~116쪽)

이처럼 애초에 자신들을 배제해온 민족주의 이념을 수호하며 생존의 위협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체제와 이념을 선택하면서 안위를 수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이어지는 발상은, 어찌 보면 내부식민지를 강요당해온 제주인들에게는 인과적으로 당연한 흐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만 여기에는 중앙권력과 제국권력이 공통으로 유포하는 식민성의 논리가 그 밑바탕에 이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있다. 이미 내부수탈을 겪어온 토착민이 자국의 국가주의를 부정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글로벌 제국주의 체제를 도리어 긍정하는 과정은, 생존을 최상위의 가치로 지향하는 사고방식과 결합할 때 자신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부정하며, 외부의 주체성을 이식하고 거기에 동화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실상 제국주의 국가들의 각축 속에서 안정적인 정주성을 잃고 이동해야 하는 처지들임에도, 이러한 제국주의의 승인 아래 중앙으로 역편입하여 일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모습은 중앙권력과 제국권력의 이중식민성이 피식민자들의 삶과 인식구조를 전방위적으로 포섭한 형국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에 따라 이들에게 제주항은 '변방'의식에서 벗어나 중심에 대한 진입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자기부정적 탈주 욕구와 외부에 대한 선망의식이 담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제주항을 떠나는 그들의 출향이 마냥 낙관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 목포행 여객선에 몸을 싣긴 했으나, 한진은 "연무가 끼듯 눈앞이 어두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는 것을 느끼면서 “천 리가 될까. 이천 리가 될까. (…)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둠 속의 길이 될지도 모른다.”라며 불투명한 앞날을 막막해한다. “소개장이 있다 해도 그것이 앞날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111쪽)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당도하게 될 공간은 미지의 공간에 다름없었다. 그렇기에 “전송을 받으며 떠날 때와는 달리 사람들의 모양은 초라해” 보였는데, “여러 가지 꿈과 야심을 지닌 그들일 터이나 먼 세계로 떠나는 모양은 불안을 안은 피난민들일 뿐”(113쪽)이었던 것이다. 특히 한진은 그가 내버려두고 온 한구를 향한 죄의식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데, 이 모습은 고향에 대한 떨칠 수 없는 소속감의 반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주라는 주어진 상황과 그로 인한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 상실, 한편으로 기반 결여의 불안감과 남겨둔 공동체에 대한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산지항 주변의 장소경험은 그대로 당시 제주사회 전반의 불안정했던 장소성을 표상한다.

이때 소설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불안감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시킨다. 미군기가 소리 없이 다가와 배 위로 기총을 난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희망을 안고 제주항을 떠나온 그들의 여객선은, 그들의 바람이 허위에 찬 열망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바다 속으로 무참히 침몰 수장되고 만다. 한진 역시 그 틈바구니에서 희생된다. 자기 자신을 타자가 아닌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탈출한 이들에게, 소설은 사실 너희들에겐 그런 걸 선택한 권리도 없다는 듯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붓는다. “섬을 나온 게 잘못입니까. 왜놈의 배를 탄 게 잘못입니까.”(119쪽)라며 절규하는 한진의 몸은 마치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바다 속에 깊게 가라앉는다. 그 옛날 제주 사람들을 억압하였던 출륙 금지령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바다는 다시 그들을 가두고, 외부로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좌절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소설은 집도 가족도 재산도 다 잃은 일부의 생존자들이 쓸쓸하게 제주항으로 귀향하는 역설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한진의 어린 아들도 끼어 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남은 자(한구)에 대한 멸시와 떠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전해 듣던 인물이다. 제주항은 그 아들을 다시 ‘변방’의 공간으로 이끈다. 변방의식에의 이탈 욕구가 다시 변방에의 회귀로 귀결되는 역설을 통해 오경훈은 ‘변방’으로서의 제주에 대한 공간 인식을 강화하고 연속화하며, 이를 통해 식민적 주체화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미군에 의한 무차별적 민간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학살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해방 이후 분단 정권과 미국의 의도 아래 제주에 도래할 '절멸'의 공간적 표상을 예비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모변」과 「진상 가는 배」, 「비극의 여객선」은 공동체 구성원의 장소애에 기반한 장소감 대신 비진정한 장소경험으로 감각되던 항포구 주변 공간의 무장소성을 부각함으로써, 제주섬을 둘러싼 변방의식이 내·외부적으로 침투해 있는 모습과 식민성 내재화가 팽배하던 당시 섬사람들의 인식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4) 상생과 항거의식의 발현

한편 「객사」와 「모변」은 포구를 중심으로 가해지는 국가와 외세의 억압에 대항하여 자생적으로 도래하는 장소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분모가 있다. 특히 「객사」에서는 개항의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담지한 '상생'으로서의 공간 인식을, 「모변」에서는 공동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항거'로서의 공간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객사」를 살펴본다.

① "한마디 할까 하오. 역사(役事)를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이 일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으나 그게 아니오. 지금까지 포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문물이 드나든 곳인데도 성새(城塞)와는 달리 역대 수령들이 위정을 고과(考課)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여 돌보지 않았소. 그러나 제주 북방 해안을 따라 마을마다 포구들이 있다 해도 조건이 좋지 않아 확장이 어려우므로 제주성은 산지포와 별도포 두 포구를 넓혀 내지와 왕래하는 관문으로 써야 하오." (22쪽)

② "한 가지만 생각지 마시오. 제주는 해상의 요충으로서 왜선과 중국 상선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소. 그래서 병선을 정박시켜 방어에 임하고 있는 거 아니오? 또 최근에는 조세를 문물로 징수하니 이를 운반하기 위한 대형선이 출입해야 하는 거요. 지난 바람에 산지포에 매어 둔 관선이 깨어지고 참바가 끊겨 떠내려간 것을 알고 있지 않소? 산지포의 결점은 옹호입이 없다는 거요. 이번에 내가 그걸 고쳐놓으려고 하였는데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소. 더 이상 공사가 어렵다 하니 이제 역군을 별도포로 돌리겠소." (2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③ “무슨 소리를. 그래도 해야 하오. 이건 어사의 장계보다 추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오. 보고 가만있을 수 있소? 연륙길이 안전해야 섬사람들이 살기가 편해지는 것 아니오? 언젠가는 당신들이 마음 놓고 편히 드나들게 될 것이외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익사하는 게 무엇 때문이오? 포구가 얕으니 그런 것 아니오? 작은 포구에서 큰 배를 부릴 수 있소? 언젠가는 출륙이 허용될 것인즉 내말을 따르시오. 나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생각해보고 있소. 당신들 처지에서 장래를 보려 하는 것이오.” (23쪽)

여러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무리해서라도 축항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노봉은 위의 인용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며 반박하였다. 첫째는 포구가 얕고 불안정하여 풍랑이라도 불면 매어둔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바다에서 익사하기도 하는 등 제 구실을 못하였기에 이러한 생업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섬사람들이 살기가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③). 둘째는 머지않아 출륙 금지가 해제될 때 육지와 섬을 오가는 운행량이 증가하고 외국과의 교역이 확대될 것을 대비, 미리 포구를 넓혀두어 ‘내지와 왕래하는 관문’으로 제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 것이다(①). 셋째로 ‘해상의 요충’으로서의 제주에 외적의 방어용 병선과 판옥선이 원활하게 드나들게 함으로써 “변방을 튼튼히 지켜”(24쪽)야 한다는 이유에서다(②).

이 모든 이유는 결국 “멀리 보면 섬사람들 나들이 편하고 생업 잘되고 풍속이 좋아지”(42쪽)게 하는 데에 수렴된다. “땅만 갈아먹고 살 수는 없어. 말과 소를 쳐도 육지로 길이 쉽게 열려야지.”(21쪽)라는 노봉의 말에서 보듯, 농사에 머무르지 않고 개방의 물꼬를 터와 나라가 도와주지 않는 생계의 기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끔 하고, 출륙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 제주 사람들이 외부와 안전하고 원활하게 문물을 교류함으로써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는 노봉이 축항 공사 이전에 ‘삼천서당’이라는 교육기관을 창건한 업적도 다뤄지고 있다. 출륙 기간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닫힌 제주사회가 전반적으로 우민화되어 있는 경향을 본 노봉이 각 마을의 준수한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치면서 자체적으로 도내 인재를 양성하려 한 것이다. 이런 업적들은 ‘벌거벗은 생명’으로 내몰린 이들을 온전한 존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고 할 만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특히 노봉의 행위가 감동을 주는 부분은, 외부인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던 그가, 어느 순간 그런 시혜적 의식마저도 극복하고 섬 주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손수 노역 작업에 동참하는 과정에 있다. 공사 당시 역군 8명이 노역을 피해 제주를 탈출하려다 잡혀오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옥에 가두고 다른 식구가 부역을 대신토록 조치한 일이 있었다. 이후 노봉은 옥에 갇힌 남편을 대신해 아기를 데리고 나와 노역을 수행 중인 여인을 발견하게 된다.

> 여인이 무심결에 눈을 올리다 목사와 시선이 마주치자 움찍 놀라 아기를 떨어뜨릴 뻔하면서 황급히 옷가슴을 여몄다. 그녀는 아기를 바구니 속으로 던져넣고 인부들 속으로 사라졌다.
>
> 목사는 바구니 속에 눕힌 새까만 어린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눈물 콧물이 말라붙어 얼굴에 고양이를 그리고 있다. 아이의 눈이 자신에게로 향해지자 노봉은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
> 저놈은 이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놈도 자라면 군역이 되고 부역을 맡고 진상물을 모아야 할 게 아닌가. 그러다 사대육신이 괴로우면 섬을 튀려 할 것인가. 창을 들고 난리를 일으키려 할 것인가. (32쪽)

그 여인이 바구니에 던져놓은 어린 자식의 젖은 눈망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노봉은 '야릇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는 그 아기도 자라면 군역이 되고 부역을 맡고 진상물을 모아야 하리라며 섬에서 살아갈 후세대들의 앞날을 체감하게 되고, 그것이 그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된다. 고뇌하던 노봉은 마침내 직접 돌을 져나르기 시작한다. 섬의 미래가 될 어린아이들의 삶이 좀 더 살기 좋아져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외지에서 온 한 늙은 관리는 일선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축항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다 바쳐 헌신하는 존재로 육화(肉化)한다. 그러다가, 돌을 짊어지고 가던 중 그만 쓰러져 척추가 부러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만다.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나날이 악화되어 공사 완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노봉은 끝내 제주를 떠나지 못하고 화북관 객사에서 생을 마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날 밤 노봉은 섬을 떠나는 꿈을 꾸었다. 그가 입싸움을 하고 나지리 여겼던 백성들이 관선을 출항하는 선창에 가득 나와 모여 있었다. 군역이며 노인, 어린 것을 안은 부녀자들까지 나와서 전송하였다.

노봉은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따로 좋은 곳도 없을 것 같았다. 어느 곳이든 사람 사는 곳이며, 그곳에 어려움이 없겠는가…. (중략)

자정이 지날 무렵, 목사는 몇 번 딸꾹질을 하더니 어렵게 목을 열었다. 좌수가 급히 목사의 입으로 귀를 갖다 대었다.

"누가 해주겠소. 자기들대로 해야지. 멀리 보면 섬사람들 나들이 편하고 생업 잘되고 풍속이 좋아지는 것 아닌가. 배가 잘 통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41~42쪽)

임종 직전, 노봉은 '따로 좋은 곳'이 있겠느냐며 제주에 남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시혜적 인식에서 제주를 타지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한층 더 나가, 노역을 함께해온 백성들이 그에게 깊은 애착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노봉은 마지막으로 섬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축항을 완성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 결국 그의 죽음에 맞추어 별도포 공사도 마무리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봉의 이 같은 노력들에는 기존 제주섬의 고립과 폐쇄성이 그간 섬사람들의 삶을 저해하는 데 일조해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오경훈은 선정(善政)의 일환인 별도포 축항 작업을 '항구'로 상징되는 제주 근현대사의 출발지점으로 계보화함으로써 개항의 근원과 주체를 긍정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그 어떤 부속 결과가 따르든 간에 '개항'을 섬으로서의 불가피한 속성이자 숙명으로 파악한 작가 인식의 반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경훈은 〈제주항〉 연작 전반에 걸쳐 개항의 필요성에 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말하자면 "고립에 대한 자책과 개방에 대한 지향을 작가는 은근히 강조하고 있"[107]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객사」가 보여주려 한, 외부자의 입장에 서 있던 한 관리의 헌신은 제주섬의 공동체주의와 상호적으로 맞물려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연대감을 도모한다. 오경훈은 작품 전반에서 이렇듯 외지인을 향한 열린 시각을 유지하고 있

107) 김동윤, 「항구에서 꿰어낸 섬의 운명과 역사」, 앞의 책, 38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제주섬이 지닌 공동체주의가 흔히 폐쇄적으로 간주되는데, 오경훈은 항구라는 개방적 속성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주의가 내부인과 외부인의 상호작용 속에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현장에 관심이 있는 듯하다. 연작의 「동거」와 「어선부두」도 이러한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한편, 「모변」에서 왜인의 횡포와 관의 방조를 견디다 못한 기돌은 마침내 계원들을 불러 모아 거사의 뜻을 내비치고 모변을 계획하기에 이른다.

"(상략)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벌건 대낮에 부녀자를 겁간하고 활개치며 다녀도 내버려두는 세상, 이 나라 백성은 누굽니까? 왜놈입니까 우리 토민들입니까?"

기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관이란 호렴이나 매기고 중간에서 뜯어내어 법강을 흐리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정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도의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법과 기율을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중략)

"이 몸이 젊다 해도 어깨너머로 더러 배운 게 있는 즉 감히 주동이 될까 합니다. 소요에 가담한다 해도 모두 일률로 논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뇌가 목을 내놓으면 추종은 중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략)

"목을 내놓겠다는 거요? 두렵지 않소?" (중략)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소. 나는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옛날에는 왜 장두가 많이 나왔을까, 우리들은 너무 미욱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성질 급해서 목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맺어진 끈이 질기게 남아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더러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기돌은 감정이 확 퍼져서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힘이 솟는 것 같기도 하였다.

"이웃이 불행한데 무심할 수 없단 말이지요. 동정심이 밭아버리면 사람도 짐승이나 다름없이 되는 법, 벌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을 얻으려고 앞뒷집 간에 싸움이 일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음식을 놓고 다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작 미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49~50쪽)

「모변」은 산지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창발된 거사와 '장두'(狀頭) 존재의 출현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재조선국 일본인민통상장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후 일본 어민들이 어장을 침탈하고 해녀들을 상대로 겁간을 일삼았음에도 조정이 이를 묵과하는 불합리한 처사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강한 반발심이 일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지역 특유의 공동체주의적 윤리성이 평범한 인물을 장두로 거듭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오경훈은 「모변」의 주인공 이름을 그 이름 설정부터가 하위계층을 대변하는 듯한 '한기돌'로 설정하여, 비영웅적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때 기돌은 자신이 주동격이 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웃과 맺어진 끈이 질기게 남아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며, '이웃이 불행한데 무심할 수 없단' 명분을 제시한다. 이러한 '장두'의 출현 과정과 존립 방식은 마빈 해리스가 제시한 '시원국가'와 '빅맨'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빅맨'으로서의 기돌이 원하는 것은 재산이 아닌 '위대한 시혜자'(great provider)로서의 명성이며,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쏟아내기 위하여 장두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의 앞에는 불행한 이웃, 그러니까 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그러나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108] '이웃과 맺어진 끈이 질기게 남아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장두가 많이 나왔으리라는 기돌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소설은 제주섬 안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해온 '장두'정신의 원인을 섬 특유의 공동체주의에서 찾는다. 이를 통해 오경훈은 제주의 공간 인식의 하나로서 '항거'의 정신이 이날 한시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정신임을 강조하며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한다.

이런 점에서 "장두는 제주의 면면한 역사가 깊숙하게 녹아있는 장치"이다. 근대 이전 삼별초 항쟁(1271)과 목호의 난(1374)을 거치며 제주인들은 타의에 의하여 살육에 휘말려야만 했고, 제주 사람들의 의식/무의식 안에서 이때의 참상은 엄청난 수준으로 각인되었기에, 그러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인으로서는 감히 군사를 일으켜 바다 건너 국가와 맞설 수 없었다.[109] 그러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진상과 가렴주구의 횡포에 손 놓고 순응할 수만도 없었다. 비록 역적은 바라지는 않지만, 어느 담대한 인물이 목숨 바쳐 나와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기

108) 홍기돈, 「동백꽃 보며 장두를 떠올리다」, 앞의 책, 84쪽
109) 홍기돈, 「근대 이행기 민족국가의 변동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 -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 『바람 타는 섬』을 중심으로」, 246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를 바라면서 제주인들은 '장두' 장치를 고안해낸 것이었다.[110] 방성칠 난(1898)의 전개 양상에서 보여지듯, 도민들은 장두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 삼아 무리한 진상과 수령(경래관)의 패악을 해소하는 당초 민란의 목적 달성까지를 원하였지 그것이 나라의 체제를 전복하는 역모로 확장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장두의 존재는 민란 사태의 해결과 무마를 위해 일종의 희생제물로서 필연적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항쟁과 타협의 매개 장치"[111]였던 것이다. 이는 변방의 섬으로서 제주섬이 겪어온 극단의 폭압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가운데에도 항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제주인들의 의지가 적절하게 중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제주가 오랫동안 면면히 이어온 공동체주의의 한 측면이자, 장소성의 한 모습이라 할 만하다.

① "마을 형편은 어떠했소? 모군이 될 것 같소?"

한림지역을 다녀온 김기율이 말했다.

"귀덕, 수원, 한림은 끓고 있었소, 옹포, 금릉, 협재는 식었으나 그쪽도 쉬쉬하는 것이지 때가 되면 일어날 것 같았소."

"동쪽 마을은요?"

고덕호가 일어섰다.

"조천, 함덕, 북촌 모두 원성이 높소, 각 마을 용력자로 머릿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소."

외도마을 이완석, 이호마을 김호량, 고산마을 백은호도 비슷한 대답을 하였다.

"1천 명은 확보해야 하오. 그리 되겠소?"

"지금은 모르오. 장담하면 어긋나기 쉽소."

"우리의 형제, 처남, 사돈, 친구들까지 다 동원하도록 합시다. 석수장이, 파총, 보부상까지도 좋소. 졸도 여럿이면 궁을 괴롭힌다고 하지 않소."

"대군을 어디에 집결시키려고 하오?"

한림지역에서 일인 어막까지 살피고 돌아온 김기율이 상기된 얼굴로 묻는다.

"거사 전일에 통문을 발송하여 동군은 동문 밖 지장각동산 인무정가름에, 서군은 병문천 냇가 옛 조련군 집합장소에 대기시킬 참이오. 여기서 조직을 완료하면 징과 북을 울리면서 성문으로 행진해가는 거요. 동모들은 부수, 참장, 조장을 맡게 될 거

110) 위의 논문, 246쪽 참조.
111) 위의 논문, 24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요. 준비를 마치면 주장이 성안으로 서장을 보내어 목사에게 입성하겠다는 뜻을 통보하는 거지요. 목사가 거절하면 포수를 앞세워 불을 놓으면서 쳐들어가는 거요." (64~65쪽)

② 멀리서 함성이 들려왔다.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소리였다. 군중들이 왜자기는 소리도 들렸다. 괭이갈매기들이 우는 소리였다. 그의 눈에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장정들이 떼지어 몰려가는 게 보인다. 제주성이 눈앞에 있다. 어부들이 어선을 매어두는 산지포구 윗녘을 두르고 있는 성, 그 성벽 위로 푸른 이내가 내리고 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보아온 성은 이제 눈에 익어 이웃집 울타리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눈이 갈 때마다 완강한 느낌으로 보인다. 성은 적을 방어하려고 만들었지만 대적(大敵)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백성이란 대적은 무엇으로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저 함성소리, 고함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가. 외세로부터 모멸당하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제 백성들을 뜯어먹는 데만 정신없는 탐리, 간리들. 그들을 쓸어내자는 민초들의 소리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69쪽)

「모변」은 거사가 은밀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건입포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담당 인물들을 보내가며 동참을 요청함으로써 거사의 규모를 확장해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한다(①). 먼저 각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있고, 마을 단위 공동체의 대표들이 은밀하게 모여 가진 회합에서 장두가 정해지면, 장두의 지휘에 따라 각 공동체에서 봉기에 참여할 장정들의 수를 정하고, 회합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 공동체 대표에게도 연락을 넣어서 합류 여부를 파악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시원국가의 상을 떠올리게 한다.[112] 그리고 기돌의 상상 속에서 이렇게 조성된 거대한 민초 무리들의 함성은 하나의 거대한 파도소리로 전치되고, 이 거대한 파도는 산지포구를 지나 견고하게 구축된 제주성을 뚫고 치닫는다(②). 여기에는 외세와 탐리들을 쓸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변」이 제시하는, 민란이 도모되는 과정에서 외세의 횡포, 조정과 관의 가렴주구가 횡행하는 제주성과 그곳을 면하고 있는 건입포, 이곳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는 작중에서 '항거'라는 제주적 담론의 중심 공간이 된다.

그러나 상황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거사 직전에 기돌은 일본 어민

112) 홍기돈, 「동백꽃 보며 장두를 떠올리다」, 앞의 책, 8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출입을 막으려 무력 싸움에 휘말렸다가 크게 다치고 말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정을 중심으로 한 뜻밖의 민란(신축제주항쟁(이재수란))이 발발하면서 기돌네의 거사 계획은 틀어지게 된다. 이들은 계획을 중단하고 이재수란의 봉기 추이를 지켜보는데, 나중에 기돌은 이 봉기가 프랑스군의 산지포 상륙과 함께 진압되고, 군인들과 교인들에 의해 성내가 장악되었음을 듣게 된다. "대로를 활보하는 것은 외인이고 그들의 기승에 토민들은 물러나 숨을 죽이고 있"(82쪽)는 상황에 기돌은 절망하고 분노한다. 그는 나날이 약화되는 신체 상태로도 "이방인부터 먼저 몰아내야 해. 계획을 고쳐야 쓰겠어…."라고 중얼거리며, "척양척왜(斥洋斥倭)를 쓴 기치를 앞세워 군중을 끌고 있는 자신의 모습"(82쪽)을 상상한다.

> — 우리를 곤고케 하는 것은 기근도 질병도 아니다. 나라를 침범하는 외래인들과 그들에 빌붙는 관리들이다. 자존이 있는 자들이여, 용약 일어나라, 주인되기를 피하면 종이 되는 법, 무괴한 이방인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내 버리자……. (82쪽)

장두가 외치는 격문 속 뚜렷한 항쟁의식은, 문명이란 미명 아래 불평등한 요구를 강제하는 외세뿐만 아니라 그 외세의 주체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채 현실추수적 태도를 취하는 민중에 대해, 권력에 굴신·복종·협력하는 조선의 관리, 그리고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주의 생존 활동과 다른 지역과의 평화로운 해상 교류를 위해 존재해온 제주의 포구가 근대 전환기 서구 열강과 일본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선에 불평등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출입구로서 전락할 운명에 대한 저항이 자리한다.[113] 「모변」은 기돌네가 추진하던 거사와, 작품 후반부에 언급되는 이재수의 난을 함께 병치하여 민란이 끊이지 않던 시대 상황과 제주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특히 개항의 불가피한 결과물로서 한층 강화된 '변방'이라는 주변부적 속성은 역설적으로 외세 침탈의 문제성과 이에 대한 제주인들의 강력한 저항의식을 돋구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오경훈의 〈제주항〉 연작 안에는 견고하게 뿌리내린 식민주의와 그것을 해소하는 자발적 저항의 변증법이 끊임없이 변주하며 작용한다. 이미 개항의 시점부터 수탈과 굴종의 가능성을 동반한 제주의 항포구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생하

113) 고명철, 「제주 항포구의 창조적 저항과 응전」, 앞의 책, 24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제주인들의 “창조적 저항과 응전”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 역시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객사」와 「모변」은 자국과 일제에 의해 지배되는 건입포(제주항)의 무장소성 안에서, 각각 외부인과 내부인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역 어민들의 단합을 통해 표출되는 연대의식과 공동체주의를 부각함으로써 지역의 숨결을 되살린 장소성을 새롭게 복원해내고 있다.

2. 해방 직후의 장소성

앞서 분석한 네 편의 연작은 근대 이행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그 당시의 입장에서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나머지 여덟 편의 연작 「유한」, 「가신 님」, 「빌린 누이」, 「어선부두」, 「기념탑」, 「동거」, 「탑동광장」, 「항구다방」은 해방 직후에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제주 현대사를 소재로 한 작품들로, 제주항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거나, 근대화의 물결 속에 변화한 항구의 현재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여덟 편은 ‘절멸’·‘반공’, 그리고 ‘개발’이라는 두 개의 무장소적 층위의 공간 인식을 구분해 살필 수 있는데, 이 절에서는 먼저 해방 직후의 상황에 집중하여 ‘절멸’·‘반공’의 측면에서 관련 연작을 들여다보려 한다. 특히 주목할 작품은 「유한」, 「가신 님」, 「빌린 누이」, 「기념탑」, 「탑동광장」, 「항구다방」이다. 이 작품들에서 오경훈은 과거의 기억으로 박제된 해방 직후 ‘절멸’과 ‘반공’의 모습들을 현재 항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의 연관에서 끌어올림으로써 현재의 제주를 과거와의 시공간적 중첩 안에서 복합적으로 사유하게 한다.

1) 절멸의 땅과 반공의 보루

해방과 한국전쟁기라는 시공간 속에서, 제주는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수많은 역사적 변수와의 상관 속에서 인식되어왔다. 때로는 외세에 저항한 항쟁의 경험지로서, 4·3을 겪으면서는 ‘절멸’을 통해서라도 반공국가 수립의 역사적 과제를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한국전쟁기에는 육군 제1훈련소로 상징되는 반공의 최후 보루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심상으로 덧칠되었다.[114] 이 모든 복합적 사태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근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바깥 세계와의 교통과 폐쇄를 담당해온 제주항은 그야말로 섬으로서의 제주의 지정학적 성격을 집약하는 핵심 장소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해방 직후의 전란 상황 속 제주에 도래한 4·3과 한국전쟁의 비극이 항구를 중심으로 '절멸'과 '반공'이라는 공간 인식을 새롭게 구성해나간 경위를 들여다볼 것이다. 절멸과 반공의 논리는 외부에 의해 인식되던 변방의 공간 인식의 극단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한」과 「가신 님」, 「빌린 누이」, 「기념탑」, 「탑동광장」, 「항구다방」에서는 4·3과 한국전쟁, 나아가 베트남전쟁을 거치며 죽거나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사연이 제주항과 그 주변 공간을 매개로 도출된다. 이를 통해 과거로 박제되었던 절멸과 반공의 기억이 현재까지 제주섬에 유령처럼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외압에 의한 장소상실의 역사에 대응하여 내부에서 표출된 인정투쟁 혹은 대항기억과 저항의식이 항구를 중심으로 맞물리면서, 변방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된 제주의 근현대사를 읽어낼 수 있다.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도는 토지조사사업과 조세 부담, 산업 통제 등으로 본래 열악했던 농촌사회가 더욱 피폐해지면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중공업을 육성하던 일본으로 많은 수의 주민들(대다수가 청년들)이 건너갔다. 제주~오사카 정기항로는 이런 노동 인력을 유입하는 통로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인 5만 명이,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두 명 중 한 명꼴이 일본에 진출하였다. 그러다 해방 직후, 9월 28일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을 해제시킨 이후에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일본군 철수작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주에는 급격한 인구이동 현상이 빚어졌다. 제주항을 떠난 수송선은 규슈 사세보항에 6만여 명의 일본군을 내려놓고, 일본 등지에 강제징용 또는 자발적 이주로 건너가 있던 제주인 6만여 명을 데려왔다. 해방 당시 제주 인구는 일본군을 제외하면 22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이 1년 사이에 28만 명을 넘게 되었다.[115]

한편 태평양전쟁이 끝나고도 10월까지 제주는 일본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총검으로 곧잘 주민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모리배들과 전쟁물자를 뒷거래하고 비축해둔 군량미를 불태우는 등의 횡포를 자행했다.

114) 김동현,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67쪽.
11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68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에 제주도민들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조직 경험과 방법을 토대로 자치적인 치안조직 및 행정·경제조직의 결성에 착수했다. 9월 제주도 인민위원회(인민위)의 신속한 결성과 광범위한 조직력의 바탕에는 사회주의 세력의 조직적 항일운동 경험과, 그들에 대한 도민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무엇보다 제주항을 통해 들어온 6만여 명의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자들은 전형적인 농촌사회였던 제주도에 노동자적 의식이 퍼지고 일정 정도 사회주의 운동이 확장되는 기반을 마련했다.[116] 이들은 일본 노동운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는가 하면, 일본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민족적 차별을 경험하였기에 일정한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배경하에 해녀투쟁을 주도했던 조선공산당 재건조직과,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일본 귀환자들이라는 두 축의 항일운동가 그룹이 인민위 지도부를 구성, 1945년~46년 사이에 제주도의 정치적·사회적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실질적인 자치정부로서 역할했다. 여기에는 당시 제주도 군정업무를 맡았던 미59군정중대의 암묵적 묵인 또는 협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117]

1945년 11월 제주항에 첫 상륙하였던 미59군정중대는 이처럼 초기에는 인민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시작으로 냉전체제를 본격화하면서 소련의 팽창과 세계적 공산화를 우려, 개입주의 대외정책으로 기조를 정하자 이때부터 미국에게 남한은 동아시아 이념대결의 장이자 반공의 전초기지로 인식되었다. 특히 제주의 경우, 19세기 말부터 이미 한·중·일 3국의 한가운데 위치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 섬으로 주목되어왔다. 이때 친미정부 수립 및 반공노선 강화에 주력한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반도의 독립국가 수립 열망을 무력하게 하는 동시에,[118] 자주통일과 독립을 지향하며 제주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던 인민위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이후 미군정은 강화된 물리력을 이용해 인민위 인사들을 탄압하고 친일관료 재등용, 경찰기구 확대 등의 우경화 정책을 펼쳤다. 한편, 20세기 초 일제의 식민경제체제 이식으로 붕괴되었던 제주의 자연경제는 급작스러운 해방과 함께 아무런 대비책 없이 종래의 체제로 돌아오면서 귀환자들의 심각한 실직난, 대일 교역의 불법화, 생필품 부족, 콜레라와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

116)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 4·3항쟁의 배경 - 제주도 인민위원회,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88, 66쪽 참조.
11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70~77쪽 참조.
118) 허호준, 앞의 책, 24~28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문제에 부닥쳤다.[119] 그런 와중에 미군정이 실시한 미곡수집정책과, 밀무역을 둘러싸고 모리배와 결탁한 단속기관의 뒷거래까지 횡행하자 도민사회 전반에 미군정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조성되었다.[120] 세계냉전체제와 한반도 중앙권력을 포괄하는 외부세력의 물리력에 반발하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제주의 환경과 역사를 통해 빚어진 특유의 공동체성은 3·1절 기념집회 및 한국사에서 유례없는 민·관 총파업에 도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에 이른다.[121]

3·1절 발포사건의 여파를 이어가며 좌익세력이 일으킨 4·3 무장봉기는 미국이 한반도 점령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수행 사안으로 인식하였던 5·10 단독선거에 대한 집단적·독자적 반발이었다. 이는 당시 국내정치 주도세력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되어, 이때부터 제주는 냉전정책의 직접적인 시험대가 되었다.[122] 섬 전체를 좌익들의 '붉은 섬'으로 단정한 미군정은 1947년 8월부터 도내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다. 이어 분단체제 안에서 남한 단독정부로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반공주의 시각에 편승, 자유민주주의의 신성성을 수호하고 안정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제주에 대한 '말살' 작전을 계획했다. 8월 정부가 수립되고 11월에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1949년 3월 해제 시까지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마을의 95% 이상이 방화되었고, 2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살육되었다. 한편, 계엄령 해제를 기점으로 무차별 진압이 일단락된 이후로도 1950~53년 한국전쟁기에 예비검속을 이유로 하여 수용자들을 절차적 정당성 없이 육지로 싣고 나간 배는 제주항을 거쳐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약 3천여 명의 예비검속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희생자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123] 그리하여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면서 4·3이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제주는 약 3만 명 이상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절멸'의 땅이 되었다. 이 점에서 제주에서의 한국전쟁은 4·3의 연장이었으며, 그런 한편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절멸'의 땅에

11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83쪽, 98쪽 참조.
120) 양정심, 앞의 책, 57~58쪽 참조.
121) 박찬식, 앞의 책, 217~220쪽 참조.
122) 허호준, 앞의 책, 44쪽, 111쪽.
12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5~537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 '반공'의 요새로 변모한 제주는 반공국가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 수호의 인재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서 또다시 중심의 호명에 응답해야 했다.[124] 제주는 정부로부터 최후의 피난 지구로 명명되며 최대 규모의 피난이 기획된 곳이었으며, 당시 모슬포 육군제1훈련소를 주축으로 이곳으로 아예 이주해오는 군인들도 많았다.[125] 따라서 해방 직후의 제주항은 이곳으로 출입한 이동 주체들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항거'와 '절멸', '반공'이라는 복합적인 공간 인식을 중첩시켜온 제주사회의 속성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공간이 된다.

연작 가운데 「유한」과 「가신 님」, 「빌린 누이」는 제주항을 매개로 '절멸'에서 '반공'으로 이어지는 4·3과 한국전쟁을 함께 다루고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 세 소설은 모두 관찰자적 인물들(「유한」의 '한수', 「가신 님」의 '수자', 「빌린 누이」의 '양심석')의 시선을 통해 4·3과 한국전쟁의 비극을 연달아 겪었던 이들의 중첩된 비극을 조명하면서 절멸과 반공의 공간 인식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준다.

① 아버지는 왜정 때 구장을 해서 공출 거두는 일에 관계하여 민족반역자란 비난을 받았다. 이런 약점 때문에 한라산 무장대가 접근하여 양식과 의류를 징구하였을 때 반발하지 못했다.

이 사실이 군경에 알려져 아버지는 징역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였다. 4·3 발발 2년 후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구실로 좌익 전과자를 대상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134~135쪽)

② 제주농업학교 재학생이었던 강승운은 18세의 나이로 군에 지원하였다. 작은아버지가 산 쪽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고 겁을 먹은 승운이네가 굴속에 숨어 있다가 잡혀 취조를 받았다. 승운이네는 뇌동자로 찍혀 주의인물 명부에 올라 버렸다.

제주도 4·3사건 발생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며 좌경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검속된다는 소문이 나돌 무렵 승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군에 입대하도록 종용했다. (중략) 아버지의 권유가 아니었어도 승운은 지원했을 것이다.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이 모두 혈서를 써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0쪽)

---

124) 김동현, 앞의 책, 66쪽.

125) 김아람, 「한국전쟁기 제주도의 공간적 인식과 이주·개발 정책」, 『동악어문학』 75집, 동악어문학회, 2018, 73쪽, 82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③ 그녀의 생모는 그녀가 어렸을 때 단선정부수립 무렵 입도한 서북청년에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어디로 사라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적개심을 품고 한라산 무장대에 가담하여 군경과 싸우다가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었다. 2년 후 6·25전쟁이 일어나 그녀의 아버지는 생사를 알 길이 없게 되었다. (189쪽)

①의 「유한」은 한국전쟁 때 예비검속으로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위무하려는 나이 60이 된 아들 한수의 사연을 담고 있다. 한수의 아버지는 왜정 때 구장을 지내며 공출 거두는 일에 관계하였다는 약점이 있어서 4·3 때 한라산 무장대가 접근하여 양식과 의류를 징구했을 때 반발하지 못했다. 이 사실이 군경에 알려져 징역을 살았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징역 산 것이 빌미가 되어 예비검속에 걸려들었던 것이다. 이 일로 한수 아버지는 육지 형무소로 연행된 뒤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이때 연행된 이들 가운데 돌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고, 이들 "500여 명을 발가벗기고 제주항에서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싣고 가 돌을 매달아 떨어뜨렸다는 말"(131쪽)이 기정사실처럼 떠돌았다. 당시 일본 대마도 해안에는 수백 구의 한국인 시신들이 떠올랐다고도 전해졌다. 이에 한수는 아버지의 시신이 표착했을지도 모르는 대마도까지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끌려갔던 동부둣가의 주정공장 창고 터를 계속해서 맴돌지만, 그의 가슴에 남은 한은 유구하게 한수의 여생을 옭아맨다. 이런 한수를 보며 그의 가족들, 특히 육지 출신의 며느리는 한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박한다. 불과 50여 년 전 섬을 휩쓸었던 절멸과 반공의 기억은 국가에 의해 은폐되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지만, 한수의 마지막 기억 안에서 속절없이 끌려가던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눈에 선하다.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는 그렇기에 온전한 애도마저 불가능해진 인물이다. 한수가 틈날 때마다 드나드는 옛 주정공장 창고 터는 한수의 상상 속에서 그 시절 제주에 도래했던 비극과 그로 인해 고통받던 아버지를 끊임없이 기억해낸다.

②의 「가신 님」은 일흔 살의 해녀 수자를 등장시켜 4·3의 상흔과 함께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묻고 있는 작품이다. '강승운'은 50여 년 전 수자의 옛 남편이었던 인물이다. 승운은 한국전쟁 때 18세라는 어린 나이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가 전사하였다. 그의 입대에는 4·3에 얽힌 가족사로 인한 것이라는 속사연이 담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다. 작은아버지가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고, 승운의 가족들은 굴에 숨었다가 붙잡혀 뇌동자로 찍히게 된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에 희생될 것을 염려해 아버지가 승운에게 입대를 종용한 것이다. 애국보훈을 통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용사가 되고자 "가자! 전선으로!"(159쪽)를 외치며 동료 젊은이들과 용맹을 떨치지만 사실 그는 "뭐가 뭔지 모르겠"(160쪽)는 평범하고 어린 청년에 불과했고, 예비검속과 '빨갱이' 혐의를 피하고 살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것일 뿐이었다. 이 당시 제주에는 이런 사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상당수였다. 그는 주정공장 임시 병영에서 훈련을 받다가 징발되었고,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전사하였다. 열아홉 어린 나이에 청상과부가 된 수자는 이후 친정에 갔다가 쫓겨나고 재혼에도 실패하자 남편을 사지로 밀어넣은 제주항 부근에서 해녀 작업을 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노년에 이른 수자에게 어느 날 승운의 출신학교 동창회장이라는 자가 찾아와서는, 승운이 호국영웅으로 선정되어 동상을 세우게 되었음을 전하며 부인 신분으로 흉상 제막식에 참석할 것을 강권한다. 이 소설은 4·3 때부터 도래한 절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원치 않는 반공정신에 헌신하였던 한 인물을, 흉상 제막식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현재 시점에 되살려내면서 이러한 반공의 이념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회 기저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의 「빌린 누이」는 작중 초점화자인 양심석의 눈을 통해 '빌린 누이'의 기구한 삶을 다룬다. '빌린 누이'는 심석의 애기업저지를 했던 여인으로, 그의 어머니는 4·3 당시 서북청년에게 성폭행당한 뒤 집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적개심으로 무장대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었는데 6·25 전쟁통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고아가 된 그녀를 양심석의 부모가 거두어 심석을 돌보게 하며 함께 살았기에 심석으로부터 '빌린 누이'라 불려온 것이다. 성인이 되면서 여인은 항구 주변에서 생선 장수를 하며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은 형무소에 투옥되었던 아버지가 제주항을 통해 나갔기에 어떤 소식이 있어도 거기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50여 년의 기다림에도 아버지는 소식조차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죽기 전까지 항구를 떠나지 않았다. 여인의 비루한 행색을 늘 부끄러워하며 멀리해왔던 심석은 나중에야 그가 죽었고, 생선 장수로 모은 돈 2억 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심석은 누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살아 있을 적 “산지포의 물결소리를 배음(背陰)으로 깔고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190쪽)를 잊지 못하고 종종 떠올리는데, 그 소리는 현재의 시끌벅적한 일상으로 가득한 부두 공간에 비극적인 옛 기억을 포개어놓는다. 4·3 때 부모 모두가 고통당하고 아버지는 한국전쟁을 거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누이의 기구한 사연은, 그런 부모를 기다리며 죽어서까지 바다에 묻히길 택하면서 끝끝내 떠나지 않았던 항구부두를 중심으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유한」, 「가신 님」, 「빌린 누이」의 세 소설은 전쟁의 비극과 현재 항구의 모습을 결부시켜 절멸과 반공의 공간 인식을 연속화하고 있다. 특히 4·3과 한국전쟁의 비극을 한몸에 입었던 인물들의 기구한 사연들을 통해, 한때 제주섬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절멸의 기억이 한국전쟁을 거쳐 연장되고 그 이념적 명분이었던 반공의 논리로 전면화되어 다시금 섬사람들을 옭아맸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변방의 땅에 절멸과 반공의 공간 인식이 차례대로 덧칠되어 전시체제가 일상화되었던 항구 주변의 무장소성이 부각된다. 또 전쟁이 끝났어도, 그들의 기억을 짊어진 채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여전히 그러한 절멸과 반공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주면서 제주항을 매개로 이러한 과거의 공간 인식이 현재적으로 재구성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앞의 세 작품이 4·3과 한국전쟁을 함께 다루며 둘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기념탑」은 4·3과 베트남전쟁의 기억을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절멸과 반공 담론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① 아버지는 체포되어 제주항 동부두 고산동산에 있는 주정공장 창고로 유치되었다. 그는 어디론가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심문과 고문을 받으며 목숨을 구걸하였다. 그는 전향의 증거로 토벌대에 협조하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앞잡이가 되어 토벌군을 이곳저곳으로 인도한 것이다. 그는 부상당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238쪽)

② “우리들의 충의나 군인정신은 이제 개떡같이 돼버렸다.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
“삼지창 세우는 걸 말하는 건가?”
“삼지창 아니야. 우리는 조국의 이름으로 자유 평화 수호를 위해 이국만리 월남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선으로 가지 않았나. 청룡, 백구, 십자성, 맹호, 백마…. 전우들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는데 이걸 우습게 보는 거야. 우리는 바다로 나가서 바다로 개선했다. 항구가 역사를 보고 말한다. 우리는 항구에 기념물을 세우고 싶었지.”(240쪽)

「기념탑」은 4·3을 겪은 아버지와 베트남전 참전 출신 아들의 이야기가 한 축이 되고, ‘기념탑’을 세워 역사로부터 잊히지 않고자 분투하는 월남 참전용사들의 이야기가 다른 한 축이 됨으로써 이중의 플롯을 형성한다. ‘나’는 월남 파병의 여파로 고엽제 피해에 시달리는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참전 동료 ‘월남 황 병장’이 찾아온다. 그는 1900여 명의 제주청년들의 이름을 새긴 베트남전쟁 참전 기념탑을 제주항에 세울 것이라고 하며 참여를 독려한다. 한편, 2000년 4·3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 신고서를 작성해 올리려는 ‘나’의 아버지는 사실 피해자라고도 가해자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력을 가지고 있다. 4·3이 일어나던 해 아버지는 본의 아니게 경찰 심부름을 하다 무장대에 잡혀갔다. 그는 산에서 통신임무를 주로 수행하며 민보단 사무실 습격에도 나섰으나, 토벌대에 붙잡혀 처형되기 직전에 토벌대 길라잡이를 자원함으로써 가까스로 목숨을 구제했다. 살기 위해 산사람들의 소재지를 불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의 전향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다가 무장대와의 교전 중 총상을 당하자 그는 토벌대에도 쓸모없게 되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①). 아버지의 피해자 신고서를 작성하려는 ‘나’에게 아버지는 앞잡이 얘기는 빼라고 주문하는데, 부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반려당하고 아버지는 다시금 국가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 위로, 당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우리들의 충의나 군인정신은 이제 개떡같이 돼버렸다’며 자조하는 황 병장의 이야기가 중첩된다(②). 이때 소설은 항구라는 공통의 장소(아버지가 체포되었던 제주항 동부둣가의 주정공장 창고, 월남 전사들이 기념탑을 세우려 하는 제주항 입구)를 매개로 절멸과 반공의 두 지배담론 간 연속성과 현재성을 구현한다. 즉 「기념탑」은 4·3과 베트남전이 각기 표상하는 절멸과 반공의 공간 인식 속에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고자 고투해온 이들이 다시 국가로부터 거절당하는 역설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러한 지배담론의 허위와 폭력성을 강조하고 변방인으로서의 처지를 부각시킨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편, 현재의 항구와 그 주변 풍경의 모습을 다루는 「탑동광장」과 「항구다방」은 각각 한국전쟁과 해군기지 반대 집회가, 베트남전쟁과 항운노조 비리 문제가 병치되면서 반공과 변방 담론의 연속성이 부각된다.

"나는 죽음의 전장에서 싸운 사람이다.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많은 전우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살아남은 나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살아남은 게 양심에 꺼린다. 전쟁이 승리로 끝났는지 패배로 끝났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점령하기 위해서만 싸웠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239쪽)[126]

「탑동광장」의 주인공 '전상민'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이다. 그는 전쟁 당시 부상으로 몸이 꺾여 '꺽쇠'라 불리면서도, 국가를 위해 충성하였던 자신의 내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편이다. 상민은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우들을 잃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데 가책을 느끼며, 공산주의자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여긴다. 전시체제가 일상화된 공간에서 살아온 그는 아직도 반공이 최우선 가치인 냉전 질서에 살고 있는 인물이며, 미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에 강하게 복속되어 있다. 그는 진보진영에 속한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보수 유공단체에서 추진하는 해군기지 유치 집회에 이견 없이 나가려 하며, 힘이 있어야 평화 유지도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견지한다. 여전히 전쟁의 기억에 매몰되어 체제순응적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제 그런 시대는 저물었다고 말하지만 상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탑동광장」은 한국전쟁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자와 현재 탑동광장에서 벌어지는 해군기지 집회라는 소재를 병치시킴으로써 개발담론에 의해 매립되고 확장된 항구 주변 공간에 여전히 반공의 기억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항구다방」은 오늘날 제주항 부두를 중심으로 사업하는 이와 부두에서 일하는 노무자, 다방 사장 등의 애환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① 이때 눈자위에 비애를 가득 담은 여인의 얼굴은 옛날에 유망했던 젊은 사관(仕

126) 오경훈, 「탑동광장 - 제주항 7」, 앞으로는 인용문 뒤 괄호에 작품 제목과 쪽수만 표기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답게 아름다움이 비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군종을 바꾸고 해병대에 근무하다 베트남전선으로 파병되어 그해에 전사했다. 살붙이로 남긴 것이 지금의 아들이다. (241쪽)[127]

② "아버지 얘기는 들려줬나요?"

"들려주고말고요. 녀석은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남북한 사람들도 결혼해서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아들의 말도 맞는 것 같군요."

"맞다고요?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략)

"아주버님,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252~253쪽)

비교적 최근의 관점에서 제주항 부두 안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건과 비리를 묘사하고 있는 이 소설은 이전과 다르게 점점 쇠퇴해나가는 부두 내부의 분위기가 잘 감지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 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지던 당시의 분위기를 주요 소재로 하여, 「탑동광장」과 마찬가지로 개발담론의 온상이자 그것의 폐해로서 항구의 오늘날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부둣가 중심에 위치한 항구다방은 휴게소나 사랑채처럼 인근 사람들이 지나는 길에 들러 얘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쉬는 곳이자 작중 주인공 '나'와 그의 동료인 옛 부두꾼 '노순'이 항상 만나던 장소였다. 이곳의 마담은 '나'의 죽은 친구의 부인이었는데, 베트남전으로 남편을 잃은 마담의 사연을 통해 항구부두 이면에 숨은 반공의 기억을 적시한다(①). '나'의 친구이자 그녀의 남편은 해병대에 근무하다 베트남전에 파병되었고 그해에 전사했다. 그녀는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둔 채 독신으로 살아가며 아들만을 보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혼한 아들이 이제는 베트남 여자와의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 하기에, 그녀는 기막히고 통탄스러운 심정을 억누르지 못한다(②). 마담은 남편이 베트남전에서 죽었기 때문에 베트남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의를 품고 있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얘기를 들려주며 만류하지만, '남북한 사람들도 결혼해서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는 아들을 보며 '세상은 뒤죽박죽'이어서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한다.

127) 오경훈, 「항구다방 - 제주항 9」, 앞으로는 인용문 뒤 괄호에 작품 제목과 쪽수만 표기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가에 의해 허가된 폭력적 노조의 독점체제로 인한 사회구조의 병폐, 다문화 결혼으로 나타나는 이주 문제라는 현실적 문제상황을 표면적 소재로 삼고, 베트남전으로 표상되는 반공의 논리를 그 심층에 녹여내는 방식을 통해 「항구다방」은 제주항의 과거와 현재가 반공과 개발이라는 지배담론 하에 지속되고 재구성되어 온 양상을 포착하고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 〈제주항〉 연작은 항구 주변의 장소를 중심으로 4·3과 한국전쟁의 기억을 함께 다루는 방식(「유한」, 「가신 님」, 「빌린 누이」,), 4·3과 베트남전쟁을 중첩시키는 방식(「기념탑」), 오늘날 항구 주변의 풍경에 각각 한국전쟁(「탑동광장」)과 베트남전쟁(「항구다방」)의 기억을 녹여내는 방식을 통해 절멸과 반공담론의 연속성, 절멸 또는 반공 담론의 현재화를 강조하고 있다.

2) 인정 욕망과 기억투쟁

절멸과 반공의 시대를 거쳐오며 제주항이 무장소화되어가는 과정은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느껴온 장소상실의 감각을 통해 더욱 확연하게 와 닿는다. 특히 「유한」과 「가신 님」, 「기념탑」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제주항 동부둣가에 소재한 '주정공장'의 무장소성과, 그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행동 양상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제주항 축항과 그 인근 부지에 설립한 주정공장은 일제의 식민수탈과 병참기지를 위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전략의 일환이었다. 1934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주정공장은 일제 당시에는 병참기지화 전략을 위한 주요 산업시설로 사용되었다가 일제가 물러난 이후 되돌려졌다. 그 이후에 이 공간이 사용되어온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제가 물러간 자리에, 이곳에는 반공과 시장질서 수호를 국시로 한 국민국가가 들어앉았으며, 파시즘적 지배체제와 글로벌 자본주의를 그대로 담지한 채 지배의 주체만 바뀌어 연장되었는데, 4·3 이후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던 당시에, 주정공장의 창고는 감옥이자 임시 수용소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반공담론의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에 복무하였던 것이다. 특히 1949년 봄 진압 작전의 방식이 하산을 권고하는 선무공작으로 선회하면서 귀순자가 속출했을 때, 4월경 이곳 수감자는 약 3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조사되어 제주도내 최대 수용소이자 감옥으로 기능하였다.[12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후 당시 청년층의 대부분은 재판에 회부되어 육지 형무소로 이송됐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전쟁 직후 집단희생을 당했다고 전해진다.[129] 제주지역 경찰서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의거, 주민 중 일부를 예비검속하여 관할 경찰서·지서별로 집단 수용하고, 심사와 등급분류를 실시했다. 주요 대상자는 정부당국이 4·3을 계기로 한라산 입산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입산자, 귀순자, 자수자 명부 등을 작성하고, 요시찰인으로 분류하여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관리해 오던 이들이었다. 예비검속자들은 과거 범죄경력(혐의)의 경중에 따라 D,C,B,A 4개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이들 중 범죄혐의가 무겁다고 판정된 D,C등급 대부분이 제주주둔 해병대사령부에 의해 총살 암매장되거나 수장 학살되었다.[130] 일부는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에서 총살당했으며, 나머지 일부는 산지항에서 배에 실려 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 당했다고 전해진다.[131] 주정공장은 이렇듯 해방 정국 동안 반공 지배담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척결의 대상들을 모아두었다가 후에 예비검속의 대상을 판별하여 희생 여부를 결정하는 공간으로 역할하였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해 신병 양성 훈련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중·고생으로 조직된 학도 돌격대가 결성돼 훈련소에 입소했으며, 이들과 더불어 제주 출신 청년 약 3천 명이 동년 동월에 해병 3·4기로 지원 입대해 훈련을 받았다. 앞서 「가신 님」에서 보았듯, 4·3 이후 줄곧 '빨갱이' 낙인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던 제주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신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였다. "목을 찢는 것 같던 외침소리, 메아리처럼 울려오던 그 소리는 남편과 함께 입대하던 젊은이들이 막힌 가슴을 트려고 절규하던 소리였다."(160쪽)라는 구절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하던 당시 젊은이들의 심경을 잘 보여준다. 예비검속이라는 생존적·사회적 죽음의 공포로부터 안위를 도모하고, 저항

128)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귀순자를 한 곳에 수용했고 부상자와 임산부도 같이 수용했다. 혹독한 고문후유증과 열악한 수용환경 때문에 주정공장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도 있었으며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었다. 이곳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일단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취조를 받고 수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Ⅰ』, 제주도, 2004, 73쪽.

129) 위의 책, 73쪽.

130) 조정희,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성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2쪽.

13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431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보다는 순응의 방식을 통해 존재 가치를 증명받고자 하였던 인정투쟁이 그 안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절멸'과 '반공'의 심상으로 덧칠된 주정공장은 일제 때와 해방 정국을 거쳐 경제체제와 중앙권력에 의해 무장소화된 제주항 주변 공간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주정공장은 더 이상 장소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장, 병영, 수용소,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과거의 건물은 철거된 지 오래되어 그 자리에 잡초만 우거져 있"(141쪽)다. 수용소로 활용했던 산비탈 위 창고 터에는 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마찬가지로 당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공터로 존재하던 옛 주정공장 부지는 최근 '제주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을 조성하고 개관을 앞두고 있다.

오경훈은 이상 언급한 실제 사례를 극화하여 「유한」과 「가신 님」, 「기념탑」 세 개의 작품에서 주정공장에 대한 각각 상반된 진술을 선보인다. 이 사라진 장소 속의 침묵되었던 절멸과 반공의 기억들을 소환함으로써 은폐된 죽음과 삶을 대항기억의 차원에서 끌어올리고 있다. 먼저 「유한」에서의 주정공장은 아버지가 공비로 억울하게 몰려 수용되었다가 이후에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곳이다. 「기념탑」에서 그려지는 주정공장은 "한 인간이 자신의 동지를 배반하여 목숨을 보전하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해 시대 정황에 부합하는 기회주의자로서 계기를 포착하는 역사의 현장"이다. 「가신 님」에서의 주정공장은 "4·3의 화마와 레드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군에 입대하는 임시 병영으로 주목"[132]된다.

「유한」과 「기념탑」은 주정공장에 수용되었던 이들의 서로 대조되는 결말을 보여준다. 한쪽은 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로 예비검속으로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고, 한쪽은 전향의 의사를 밝혀 적극적으로 가까스로 구명도생하였다. 「유한」의 한수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라도 알고 싶어하나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가족들은 그가 과거에 갇혀 있다며 제발 그만하라고 다그칠 따름이다. 며느리와 아들은 각각 "참으로 이상하네요이. 왜 옛날 일을 자꾸 곱씹고 다니지요? 이제 잊어버려도 좋을 일 아닌가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참혹하게 돌아가셨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만들어가는 면도 없지 않다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데 분한 감정에 먼저 잠기려고 하고 있잖아요."(136쪽)라며 한수의 행동을 비난하는데, 이에 대해 한수는 "악한

132) 고명철, 「제주 항포구의 창조적 저항과 응전」, 앞의 책, 262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들은 증오하고 경계해야 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니? 과거의 폐단을 덮어 놓으려고만 했기 때문이지. 맺힌 게 있으면 풀어야 해."(137쪽)라고 말한다. 「기념탑」의 아버지는 자기만 살아 나왔다는 죄책감에 산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 자신은 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한다. 배신자나 비겁자가 되었다 해도 그의 가슴속에는 한가닥 주장하고 싶은 뜻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회한 같은 것을 가지고 "죄가 있다면 약한 것뿐이야. 너무 약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걸 이용했지."(234~235쪽)라며 중얼거린다. 이처럼 「유한」과 「기념탑」은 타의에 의한 죽음 또는 자의적 전향이라는 두 상이한 방식을 동원, 반공 이외의 담론은 허용치 않는 국민국가가 변방인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은폐 및 말소해온 과정을 주정공장을 매개로 끌어올린다.

한편 「기념탑」과 「가신 님」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국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기념탑」의 아버지는 정작 자신이 산사람이었고 그들과 함께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인하고 어떠한 이념에도 휩쓸리지 않았던 '선량'하고 '무고'한 피해자로 존재 증명을 받기를 원한다. 「가신 님」의 승운은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였고,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50여 년 만에 참전용사로 공로를 인정받아 흉상 기념상이 건립되면서 비로소 '국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내부식민성이 내재화된 변방인들의 인정투쟁이 두 소설에 담겨 있다.

「유한」의 한수, 「기념탑」의 아버지, 「가신 님」의 승운은 모두 국가로부터 '호명' 받고 '승인'을 받아야만 '국민'으로 승격될 수 있다는 국민화의 논리 안에 갇힌 인물들이다. 승인받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거나(「유한」), 승인받고자 죽음을 감내하거나(「가신 님」), 승인받고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기념탑」), 곧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의 상황을 표상하는 '비(非)국민'적 존재들인 것이다. 이러한 제주 사람들의 심성구조가 복합적인 층위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 해방정국 이후의 주정공장 창고였다. 「유한」, 「가신 님」, 「기념탑」은 제주항 인근의 주정공장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무장소성이 초래되어 있는 근현대 이후의 제주사회를 변방과 절멸, 반공이라는 공간 인식 간 중첩을 통해 확장된 역사적 지평 안에서 효과적으로 형상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변방의식을 내면화해온 변방인들이 절멸과 반공의 논리에 사로잡힘으로써 이러한 장소상실의 감각들이 주정공장이라는 장소 위로 중층적으로 덧대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다시 현재에 벌어지는 인물들의 행위나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 지평을 넓히고 현재적으로 재구성된다. 「가신 님」에서 나타나는 수자와 그의 딸 금희의 갈등, 사위와 제막식 행사 관계자들의 갈등, 「기념탑」에서 부각되는 참전용사 출신의 인정 욕구 등이 그것이다.

먼저 「가신 님」에서, 죽은 옛 남편 승운의 동창회장이 수자에게 남편의 호국영웅 선정에 따른 흉상 제막식에 부인의 신분으로 참석할 것을 강요할 때, 수자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벌써 50년도 더 전의 일이며, 이 일로 "눈물을 몇 말이나 흘렸"던 사람에게 "고통을 다시 안겨주"(153쪽)는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동창회장은 국가로부터의 인정 욕망에 사로잡혀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수자의 처지는 안중에 없는 인물이다. "내 솔직히 말하는 건데 이 일은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위에서도 참가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사람 아네요? 미망인이 살아 있는데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게 됩니다."(164쪽)라는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 그가 규정한 가치 척도의 일 순위는 국가주의에 있다. 이에 대해 수자는 "나라다 윗분이다 하고 겁주지 마세요. 나라가 한다니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나대는 건가요?"(164쪽)라고 응수하며 그의 위선을 꼬집는 한편 국가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끝끝내 제막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수자가 그러한 결심을 바꾸게 된 것은 수자의 딸 금희의 원망 어린 설득 때문이었다.

① "내일 모레 제막식이 있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가는 거지요? 응?"
엄벙대는 딸은 회장이란 사나이와 같은 말이었다. (중략)
"뭐, 내보고 나오라고?"
"왜요? 어머니에게는 남편되는 사람 아네요? 내게는 아버지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제 얼굴도 이름도 다 잊었다." (중략)
딸은 가슴을 치받는 걸 누르지 못하는지 성깔을 누그리지 않는다.
"내겐 아비 되는 사람이에요. 아비 없는 자식도 서러운데 아버지 일에 어머니로 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와 주지 못하겠단 말예요? 나를 왜 세상에 내놓았지요?"(157~158쪽)

② "그런 일에 앞서 확인해볼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저의 빙부는 누구와 싸운 겁니까?"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사위 쪽을 바라보았다. (중략)

"흉상 받침대에 새겨놓은 글을 읽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누구와 싸있는지를 밝히지 않았더군요. 적이 누군지 밝히지 않는 전공도 있나요?" (중략)

이번에는 전우회장이란 사람이 받았다.

"어이, 선생님. 이만큼이라도 해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 안 세우면 언제 세워? 영원히 못 세우게 될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야."

중등교사인 사위는 여전히 변통이 없었다.

"정직하게 말해 이 동상은 누굴 위해 세우는 겁니까. 유족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는 말을 이으려다가 무엇에 끌린 듯 아내 쪽을 힐끗 돌아보고 주춤해지고 말았다. 사내의 눈이 아내의 시선과 부딪치자 그는 얼른 목이 돌려졌다. 사위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여버리고 말았다. (173~174쪽)

수자의 딸 금희는 아비 없는 설움을 오랜 시간 견뎌오며 서러움을 참아야 했다(①). 이때 그에게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 강승운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금희에게는 미충족된 인정 욕망을 충족케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금희는 어머니가 겪어온 설움에 대한 연민이나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 애착보다는 국가로부터 호국영웅의 자식으로서 호명되고 인정받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이런 모습은 동창회 관계자들과 제막식 행사 관계자들의 태도에서도 이어진다(②). 사위의 날카로운 지적에 전우회장이 "이만큼이라도 해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라며 역정을 내는 모습은 이들에게 있어 실제의 사실 여부나 죽은 승운을 향한 진정한 애도와 보훈보다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지역의 영광"이자 "모교의 영광"(150쪽)을 성취하고, 이를 명분으로 "장학사업"(171쪽) 등을 추진하여 명성을 키워나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가신 님」에서는 실제론 희생자의 공적 자체가 허구일 수도 있음에도 국가가 지배담론 질서의 안정을 위해 의례의 대상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변방의 섬 안에서 내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화된 식민주의로부터 국민의 자격을 입증받고자 필사적인 이들과, 그들의 승인 요청에 의해 의례의 대상이 '선택'되는 일련의 상황을 통해 「가신 님」은 기념비적 재현의 폭력성과 허구성을 동시에 보여낸다. 그리고 「기념탑」에서의 베트남전 참전 출신인 황 병장을 통해서는 정확히 그 반대의 사례를 보여준다.

① "맞어. 당국자들은 우리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각이었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했다. 시민단체의 여론을 내세우면서 말야. 시민단체들의 여론이란 전쟁기념물 건립은 안 된다,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반통일적이다, 이런 것이지. 어떤 단체들이 그런 소리를 냈느냐고 따졌더니 함구하더군. 무슨 저의를 깔고 있는 모양이야. 어쨌든 관이나 단체에서 반통일적이라는 소리를 냈다는 건 우리를 실망케 한다." (중략)

"부산항 제3부두에서 말야. 귀국선—, 봤지? 나는 그때 감동해서 울었다. 우리의 행위에 그럼 의미가 있었던가. 「싸웠노라, 이겼노라, 돌아왔노라」 플래카드들이 펄럭이고 봉황 아래 국가원수의 얼굴이 카드섹션으로 그려지던 귀국 환영회. 나는 이미 귀국하였으므로 뉴스에서 보았다. 이때처럼 감동을 받은 적은 없었어. 국가의 명을 받고 생명을 건 싸움에 참가했다면 어떻게 보아도 그건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황병장은 목을 떨구면서 자조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용병이었을 뿐이래. 볼품없이 찌그러졌어." (240~241쪽)

② 나는 아버지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서 엉덩이 밑의 흉터를 닦아내었다. 그 부분은 항상 변이 말라붙어 있어서 구멍 속을 우벼 파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피부가 상해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곤 하였다. 나는 오물 쓰레기를 거둬들고 방을 나왔다.

왜 이리 가슴이 울울할까. TV 화면에서 본 월남인의 새까만 얼굴이 이쪽의 눈앞을 척 막아서는 것 같았다. 뭐,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지들이 승리했다고? 세상이 바뀌니 맘놓고 주작부리를 하는군. 연극이 아니라면 사나이는 분명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나와 황 병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쪽은 자신의 감당으로 생명을 지켜냈다고 믿는 모양이나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저쪽이 뭐라고 말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245쪽)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와 맞물려,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목소리를 지워내는 형국은 선별과 배제의 논리 하에 만들어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가의례의 허위성을 폭로한다. 출발부터 국제사회로부터의 정당성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 주도의 2차 베트남전쟁(1960~1975)은 초강대국 미국의 유례없는 패전과 함께 참전 당사자들과 파월국 사회 전반에 심각한 자존심 손상과 패배주의를 안긴 전쟁이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총 32만 5천여 명(미국 다음으로 동맹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였다)이 파병되었던 한국군의 1973년 초 철수는 "승리 없는 전쟁에서의 귀환"[133]이었다. 종전 이후에 한국정부는 베트남전을 공산세력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방어를 이뤄냈다는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와, 참전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경제 논리로써 정당화해왔다. 실제로 베트남전 파병은 한일협정 문제로 위기에 몰렸던 박정희 정부가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됐으며, 참전을 통해 획득한 미국의 경제원조는 경제개발계획에 가장 중요한 기초 자금이 되었다.[134] 이렇듯 베트남전쟁 특수로 한국사회가 한국전쟁의 충격을 벗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전장이었던 베트남과 참전군인들의 경험은 국가의 기억 밖으로 밀려났다. 당시 한국군은 이 전쟁으로 약 5천여 명이 전사하고 1만 1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전쟁 당시 미군에게 받아 살포되었던 고엽제로 인한 질병 피해자는 현재까지 약 13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패배한 전쟁,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오명과 함께 이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모두 외면받았다. 1980년대에 고엽제 후유증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자 전두환 정부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무관심으로 응대했다.[135] 한국사회는 파병의 정당성을 강변한 정권의 통제로부터 한치도 자유롭지 못했으며, 사태의 진상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제기도 공론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136]

그러다가 참전군인들의 전쟁 경험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과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된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냉전 시기 동안 적대관계에 놓여있던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1992년에 공식 수교를 맺었으며,

133) 심호섭,「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에 대한 주월한국군의 인식과 대응 - 제2대 사령관 이세호의 역할을 중심으로」,『백산학보』120권, 백산학회, 2021, 330쪽.
134) 강유인화,「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사회와 역사』97권, 한국사회사학회, 2013, 109쪽.
135) 황경서·안치용,「〔청년의 죽음, 역사의 눈물〕 ⑦ 월남전 - 폭력적인 편가르기에 희생된 한국과 베트남 청년들」,『르몽드티플로마티크』, 2020.12.08.
136) 임홍배,「베트남전쟁과 제국의 정치」, 황석영,『무기의 그늘』하, 창비, 1992, 352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런 변화와 함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사회로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참전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국가가 이 문제에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이러한 전쟁의 책임은 노골적으로 참전군인 개개인들에게 전가되었다. 참전군인들의 잊혀졌던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들은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면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2011년 6월에 비로소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었다.[137] 그것은 이 작품「기념탑」이 쓰여진 지(2004년) 7년 뒤의 일이다.

종전 이후 망각되었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모순적인 지위 사이에서 사회적 위상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참전기념물이 웅변하는 참전의 기억은 전쟁의 피해를 초월하고 가해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을 통해 참전군인들을 국민국가의 안위를 지켰던 '안보주체'로 위치시키고 있다.[138] ①에서 보여지는 황병장의 기억투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황병장은 자신들이 바다로 나가서 바다로 개선했기에 항구에 기념물을 세우고 싶었다면서 '국가의 명을 받고 생명을 건 싸움에 참가했다면 어떻게 보아도 그건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의 황병장의 참전기념물 건립 운동은 정확히 황병장 자신이 내건 국가주의의 논리에 의해 역으로 반려 당한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반통일적'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 당국이 응한 것으로 황병장은 파악하지만, 실상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를 위해 국가적 권위를 훼손시킨 이 사건에 대해 가해 당사자인 국가가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주의의 소모품이었던 참전 당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자신들의 충의나 군인정신은 이제 "개떡같이"(240쪽)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황 병장의 말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소설 밖에서는 향후 투쟁 과정에서 이들의 기억투쟁이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그것은 이들의 기억이 국민국가의 안위를 지켰던 '안보주체'로 위치될 때에만 의미를 얻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참전군인 자신들도 그러한 위치로서만 스스로의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작가 오경훈은「기념탑」속 황병장의 행위와 내면 인식을 통해 드

137) 강유인화, 앞의 논문, 107쪽.
138) 위의 논문, 12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러내고 있다.

한편, ②에서 '나'는 TV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북베트남인 피해자를 보며 불편하고 울울한 기분에 휩싸이며, 한동안 그 모습은 '나'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도 한국군을 미워하는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당시 부상을 입었던 소년, 지금은 44세가 된 중년의 사나이는 "그쪽 군인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참전을 사과했으므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했다."(244~245쪽)라고 대답한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한편으로 비애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세상이 바뀌니 맘놓고 주작부리'를 한다고 기막혀하며 자신들이 '지지 않았다'고 굳게 믿는다.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라 갈 곳 잃은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실존과 남성성은 베트남전 당시에 겪었던 위태로운 생존적 상황과 맞물려 강렬한 인정 욕구로 이어지는가 하면, 베트남인 전체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로도 이어졌다. 「기념탑」 속에서 지금 현재 고엽제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상황은, 4·3 당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국가에 어떤 조치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243쪽) 아버지의 오물 묻은 몸을 닦아내며 봉양하는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열패감과 함께 베트남에 대한 굴절분노를 조장한다. 이는 "베트남전쟁이라는 특정한 역사공간에서 형성된 한국의 정체성은 미국에 대한 식민지적 무의식, 베트남에 대한 식민주의적 의식의 결합물이었고,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종주의, 반공주의, 근대화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통해 가시화되었다"[139]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미국으로부터의 인정 욕망을 전제한 한국의 국가주의가 여전히 신체에 체화되어 있는 '나'는, 자신의 이러한 식민지적 무의식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당착했을 때 이른바 '아류 오리엔탈리즘'으로서 베트남에 대한 식민주의적 의식을 철저하게 내면화하여 상실된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소설은 메타적 층위에서 이런 '나'의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을 4·3에 대한 아버지의 인정 욕구와 중첩시켜 국가주의의 허위를 중층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나아가 이처럼 국가에 의해 구성된 절멸과 반공의 이중적 지배담론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제주사회의 오늘날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139) 윤충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월 관계에서 한국의 "정체성 만들기"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를 향한 열망 사이에서」, 『담론201』 9권 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171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처럼 〈제주항〉 연작의 「유한」, 「가신 님」, 「기념탑」은 절멸과 반공의 시대를 거쳐오며 내부식민지화된 제주의 상황 속에서 피식민자의 고통에 시달리거나, 식민성의 내재화로 국가로부터의 인정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 양상을 주정공장의 무장소성과 맞물려 형상화하는가 하면, 그러한 인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져 인정 욕구를 보상받으려 기억투쟁을 지속해나가는 모습을 항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3) 경관이 된 장소와 대항기억

무엇보다 제주 사회에서 4·3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란은 동료와 이웃, 사랑하는 가족들을 무참히 말살시키거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던 극단적인 '예외상태'를 조성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 혹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때의 비극적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온전한 의미의 장소감이나 장소애착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작중 인물들에게 있어 '장소'로서의 심리적 친밀감(장소감)이 줄고, 그 대신 "바라보는 사람을 먼지 알갱이로 만들어 버리는 무한성"[140]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변질되어버린 제주항의 모습이다. 4·3과 한국전쟁의 비극을 거쳐오며 사랑하는 이를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공간으로서의 항구와 그 너머의 바다는 주체의 시선에 두려움을 유발하고, 그의 내면세계에 원초적인 비애감을 조장함으로써 주체로부터 유리된 미지의 공간이자 절대적인 슬픔의 공간으로 변질된다. 「유한」, 「빌린 누이」, 「가신 님」에서 제주항 앞바다를 대하는 인물들의 심상은 '부조리한 경관'으로서의 장소상실적 인식이 보다 비감 어린 형태로 유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한」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 ① "저는 지금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가슴이 젖고 있다고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지난 일이 점점 아프게 떠오르는 것은 웬일일까요. 끌려간 아버지가 눈에 보이곤 해요. 나는 달려가곤 하지만 아버지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131쪽)

140) 서영채, 앞의 책, 292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② “아버지,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엎드려 땅으로 귀를 대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구의 방파제를 치는 파도의 울림소리로 들려왔다. 그 울림소리 속에 아득한 절규가 섞여 한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135쪽)

③ 임항도로를 따라 동부두로 가는 길. 길가에는 옛날의 여인숙 주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항구여인숙, 산지포여인숙. 등대식당 뱃머리주점 할망집….

한수는 학교 다닐 때 방과 후 또는 휴일이면 이 길을 따라서 부두 대합실로 가곤 했다. 아버지가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여객선의 입출항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영 돌아오지 않았다.

한수는 지금도 물결 따라 마음이 흘러간다. 어둡고 깊은 해구(海溝)에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 있을 듯했다. (139쪽)

한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바다가 보이는 항구부두를 계속해서 맴돌지만 가슴에 남은 한을 끝내 씻어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어릴 적부터 틈만 나면 임항도로를 따라 동부두로 가는 길을 거닐곤 했다. 길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여인숙 주점들은 예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때 한수는 이 길 끝에 놓인 부두 대합실에 들어설 때면 아버지와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기대와 다르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한수가 항구부두를 걸으며 바다를 보노라면, 지금도 물결 따라 마음이 흘러감을 느낀다. 이런 울렁이는 감정은, 항구 너머로 바다가 눈앞에 보이고 몸이 가까이 접해 있음에도, 정작 그곳은 자신과 너무나 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는 비밀’을 알 수 없게 하는 데서 기인한다(③). 자신과 완전히 유리되어 버린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구에서 파도의 울림소리로 들려오며, 그 울림소리 속에 ‘아득한 절규’가 섞여 한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한수는 느낀다(②). 바다 너머로 끌려간 아버지가 아직도 한수 눈에 선하지만, 바다는 한수와 아버지를 가로막고 있다(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수는 틈날 때마다 항구와 부둣가를 배회하며 자신과 아버지를 멀어지게 한 바다에 끊임없이 다가갈 수밖에 없다. ‘어둡고 깊은 해구(海溝)에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 있을 듯’하기 때문이다(③). 이런 그의 모습은 다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빌린 누이」에서 누이가 제주항 근처를 떠나지 않으며 고기 장수를 계속해오던 사정과도 일맥상통한다.

① 누가 그녀에게 아버지의 생사를 묻는다면 그녀는 단정적인 대답을 하는 일이 없었다. 누가 아나요, 하는 투였다. 그녀는 투옥된 아버지가 제주항을 통해 나갔으므로 어떤 소식이 있다 해도 이곳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항구 주변에서 고기장사를 하며 인근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189~190쪽)

② —고기 사세요. 생선 사세요.
심석은 꿈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다. 아직 잠자리에 있을 때 집 앞을 지나가며 손님을 부르는 소리는 호소하는 듯 높은 볼륨으로 끝을 길게 끌면서 멀어져갔다. (중략)
겨울날 창밖이 고요할 때 산지포의 물결소리를 배음(背音)으로 깔고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는 슬프고 황량하였다. 요즘 고기장수들은 트럭을 몰고 다니며 스피커로 호객한다. 그러나 빌린 누이는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어기적어기적 걸으면서 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아득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 (190~191쪽)

공간의 낯섦과 장소의 낯익음이 서로 어긋나면서 역설적 힘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절대공간으로서의 풍경이 생성된다.[141] 아버지의 생사에 대한 물음의 답으로 "누가 아나요"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①) 속에서, 그 알 수 없음은 누이로 하여금 항구와 바다를 무한하고 절대적인 공간(경관)으로 여기게 한다. 투옥된 아버지가 제주항을 통해 나갔으므로 어떤 소식이 있다 해도 그곳에서 다시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약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살아생전 항구 주변에서 고기장사를 하며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②에서 보듯 그녀의 호객소리는 현재의 일상으로 가득한 부두 공간을 슬픈 기억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늘 삶과 가깝게 접해온 낯익은 장소가 사랑하는 이를 송두리째 휩쓸어간 거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누이를 잠식시키는 비애감은 그녀로 하여금 이곳을 좀처럼 떠나지 못하게 하며, 낯선 공간을 다시 친숙한 장소로 바꿔줄 사랑하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죽어서까지 바다에 몸을 뉘이게 한다. 일평생을 항

141) 위의 책, 33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구와 부둣가를 배회하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유한」 속 한수의 사정도 마찬가지의 의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신 님」에 나타나는 일흔 살의 해녀 수자의 기억 속 항구부두의 풍경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① 수자는 손을 흔들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발을 동동거렸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남편은 이쪽을 보지 못하고 입을 다문 채 앞만 보며 걸어갔다. 그녀는 쓰러졌다. 그때의 비애, 막혔던 가슴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161쪽)

> ② 가자, 전선으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자!
> 출정 며칠을 앞두고 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절규하던 소리들, 그때의 사람들은 공비 쪽이었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전선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명지 깨물어서 태극기를 그리고 혈서로 지원했다고 했다. 천세만세 부르고 싶다던 그들.
> 그때의 사람들은 명예를 찾은 건가. 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우지처럼 눈물부터 나오려 하는가. 왜 세상이 온통 슬픔으로 젖어 보이는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을 숨기고 '몸성히, 안녕히' 서로 한마디로 헤어져야 했던 그날,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 번 더 보자고 뛰고 구르며 숨이 차게 쫓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서방을 잃은 새각시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175쪽)

동창회장이란 자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인해 수자는 오랫동안 의식의 아래로 내려두었던 옛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린다. "숨을 잊고 굴러가듯이 달음질"치며 "주정공장 임시 병영에서 부두까지의 길"(161쪽)을 따라 그를 쫓던 수자를 보지 못한 채 잔뜩 경직되어 앞만 보며 걷던 남편의 기억이 새삼 끌어올려지면서, 당시에 느꼈던 상실감이 동창회장이 전하는 흉상 제막식을 계기로 현재화된다. 이에 해녀 수자에게 밥벌이이자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어온 바다는 다시 사랑하는 이를 앗아간 두려움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그때의 비애, 막혔던 가슴'을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게 한다(①). 그리고 그러한 비애감 속에서 '가자, 전선으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자!'라며 거리에서 몰려다니면서 절규하던 소리들과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 번 더 보자며 숨이 차게 쫓아가던 새각시들, 잊혀진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새삼스럽게 되묻게 한다(②). 제주항 부두는 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렇듯 4·3과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광풍 속 절멸과 반공 논리에 의해 무력히 휩쓸려간 이들을 그리며 남은 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공간으로서, 이들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빼앗은 공간이자 자신들로부터 빼앗긴 장소가 되어 두 발을 내딛고 있음에도 소외감을 유발하는 공간이 된다.

이때, 연작에 나타나는 이러한 절박한 흔적 찾기는, 역설적으로 무장소화된 공간 안에서 대항기억의 출몰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경훈은 특히 주정공장이라는 상실된 공간 속에서 변방인들의 은폐되어온 기억을 소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 절멸과 반공의 지배담론 하에 제주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었던 절대적인 공간이었다가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진 주정공장은 고명철의 말을 빌리면 어떤 공통분모를 지니는데, 곧 "4·3무장대와 연관된 것들과 철저히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4·3 자체의 기억을 아예 지워버림으로써 4·3을 그들의 삶 속에서 공백화하고자 하는 반역사적 억압을 지닌 곳"[142]이라는 것이다. 이곳은 국민국가적 관점에 의해 기획되어 기능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학살과 폭력의 기억을 다시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주조부터 폐쇄에 이르기까지 무장소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오경훈은 한때나마 있었다는 흔적만을 옛터에 남겨두고 있는 이곳 주정공장에, 공식역사 이면에 숨겨져 있는 희생자들의 숨결을 소환하고자 한다. 공동체의 기억이 뿌리 뽑힌 상실된 장소를 사유하는 것은 '기억의 정치'의 출발[143]이 된다. 기억이 장소-기반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장소 그 자체가 지닌 물질성과 그 위에 조성된 경관이 공적 기억을 각인해 담아두기 때문이다. 상징적 장소 주위에는 장소의 '아우라', 그 주변을 배회하는 장소의 정령, 축적된 과거의 위안과 향기가 존재한다.[144] 이렇듯 장소 자체가 말살된 텅 빈 장소, 다시 말해 시공간이 정지된 채 박제된 공간일 경우, 이 안에 깊숙이 잠겨 있는 대항기억(counter-memory)을 소환하는 것은 허구적 상상력을 동반하는 작가의 문학적 시선이 가미될 때에만 가능하다.

한수가 옛 주정공장 창고 자리로 간 이유는 직접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

142) 고명철, 「제주 항포구의 창조적 저항과 응전」, 앞의 책, 263쪽.
143) 신지은, 「장소의 상실과 기억: 조르쥬 페렉(Georges Perec)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5집, 한국사회학회, 2011 참조.
144) 위의 논문, 24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해서였다. 한 맺힌 소리가 그 자리에 남아 떠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동을 비밀에 부치려 하였다.

귀를 기울였을 때 들려온 것은 전언도 유언도 아닌 아득하게 이어지는 절규 소리였다. 쇠줄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골수 속을 꿰고 가면서 이뿌리가 시리도록 들려왔다. (중략) 제주항 동부두 주정공장 근처의 동대머들 동네에 사는 양진월이라는 노파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창고 앞을 지날 때면 벽 위쪽에 쇠창살이 박힌 공기구멍이 보였지. 사람이 그 구멍에 매달려 밖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거야. 으 먹을 것 좀 줘, 어으 살려줘, 누구 없어-. 그 소리는 부엉이소리를 닮았는데 창살에 매달린 손마디를 보면서 우리는 겁을 집어먹곤 했지. 그때는 모두 몸을 사리고 살 때여서 아무도 창살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어."

"갇혔던 사람들은 어찌 되었어요?"

"배에 실려 갔다는데 자세히는 몰라." (중략)

한수는 비관적 추측을 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와의 사별을 정리하는 시간적 공간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싶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미신적인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어졌다. 간절히 원한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 남았던 수용소 자리로 가보는 것이다. 지금은 건물이 모두 헐리고 정두리만 남아 잡초가 우거져 있다. 한수는 눈을 감는다. (133~134쪽)

「유한」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표착했을지도 모르는 대마도까지 직접 다녀오기도 했던 한수는, 그래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가슴에 사무친 한을 씻어내지 못해 위의 인용문들에서 보듯 주정공장 창고 터를 계속해서 맴돈다. 육지 출신 며느리와 아들로부터 "항구는 위험하니까 애들 데리고 가지 말아주세요."(128쪽), "앞으로는 섬이 음지에 고립되어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애들에게 밝게 보고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지레 짚고서 한을 만드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 될 겁니다."(137쪽)라며 내내 타박을 들어오면서도, 그는 이곳을 드나드는 행위를 포기하지 못한다. "아버지와의 사별을 정리하는 시간적 공간적 근거"라도 확실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때 며느리와 아들의 언사는 중앙에 의해 매끄럽게 정리된 공식역사와 선별된 기억을 반영하며, 그로부터 '시간적 공간적 근거'라도 확실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고자 하는 지역의 대항기억이 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주정공장은 건물이 모두 헐리고 잡초만 우거져 있다. 그러나 매번 주정공장 터를 드나드는 한수는, 마치 주정공장 창고 벽 위쪽에 쇠창살이 박힌 자그만 구멍 사이로 굶주린 자의 손가락들이 어른거리는 듯한 환영과 이들의 절규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공식역사에 의해 지워지기를 강요당한 자들의 목소리는, 이렇듯 숨겨진 기억을 끄집어내고자 분투하는 한수의 무의식 안에서 파편적으로 소환된다. 장소가 상실된 공간, 특히 근대 국민국가와 식민적 제국질서에 의해 장소성의 색채가 폭력적으로 지워져 있던 공간은, 그러나 그 당시 죽어가고 고통받았던 제주 사람들의 숨결과 기억을 끊임없이 소환하는 지역의 '기억의 정치'로 말미암아 대항담론을 추출하고 저항의 동력을 마련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항거'의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장소 안에서 지역의 기억을 찾아나가는 문학의 방식으로써 간접적으로 저항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듯 오경훈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항거'를 지속하는 제주섬의 공동체성을 그려내고 있으며, 이러한 작가의 시선에 의해 절멸과 반공의 상징 장소로서의 주정공장은 대항기억(counter-memory) 출몰의 장으로서 의미화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 〈제주항〉 연작의 「유한」, 「가신 님」, 「빌린 누이」는 절멸과 반공의 엄청난 비극 속에서 장소감을 상실한 항구 주변의 풍경과, 그러한 경관 속에서 그리운 이들의 숨결을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기억의 정치, 곧 대항기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겨진 자들에게 도사리는 전쟁 트라우마를 장소와 접목시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 장소감이 상실된 공간에서 개개인이 겪었던 장소경험을 불러들임으로써 제주사회에 은근하게 녹아 있는 저항의식을 파악 및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 연작들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3. 개발 이후의 장소성

앞선 2절에서는 해방 직후의 장소성에 주목하여 '절멸'과 '반공'의 공간적 표상들을 현재 항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의 연관에서 끌어올림으로써, 〈제주항〉 연작이 현재의 제주를 과거와의 시공간적 중첩 안에서 복합적으로 사유하게 하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재구성된 공간적 의미 위에, 오경훈은 다시 '개발'의 열기로 들끓는 제주의 현재적 표상을 덧대어둔다. 그는 개발담론의 부상과 함께 새롭게 의미화된 항구 주변 공간에서 소외되어가는 주민들의 일상을 조명하는 한편, 절멸·반공과 개발담론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중앙 중심의 국민국가 속 변방이라는 내·외부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주사회의 현주소를 꼬집고 있다. 여기서는 「가신 님」, 「빌린 누이」, 「어선부두」, 「동거」, 「탑동광장」, 「항구다방」을 중심으로 개발과 관련된 제주항과 그 주변의 장소성을 살펴보겠다.

1) 산업화와 이주의 땅

제주에서 한국전쟁은 4·3사건의 연장이면서 또한 많은 육지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는 변화의 계기였다.[145] 한국전쟁 진행 과정에서 최남단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반공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었던 제주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도 꼽혔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을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건너왔다. 특히 1951년 1·4 후퇴 직후에는 제주로 밀려들어온 피난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 1951년 5월에 이르러서는 피난민 수가 당시 제주도 토착인구의 절반이 넘는 14만 명을 웃돌았다.[146]

절멸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제주는 전쟁 발발 이후 다시 군대 훈련 장소, 최후의 피난 지역,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여겨졌다. 전국에서 피난민의 이동과 거주, 정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가 구상하는 피난민 통제와 구호대책의 틀에 제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는 4·3의 폐해가 채 복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쟁 후방 기지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육지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선택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는 철저하지 못했다. 이 당시부터 이미 정부의 '종합개발' 시도가 논의되어오긴 하였으나 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또한 개발과 피난이 동시에 벌어지던 상황에서, 새로이 들어선 공장에 제주인이 아닌 피난민이 들어가기는 어려웠고 이 점에서 복귀하지 않고 피난민들은 개발의 수혜를 거의 받을 수도 없었기에 남은 이들의 정착 과정은 스스로

145) 김아람, 앞의 논문, 73쪽.
146)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168~16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투해야 하는 과정이 되었다. 다만 1951년부터는 피난과 동시에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난민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고, 제주에 왔던 피난민도 육지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1953년 6월 말 제주도에는 약 2만1천여 명의 피난민이 있었다고 추정된다.[147]

제주도가 4·3의 후유증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본토의 6·25전쟁으로 섬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물장수는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을 따라 제주도로 피난을 내려왔다. 지장각동산 기슭의 언덕골에 난민촌이 형성되어 그들은 여기에 살았다. 물장수로 불린 까닭은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국집에 산지천 물을 지게로 져 날라다 팔며 집을 도왔기 때문이다.

당시는 제주시가 도시라곤 해도 읍(邑)에서 시(市)로 곧 승격할 때여서 시골이나 다름없었으며, 우식이 지장각 동산에서 사라봉 기슭까지 산자락을 타고 다니며 염소를 먹여 '염소똥'이란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물장수는 이곳에서 중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떠났다. LST 미군함정으로 화물짝처럼 실려왔던 그들이었으나 떠날 때는 제법 어엿한 민간 여객선 도라지호를 타고 갔다. 물장수와 줄곧 같은 반을 했던 우식은 부두로 나가서 오랫동안 안벽에 서서 그를 전송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우식의 얘기를 들으며 심석도 제주 항구를 내려다보는 이곳 지장각 동산 동네에서 소년기를 보냈던 지난날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떠올랐다. (182~183쪽)

「빌린 누이」는 이렇듯 한국전쟁을 전후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촌을 형성하여 살아가던 이주민의 이야기가 서사의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물장수'라 불리던 친구는 위의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 때 피난차 제주에 내려왔고, 건입동 금산물 윗편 지장각동산 부근에 자리한 난민촌에서 1년 정도를 거주하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당시 피난민들은 전쟁의 공포가 사그라들 때쯤 대다수가 곧바로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영구적인 정착지로 제주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물장수' 가족이 떠날 때는 제법 어엿한 민간

147) 김아람, 앞의 논문, 79~94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객선을 타고 떠났다고 하는 데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당당하게 제주를 떠났음을, 그런 그의 가족을 한껏 부러워하며 전송하는 '우식'의 태도에서 제주를 '변방'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여전히 외지인과 내지인 모두에게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제주에는 개발 또는 산업화와 관련하여 대규모 인구 유입이 있었다. 한국전쟁의 폐해가 복구되어갈 무렵 제주도의 본격적인 개발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발맞춰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3년 제주도건설개발연구위원회가 설치돼 1964년 건설부 주관으로 특정지역 지정 겸 건설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조사가 실시됐다. 1966년부터 제주도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산업이 개발되고 용수, 도로, 동력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다.[148] 제주도의 개발이 전 분야에 걸쳐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제주항 개발도 이때부터 국고투자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149] 해방 이후 1960년까지는 항만 건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다. 정부의 재정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낮아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항만건설 역시 투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제주항에 대한 투자도 아울러 이루어졌다(다만 1979년 이전까지는 비교적 소규모 수준이었다). 이처럼 5·16 이후 제주도 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제주도로 유입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 제주도 인구성장률은 전국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였다.[150]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49년 제주 인구는 약 25만 명, 1955년에는 28만여 명으로 집계되었고, 1965년에는 인구 30만 시대가, 1975년에는 40만 시대를, 그리고 1987년에는 50만 시대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기의 제주 인구 증가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한국전쟁기 피난민과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 및 1960~80년대까지의 제주관광개발 붐과 감귤산업의 성장 등이 꼽힌다.[151] 제주의 감귤산업은 1960년대 이후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국가 주도의 관광개발과 특작농업의 성공,

148) 염미경,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제주도연구』 35권, 제주학회, 2011, 13쪽.
149)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30년사』, 1995, 177쪽. ; 황경수, 『제주교통사 소고』, 온누리, 2004, 270쪽에서 재인용.
150) 염미경, 앞의 논문, 16쪽.
151) 염미경·문순덕, 「산업화시대 이주자 공동체로서 향우회의 역할과 변화」, 『한국민족문화』 6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8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농촌근대화 열풍이 불어 1960~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농이 본격화하던 시기에 제주도는 서울, 부산 등과 함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었다.[152] 개발 열풍이 한창이던 1960, 1970년대 제주해협을 건너 제주도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이주 초기에 제주시에서는 제주항 부근 건입동에,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소방서가 있는 서호동 대도 4로 일대에 밀집지역을 형성해 살았다.[153]

한편 국제자유지역, 관광개발, 산업개발의 세 축으로 진행된 제주개발 계획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관광개발이었다.[154] 이 시기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항만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개발이었다. 1950년대 후반에 태동, 1960년대를 거쳐 본격적인 국내외 관광지로 발돋움한 제주는 1970년대를 거쳐 관광산업의 급성장을 맞았다. 이에 맞춰 무역항이자 관광지원항으로서의 제주항은 1960년대 이후 해마다 규모를 넓혀나갔다. 특히 1979년부터는 제주항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의 소규모를 벗어나 1979년 한해에만 50여억 원이 투입되는 등 투자 규모가 대형화되었다. 이처럼 제주항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례 없이 커진 것은 1978년 6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의 "제주항을 국제항 규모롤 건설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155] 따라서 곳곳에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고 제주도의 관문 제주항은 10여년 이상 날품일터가 끊이질 않았다. 초기 이주인들은 이러한 막 일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찾아갔는데, 제주항에는 서귀포에서 재배된 감귤이 육지로 운송되기 위해 줄을 지어 도착했고 때문에 짐꾼들이 상시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제주도에 이주해온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주항 주변에 모여 살며 매일 지게꾼 일을 했다.[156]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전라도 사람들은 이주 초기 건입동 남쪽 고산지대인 칠머리동산 부근에 '전라도동산' 또는 '해남촌'이라 불리는 집단거주지를 이루어 살기도 했다.[157] 따라서 제주항 일대는 1980년대 이전까지 이주민과 주민

152) 염미경,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22쪽.
153) 위의 논문, 10쪽.
154) 이상철, 「제주도의 개발과 사회문화변동」, 『탐라문화』 17호, 1999, 197쪽.
155) 황경수, 앞의 책, 271쪽.
156) 주희춘,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2008, 336쪽.
157) 이들은 처음에는 제주항과 인접한 산비탈에 천막을 짓거나 판갓집을 짓고 살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제주 원주민들은 이곳을 '해남촌'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대다수 가구가 전남 해남 출신자였기 때문이다. ; 염미경, 「산업화 시기 제주로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 적응 전략으로서 지연공동체 형성과 변화」, 『용봉인문노총』 58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52~53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섞여 사는 혼재된 공동체 구성과 함께, 개발의 열기가 한창이던 당대 제주사회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 중 하나가 되었다. 이때 칠머리동산 부근에 거주하였던 초창기 이주민들의 집단거주지는 대체로 도시의 하위계층을 형성하였기에 당시 건입동은 비교적 발전한 도시의 풍경과 일부 슬럼화된 풍경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거주하던 유입인들 또한 그곳을 영구 정착지로 여기기보다는 일반 경제적 상향 이동을 위한 경유 거주 지역으로 여겨 기반이 갖춰지고 나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관광개발의 열기가 치솟으면서 제주항 주변 공간의 모습도 그에 발맞춰 변화하였는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탑동 매립은 빠르게 그 주변을 관광지화 시켰다. 이로써 발전(임항도로변)과 낙후(건입동 안쪽 고산지대)의 모습으로 이분화되기 시작했던 항구 주변의 무장소적 경관은 이런 관광산업의 성행으로 더욱 그 격차가 두드러져갔다. 이런 가시적 차이는 개발의 외피를 입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성을 거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주입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것은 곧 다음 절에서 볼 무분별한 개발의 파토스를 불러왔다. 여기서 우리는 1960년대 이후 제주항을 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무장소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크게 '장소〔경관〕의 획일화'와 '상품화된 가짜 장소의 생산'[158]이 렐프가 말한 두 가지 측면의 무장소성이라 할 때, 전자의 획일화된 장소는 제주항 일대가 정부의 개발계획에 맞춰 경제적 상승을 위한 이주인들의 경유지로 인식되던 모습을, 후자의 상품화된 장소는 타자지향성을 야기하는 관광지로 변모해간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주와 개발의 열기가 사회구조를 변동시키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불균질한 발전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 이때는 5·16 군사정권이 들어선 초기로 사회상은 아직 전근대적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지게꾼 리어카꾼이 많았으며, 숯장수 푼거리장수 물장수들도 보였다. 고래술을 마신 자가 호기 부려 거리를 활보했고, 식당 앞에선 외상술을 마시고 시계나 외투를 저당 잡히려는 사람들이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다. (중략)

재종숙은 항구 옆의 동산, 전에 피난민촌이 있었던 '동대머들' 언덕에 살았는데 워낙

158) 심승희,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과 현대 경관」, 앞의 책, 314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집이 가난하여 마구를 길가 공지에 막대를 세워 가마니짝으로 비 가림 한 우덜거지 꼴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는 차량이 턱없이 모지랄 대여서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양곡이나 건축자재를 한꺼번에 옮길 수 없었으므로 부두노조에 소위 '마차부대'라는 운송 팀을 만들었다. 재종숙이 마차부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시내에 마차꾼이 적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받아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는 항상 적어서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반품밖에 안 된다고 재종숙은 늘 투덜대곤 하였다. (중략)

육지부에서 딸딸이 삼륜차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얼마 안 가 마차부대는 해산됐다. 재종숙은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 입치다꺼리가 어려운 남루한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237~238쪽)

② 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열대야가 누그러졌을 때 상민은 노숙자의 거소 풍경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세탁소 주인이 폐가에 죽은 노숙자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웃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숙자의 시체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시멘트 바닥에 누워 세상을 원망하듯 잔뜩 찡그린 얼굴로 굳어져 있었다. 죽은 사람 옆에서 잠을 잤던 노숙자 한(韓)모라는 사람은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신 뒤 쓰러져 잤으며 아침에 혼자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저쪽이 죽은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죽은 자가 6개월 전에 제주항을 통해 이곳으로 들어왔으며 한때 서울에서 잘나가는 회사 간부였다고 말했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저쪽은 모 증권회사 과장이었으며 무슨 작전인가를 하다가 빚을 얻어서 가족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 (233쪽)

「항구다방」(①) 속 '재종숙'은 60년대 이후 개발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던 시점에 제주항 부근에서 지게꾼 일을 하며 살았다. 그가 살던 곳은 전에 피난민촌이 있던 '동대머들' 언덕 위로, 위에 언급한 전라도민들의 집단거주지였던 '해남촌'도 이곳에 위치해 있었다. 작품상 재종숙이 이주인이었는지 현지인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으나, 당시 이곳에 거주하던 대다수가 이주인들로 노무업이나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하위계층으로 주로 이루어진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59] 한편 재종숙의 경우에는 전근대적 방식의 마차부대에 소속되어 일해오다가, 군사정권의 개발계획에 맞춰 육지부에서 근대적 방식의 삼륜

159) 염미경, 「산업화 시기 제주로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 적응 전략으로서 지연공동체 형성과 변화」, 56~5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고 남루한 생활을 하다 죽었다. 항구를 중심으로 급변하던 이같은 상황은 1960년대 당시에 시작된 경제개발과 산업화 과정이 기존 제주사회의 직업군이나 사회상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음을 추정하게 한다. 더불어 이러한 근대적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그것이 제주항 일대의 표면(부두)/심층(건너편 마을)의 공간적 분리를 조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탑동광장」(②)의 상민은 어느 여름, 자신이 거주하는 건입동 마을에서 인근에 머무르는 노숙자의 거소 풍경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폐가에 죽은 노숙자의 시체가 나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죽은 이 옆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 한모 씨는, 그가 6개월 전에 제주항을 통해 이곳을 들어왔으며 한때 서울에서 모 증권회사의 과장이었으나 투자 실패로 몰락하여 혼자 제주로 내려왔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주에서의 생활이 시원치 않았던 모양인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탑동광장」은 경제적 상승을 위해 육지 출신 외부인이 제주항을 통해 건입동 일대로 이주해오던 1960년대 이후의 사회현상을, 비교적 최근까지 문제로 대두되었던 탑동과 산지천 일대의 노숙자 문제와 연동시켜 형상화하고 있다. 오경훈은 여기서 관광단지의 성황 이면에 내부의 슬럼화가 초래된 항구 주변 마을의 실상과, 상승의 꿈을 안고 온 이주민들이 직면하였던 불우했던 생활상을 하나로 엮어 형상화함으로써 제주항 주변의 무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 해방 시기 이후 제주는 반공의 보루로서, 개발의 희망이 깃든 공간으로서 숱한 이주의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 제주항 일대는 그러한 이주의 중심지로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다만 영구적인 정착지라기보다는, 상향 이동을 위한 경유 거주 지역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사회의 개발은 이후 1970~80년대를 거쳐 폭발적인 이주민의 유입을 낳았다. 이주민의 증가와 관광개발의 열기 속에서 나날이 규모를 키워나간 제주항은 제주 사람들이 개발의 파토스라는 새로운 층위의 식민성에 경도되도록 만들었다. 「탑동광장」과 「항구다방」은 그러한 개발담론의 여파로 제주항 일대가 공간적으로 이분화되고, 관광지화와 슬럼화 등 다양한 양상의 무장소성의 심화로 이어진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앞서서 보았듯, 두 연작에는 이러한 표면적 상황의 심층에 각각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대표되는 반공의 기억이 도사리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중앙권력에 의해 담론으로 주어진 반공과 개발의 공간 인식이 서로 독립되고 단절된 차원이 아닌 유사성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간파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처럼 해방 직후와 전쟁기에 이어 산업화 시기에 꾸준히 이어진 외지인구의 유입은 개항 이후 제주섬의 공동체성 자체가 하나의 이미 폐쇄된 단위가 아니게 된 지가 오래임을 반증한다. 그것은 '섬'이 지닌 필연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럼에도 이주의 이유가 늘상 경유지이자 기착지로 인식되어온 실정과, 중앙에 의해 부과된 관광도시화가 지역 내부에 초래한 문제들은 여전히 제주섬에 대한 공간 인식이 '변방'에 가둬져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제주항〉 연작은 제주항을 중심으로 한 건입동 일대의 사회적 현상들을 보여줌으로써 주로 토착민들 위주의 공동체성에 집중해온 다른 제주 소재 작품들과 차별점을 보인다. 무엇보다 이처럼 개발과 이주로 새롭게 파생된 (무)장소성은 연작의 다른 작품들을 통해 제주적 로컬리티로 의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 개발의 파토스와 빼앗긴 공간

제주 사회 안팎을 강하게 지배하던 개발의 파토스는 지역 내부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최근 들어 이주의 열기가 다소 소강되는 대신 더 뜨거워져가는 관광개발의 열기는 제주도가 국민국가와 글로벌 자본주의 기획에 의해 구획되고 휩쓸려가는 정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바다가 매립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어가는 동시에, 많은 수의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고 타지와 타국의 개발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형국이 개발의 파토스가 불러온 결과라고 말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폭력과 억압이 물러간 자리에, 개발과 발전의 외피를 두른 근대화의 기획과 글로벌 자본을 유통하는 신식민체제가 그 자리를 더 넓게 그리고 깊숙하게 침투해온 것이다.

「모변」의 기돌이 불만을 가졌던 한일 양국 간의 불평등한 통상 조약은 근래에 와서도 신(新)한·일어업협정의 부당한 조약으로 이어졌고, 반공담론 대신 그 자리에 덧씌워진 개발담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의 욕망을 양성하고 한층 더 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묘한 방식으로 생활세계의 상실을 불러왔다. 바다가 매립되는 동안 어민들의 일자리는 축소되고 부두에서 생활하던 노점상들은 설 곳을 잃었으며, 항운노조의 비리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제주의 땅과 자본은 외지인들에게 빼앗겨왔다. 그런 한편, 개발의 과정에서 많은 외지 인구를 불러들이며 제주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던 제주항과 그 인근의 원도심은,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도시 확장과 뉴타운 조성으로 침체·공동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의 무분별한 확장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제주항 일대는 개발과 이주의 파토스가 초래한 역설적 귀결 또한 한눈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경훈의 〈제주항〉 연작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개발담론이 지니는 절멸·반공담론과의 연속성, 중앙권력과 경제체제에 의해 주입된 무장소성으로서의 개발담론의 폭력성과 허위를 강조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과 개방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세계가 상실되어가는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가신 님」에서는 해녀 수자가 일하는 장소이자 제주항 동방파제가 있는 사라봉 기슭의 바다인 '구릉곶'이 제주항 확장 과정에서 축소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발견된다.

> 구릉곶은 제주항 동방파제가 있는 사라봉 기슭의 바다였다. 제주항이 확장되면서 1종 공동어장인 '건들개' '지름바당' 이 다 없어지고 손바닥만한 산기슭 바다만 남았다. 수역이 좁아진 대신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 채취한 해산물이 잘 팔리는 곳이 되기는 하였다.
>
> 수자는 나아가 들어 먼 바다까지는 나가지 못한다. 얕은 바다에서 갯바위 틈을 더듬었다. 큰바람이 불고 나면 먼 바다에 있던 소리나 해삼들이 갓으로 밀려왔으므로 그것들이 기어들어가는 바위틈을 우비면 꽤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재수좋은 날은 며칠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날은 겨우 좁쌀고둥이나 배말을 잡는 정도였다.
>
> 수자는 방파제 중간쯤 되는 바다에서 물일을 하고 파제벽을 타고 올라왔다. 관광객들이 몰려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과 가족을 동반한 산책객들도 방파제로 나와 바람을 쐬고 낙조를 바라보다 한잔하고 돌아가곤 한다. (155~156쪽)

제주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1종 공동어장인 '건들개', '지름바당'은 매립되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없어졌고, 현재는 '구릉곶'이라는 산기슭 바다만 남아 있다. 수역이 좁아지면서 산지 어촌계에 속한 수자를 비롯한 해녀들이 채취할 수 있는 어물의 양이 줄어든 대신, 관광객이 모여들어 채취한 해산물이 잘 팔려나가는 곳이 되었다. 여기서 해녀들은 "탈의장 앞에 좌판을 느런히 벌이고 앉아서 해산물을 팔았"(156쪽)다. 수자도 관광객이 몰려올 시간이 되면 좁쌀소라와 잡살뱅이 따위를 내놓고서 손님 맞이를 했다. 개발로 인해 일터의 규모가 축소되는 와중에, 이런 개발 덕택에 늘어난 관광객들에게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영위해나가는 잠수부들의 아이러니한 생활 형편은, 오늘날 "지구 위의 모든 인간과 모든 자연을 산업경제 시스템으로 집어넣는"[160] 전지구적 근대 자본주의가 기존 전근대적 방식의 벌이 방식들을 산업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해녀들의 수는 나날이 감소되어 "옛날에는 〔산지 어촌계의-인용자〕 해녀가 100명이 넘었다는디 (…) 지금은 겨우 여섯 명"(175~176쪽)밖에 남지 않게 된다. 「가신 님」은 산업구조의 근대적 재편 과정에서 날이 갈수록 줄어가는 해녀 공동체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가신 님」은 개발의 과정 속에서 상실되어가는 제주 어민들의 생활세계가 서사의 다른 축을 담당하면서, 이 작품의 주요한 공간적 표상인 절멸·반공의 모습과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한편, 「어선부두」와 「동거」는 각각 항구부두에서 일하는 '보제기(어부)'와 노점상, 그리고 항구와 가까운 곳에서 폐지 줍는 일을 하는 사나이가 근대적 개발기획 속에서 비참한 일상을 영위해나가는 모습을 더욱 본격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선부두」는 한일어업협정 등 근대화 과정 속에서 "변해버린 항구의 모습을 통해 소외된 인간 군상과 붕괴되는 가족과 공동체"[161]를 그린 작품이다.

① 그는 부두에 빽빽이 매어져 있는 어선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것들이 어창 가득 들어 있는 고기들이었다면 얼마나 좋겠나. 배들로 항구가 불러터지겠어. 저러니 배들끼리 자리다툼하고 비비대다 깨지고 화물부두로 접안했다 입건되고 하는 거지."

"선적을 제주항으로 해놓은 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160) C. 더글라스 러미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김종철·최성현 역, 녹색평론사, 2011, 81쪽.
161) 오어진, 앞의 논문, 2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수가 대답했다.

"아냐. 고기잡이가 너무 많아. 그렁저렁 건져올릴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미워."

(중략) 선장이 발끝으로 땅바닥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선주협의회에 가는 길이야.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많은 어선들을 줄인다는구만.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맞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거지. 우리 지방에서는 앞으로 5년간 200척 이상을 감축한다는 거야. 육지부에도 난리가 났어." (212쪽)

② 수협공판장 맞은편에 새로 생긴 수산시장이 있었다. 건물 안에 점포를 낸 사람들이 건물 앞 노상에서 고기를 파는 여인들 때문에 장사를 망치고 있다고 원성을 하였다. 좌판 여인들은 귓등으로 들었다. 점포 주인들은 시청으로 몰려가 노점상을 쫓아내 달라고 청원하였다. 시청직원들이 나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좌판상들에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영세민들은 밥줄이 끊긴다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 (중략)

"모두 쓸어 버려라, 잡것들!"

"쓸어 버려라, 쓸어 버려라."

시위자들이 달려들어 널빤지를 걷어차고 여인들을 끌어냈다. 버티고 쓰러지는 여인들이 비명소리를 내었다. 분개한 여인들이 이를 앙다물고 달려들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가차 없이 얻어맞고 밀쳐졌다. 여인들은 사정없이 걷어 차여 넘어졌다. (215~216쪽)

부두에서 십여 년간 배를 타온 보제기 '선우'는 최근 고기잡이의 포화로 갈수록 벌이가 줄어가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162]으로 일자리 유지까지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는 새로운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맞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어선 수를 줄여간다(①). 그러면 승선했던 사람들은

162)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에 체결한 신한·일 어업협정을 가리킨다. 이 어업협정은 1996년 일본이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한 후, 구어업협정(1965년에 체결한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한일 양국은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겹치는 수역을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인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상호조업문제가 타결됐다는 점에만 의미를 부여하기엔 우리 측 어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대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대게 자망 및 장어 통발조업의 경우 일본 측의 우리 수역에 대한 조업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데도 우리 측만은 연간 어획량과 출어 척수를 대폭 감축,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출어를 포기할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어민피해 최소화 하라」, 경향신문 , 1999.02.08, 4면.)." 즉, 우리나라 근해어선들이 조업하는 주요어장의 대부분이 일본 측 수역으로 포함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컸던 것이다." 위의 논문, 2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떻게 되느냐는 선우의 물음에, 선장은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해야지.”(213쪽)라고 말하며 자리를 회피한다. 이 말에 선우는 “아득한 심해로 떨어져 내리는 기분”(213쪽)을 느낀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재숙’이 가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②). 재숙은 어물장수로 부두 노점상에서 고기를 팔아왔다. 그런데 수협공판장 맞은편에 새로 생긴 수산시장의 사람들이 건물 앞 노상에서 고기 파는 이들 때문에 장사를 망치고 있다면서 시청으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좌판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재숙의 노점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짓밟히고 말았다.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한 재숙은 다른 벌이를 강구해보겠다며 가출하여 육지로 올라가버리고 만다. 이처럼 「어선부두」의 선우와 재숙은 폭력적인 글로벌 자본의 물결 아래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제주의 보제기와 노점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에 인용한 「동거」에서도 제주 사람들의 생계의 기반이었던 바다와 항구가 외지 자본에 의해 빼앗겨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① 원석은 재활용품 폐휴지를 쌓는 일을 마치고 ‘망양정(望洋亭)’ 창고 앞 풀밭에 앉아서 쉬었다. ‘망양정’은 옛날 그의 사업이 잘 나가던 때에 건축자재를 쌓기 위하여 공유지에 무허가로 지은 창고다. 후에 원석이 망하여 집과 재산을 다 날리자 빈손으로 전전하다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창고는 벽이 깨지고 문이 헐었으나 지붕은 아직 비가 들지 않아 내부 한가운데로 수집해온 재활용품을 쌓고, 양쪽 구석에 칸막이를 세워 한쪽은 원석이 다른 쪽은 ‘외래자’들이 기거하고 있다. 임항도로변 칠머리동산 위에 있는 창고는 밖으로 한 발 나오면 항구가 눈앞에 있어 조망이 좋았으므로 원석이 ‘망양정’으로 명명한 것이다.(252쪽)

② “네가 데려온 그 사업가란 놈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무슨 짓을 해먹었는지 알어? 그들이 어느 한 곳 제대로 성공한 곳이 있던가. 모두 땅장사한 거 아냐. 그들이 육지에서 행했던 수법 그대로 섬놈들을 속여먹은 거 아냐. 당신이 짜고 불러들였지? 맞지?”

윤전이 보타이를 바로하면서 목기침으로 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예, 이 자가 불민한 탓으로 식장을 소란케 하여 죄송합니다… 호스트로서 간단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중략) 여기 온 사람도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쉬파리처럼 뛰어들었다가 일을 그르치자 제 잘못으로 여기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람인가 봅니다. 누가 저 사람보고 돈을 대라고 강요했나요? 제 욕심을 채우려다가 그르치고선 발명하는 게 아닙니까. 제 욕심을 채우려다가 그르치고선 발명하는 게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은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272~273쪽)

「동거」는 개발 열기와 그 주변에 모여든 인간들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58세의 '원석'은 온천 개발사업을 추천하는 육지 사업가에게 혹하여 가진 돈을 다 투자했다가 몰락한 인물이다. 신시가지 개발사업 등 건축업을 하며 돈을 모은 사업가였지만 개발 유망지의 땅을 사들이다 재산을 날렸고, 아내마저 병으로 잃고 아들마저 바다 건너 이민 가버린 탓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폐지를 쌓아놓은 창고이자 그가 거주 중인 공간은 제주시 임항도로변 칠머리 동산 위 '망양정'이다(①). 주정공장 옛터를 접한 이곳 역시 개발독재의 과정 속에서 부두 건설을 위해 땅이 깎이고 흙이 파내지면서 버려진 공간이다. 항구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사라봉 정상에 세워진 정자 이름과 같다. 자신에게 사기를 친 인물 '김윤전'이 장학회를 세우고 도덕적인 인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역겨웠던 원석은 그의 장학회 행사장을 찾아가 사람들 앞에서 육지에서 행했던 수법 그대로 섬놈들을 속여먹었다며 흥분에 차서 그의 악행을 고발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땅장사를 해오던 이들 사업가들이 제주에 내려와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본과 부동산을 섬사람들로부터 모두 빼앗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②). 그러나 그 자신 역시 이러한 개발사업을 해오며 이익을 얻어온 원석이기에, 원석의 항의는 김윤전으로부터 "여기 온 사람도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쉬파리처럼 뛰어들었다가 일을 그르치자 제 잘못으로 여기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람인가 봅니다. 누가 저 사람 보고 돈을 대라고 강요했나요?"(273쪽)라며 조롱조의 응수로 되돌려진다. 그리고 원석은 호텔 관계자에 의해 가차없이 행사장 밖으로 쫓겨난다. 이 장면은 개발담론이 내면화된 변방인들의 꿈이 허상임을 직시하게 한다. 아울러 이런 이유로 자신의 본래 거주지를 빼앗기고 만 원석이 옛 주정공장터 인근의 초라한 창고에서 내몰리듯이 살고 있다는 설정은 의미심장하다. 4·3과 한국전쟁의 비극이 사그라진 지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한 비극을 표상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공간을 매개로 개발담론의 침투가 또다시 제주의 장소성을 훼손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와 탑동광장의 장소성을 결부시켜 문학으로 형상화한「탑동광장」의 전략 역시 의미심장하다. 1980년대 후반 항만을 확장한다는 명목 하에 바다를 매립한 이후 생겨난 이 공간은 '국가주도의 제주개발체계'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무장소성을 갖는다.

> 놀치는 날이면 파도의 비말(飛沫)을 보는 게 장관이라는 탑동 광장은 제주항 방파제 서안 매립지에 있다. 물굽이를 이루는 해안을 직선으로 막아 매립지를 만들 때 그 방조제의 한편 끝은 용두암이 보이는 병문천 하구에 이르렀다.
>
> 매립지의 한가운데 광장이 있다. 주위에는 체육장, 공원, 공연장, 화장실, 워터파크가 있고 어항 방파제 쪽으로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관광객을 호객하는 종업원들의 모습이 광장 가운데서도 잘 보였다. 호텔, 마트, 식당들도 매립지 안으로 모여 이곳은 번화가가 되었다.
>
> 그러나 구시가지 방향으로 길 하나를 건너면 초라한 주택들이 골목 안에 웅크리고 있다. 토박이들은 길 건너 바다에 면한 앞자리를 외래자들에게 내주고 고층 건물에 시야가 가린 뒷골목 신세가 되고 말았다.
>
> 그의 집에 접한 이웃 폐가에는 언제부터인지 노숙자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들은 낮에는 광장으로 나가 어슬렁거리고 봉사단체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받고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상점 앞을 기웃거려 술잔거릴 얻고서 폐가로 돌아왔다. (229~230쪽)

제주의 자연경관이 매립에 의해 사라지고 물굽이를 이루는 해안의 곡선이 직선으로 반듯하게 메워진 곳에, 이제는 체육관, 공원, 공연장, 화장실, 워터파크, 호텔, 마트, 식당 따위의 무장소적 장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관광 시설들의 반대편인 구시가지 방향으로 길 하나를 건너기만 하면 그곳 골목에는 초라한 주택들이 웅크리고 있다. 주인공인 한국전쟁 참전군인 출신 상민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언제부터인가 그가 사는 집의 이웃 폐가는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되어 있다. 그로 인해 상민의 동네는 노숙자들이 싸지르는 인분 냄새로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 구시가지 내부의 이런 모습은, 길 건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편에 반듯하게 구획된 시설들과 산뜻한 바다 내음을 풍기는 방파제 쪽의 풍경과 대조된다. 이처럼 「탑동광장」은 '길 건너 바다에 면한 앞자리'는 외래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 위치한 토박이들의 구시가지 동네는 '고층 건물에 시야가 가린 뒷골목 신세'로 전락해 있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와도 단절되어 있는 탑동 주변의 무장소성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탑동 공유수면 매립 계획은 1960년대부터 진행된 제주도 개발정책의 하나로 관광개발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관광개발정책은 국가 주도의 대외지향적 성격을 띠었으며, 지역 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163] 특히 매립 추진 과정에서 탑동 해안을 이미 이용하고 있던 어촌계나 잠수회의 동의서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보상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고 먹돌을 매립지 밖으로 옮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녀들의 반발을 샀다.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휴식처이자, 인근 어민들의 일터였던 탑동 바다는 제주민들 공동의 것이라는 '공유수면'의 성격을 상실하면서 관광자본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영토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것 혹은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자원(commons)으로 불릴 수 있는 공유수면을 국유화하는 한편 이를 매립한 토지에는 사적 소유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공유수면의 매립은 광대한 토지를 창출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거대한 폭력의 행사이며 공동의 부를 사유화하는 과정이 된다.[164] 이처럼 근대국가가 담론화한 개발의 논리는 그 매혹적인 어조와 다르게 실상은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관광산업을 위시한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자본경로의 편중을 조장한다. 이런 과정에서 슬럼화되어버린 건입동 일대의 풍경은 슬럼 공간이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러한 경제발전의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165] 거대한 세계경제 시스템의 톱니바퀴

163) 정영신, 「제주 탑동매립반대운동의 정치과정과 주체 형성 - 주민운동에서 범도민운동으로」, 『사회와 역사』 130집, 한국사회사학회, 2021, 227쪽.
164) 정영신, 「탑동매립반대운동과 그 이후의 30년을 생각한다 - 탑동매립반대운동의 정치과정」, 『제주대신문』, 2018.11.15.
165) "우리가 경제발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그것은 지구 위의 모든 인간과 모든 자연을 산업경제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 경제발전이란 '슬럼세계'를 '고층빌딩의 세계'로 조금씩 변신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자 속임수입니다. 경제발전의 과정에 따라 예전에 있었던 다양한 사회가 '고층빌딩과 슬럼의 세계'로 바뀐 것이 20세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C. 더글라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속에 편입되는 데 실패한 노숙자들의 빈곤한 처지는 이들이 살아가는 건입동 일대의 낙후된 상황과 맞물려 개발의 논리로부터 삶의 기반을 상실하고 소외되어가는 제주민들의 모습을 표상한다.

위의 인용문의 어조에서 알 수 있듯, 오경훈은 자연경관의 훼손이나 주민들의 터전 상실에 대하여는 아랑곳 않고 무분별한 관광개발의 논리를 강압적으로 주입해온 탑동 매립의 과정을 명백히 비판조로 보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건입동의 풍경에, 해군기지 찬반 집회가 연일 벌어지는 탑동광장의 풍경을 양립시켜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국민국가가 주도하는 개발과 반공의 논리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님을 인식케 한다. 이런 인식은 「항구다방」에 나타나는, 변해가는 항구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에서도 이어진다.

① 그때 우리 집은 제1부두 앞에서 곡물과 주류를 도산매하는 가게를 하고 있었다. 저쪽은 추자도 대서리 항구 앞에 점포를 가지고 있었으며 해산물 되넘기기 장사도 하였다. 지금은 옛날 일이 되었지만 석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짐을 지고 배를 타고 내릴 때 누가 휘딱 뒤를 당기지요. 돌아보면 부두꾼인 거라요. 그자는 짐을 빼앗아 제 손으로 옮겨놓고는 하역 요금을 요구하지요.

추자도 사람을 주로 상대했던 우리 가게는 저쪽 사람들이 발을 끊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다.

송석춘이 그쪽으로 놀러 오라고 한 말은 그가 삶의 여유를 찾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제주항을 기피하고 육지부의 항구를 드나들며 생활 형세가 폈다면 과거의 설움은 이제 가벼운 옛말로 미뤄도 될 것이다.

나는 항만 터미널에서 화물을 적재한 우리 회사 차량이 카페리로 선적되는 것을 확인하고 추자를 거쳐 가는 항로를 살펴보고서 화물 부두로 간 것이다.

선석이 단선이던 제1부두 시절부터 지금 제6부두로 확장된 과정까지 나는 항구가 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나는 항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영업을 해왔으므로 해상 운송 사정과 부두꾼들의 행태를 직접 보고 귀로 들었다. 중기들의 툭탁거리는 소리, 배에서 울려오는 기관 소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 나의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232쪽)

러미스, 앞의 책, 81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② 나는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만, 노조는 이때부터 폐쇄적 집단이 되어갔으며, 전임자는 조폭 두목과 같은 권한을 쥐고 노조원과 화물주를 휘둘렀다고 한다. 국가가 항만 관리를 위해 그들을 기관에 영합시킨 데서 비리는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해마다 임금 인상을 보장해주고 그들에게 부두의 작업권을 독점케 하였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부두에 들어가 하역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노조의 일에 간섭할 수도 없었다. 항구의 철망 담장 안은 그들에 의해 점유돼 버렸다. 대선(한자) 때마다 유세장에 나가 여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어용의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정권이 바뀌니 이제 과보만 남았지. 통봉을 맞아도 싼 거야…….

물류업자들의 입은 이런 소리를 내었다. 나는 동종업자들의 냉소에 동감하면서 혼잣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너무 권력화되니 부패한 거야. 비리를 대물림하는데도 조합원들은 내부 비리를 묵인하고 키워온 거 아닌가. (238~239쪽)

「항구다방」의 배경은 2000년대 초 항운노조 비리에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던 시기다. 항구에 위치한 항구다방 바로 옆 한 택배영업소의 소사장인 '나'는 선석이 단선이던 제1부두 시절부터 제6부두로 확장된 과정까지 (현재는 제10부두까지 확장) 항구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인물이다. 항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영업을 해온 그로서는 해상 운송 사정과 부두꾼들의 행태를 직접 보고 들어왔기에 항운노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인용문 ①에 나와 있듯이, '나'와는 일면식으로 추자항 근처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석춘'이 어느 날 '나'에게 옛날에 제주항의 부두꾼들이 비싼 하역요금을 요구하는 행태로 인해 이곳 사람들은 제주항 대신 목포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나'는 예전에 제1부두에서 주로 추자 사람들을 상대로 도산매 장사를 해오다가 이런 제주항 부두꾼들의 행태로 추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가게 문을 닫은 전력이 있는 장본인이다. 그러므로 이런 부두꾼들을 양성하는 항운노조의 비리와 횡포 문제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예전부터 항운노조의 비리는 암암리하게 잘 알려진 것이었다. 인용문 ②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가 항만 관리를 위해 노조를 기관에 영합시킨 데서 비리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후 노조는 완전히 폐쇄적 집단이 되어 부두의 독점권을 장악해왔다. 실제로 2005년에 제주 검찰은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한 끝에 중간 수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결과에서 “항운노조의 조합원 채용이 세습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166] 현재 제주에서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유일하게 1984년 5월1일 제주도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연장 허가를 받으며 도내 항만에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167] ‘나’는 이런 항운노조 문제에 명백히 반감을 지니면서 동시에 이렇게 권력화되어온 부두의 모습을 비감 어린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 역시 국민국가가 항만의 권리를 독점하고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조를 파수꾼으로 설정하여 부두의 독점권을 준 데서 발생한 병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항〉 연작의 「가신 님」, 「어선부두」, 「동거」, 「탑동광장」, 「항구다방」은 제주항 주변을 둘러싼 사회정치적·경제적 역학구조와 이로 인해 섬사람들의 생활세계가 상실되어가는 과정을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무장소화의 과정을 통해 오경훈은 반공·절멸의 논리에 이어 국민국가에 의해 기획된 개발담론의 허위를 폭로하며, 이것이 제주의 장소성을 훼손하는 또 다른 방식의 폭력적 지배담론임을 폭로하고 있다.

3) 상실감과 상승 욕망의 길항

개발과 관광에 의해 무장소화된 항구 주변의 공간은 ‘타자지향성’을 불러오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상실감을 가중시킨다. 이럴 때 이들의 인식세계는 스스로가 이 장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실감과, 한편으로 그러한 개발 논리에 복속되어 상승의 욕망을 꾀하는 이중의 감정을 양립시킨다. 「빌린 누이」, 「어선부두」, 「동거」는 이처럼 주민들의 장소상실의 감각이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지장각동산 언덕길을 내려온 양심석은 제주항 내항을 두르고 있는 동부두 방파제

166) “이때 2003년 7월 항운노조가 1인당 2100만원씩 상조회비를 받고 신규로 채용한 61명 가운데 40명은 전·현직 조합원들의 친인척이며, 이 가운데 35명은 조합원들의 아들들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한 전직 조합원은 아들을 채용하도록 노조 간부에게 2100만원 이외에 사례비조로 300만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허호준·석진환, 「제주항운노조 ‘대를 이어 채용’」, 『한겨레』, 2005.04.15.

167) 오미란, 「‘연봉 7000만원’ 제주항운노조 37년 제주항 독점 깨지나」, 『뉴스1』, 2021.10.1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 나갔다. (중략) 돌제(突堤)로 나가자 국제여객선 터미널 앞에 선제(船梯)를 내린 태형 선박이 눈에 들어온다. 눈부시게 흰빛으로 빛나는 배는 30층 빌딩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만 하였다.

고물 위에 옥외풀, 일광욕 선 덱이 있는지 옷을 벗은 사람들의 상체가 보인다. 객실 창 사이의 웨딩케이크 모양의 베란다에 부부로 보이는 성인과 어린아이가 나와 놀고 있다.

선석의 부두에는 머리가 붉은 사내와 흑발의 여인이 팔을 끼고 걷고 있었다. 여자의 스커트는 옆을 터놓아 바람이 불 때마다 살짝살짝 들리면서 흰 속살을 내보였다.

이국의 기분이란 저런 걸까. 여행이란 저런 걸까. 저쪽 사람들의 눈에 이쪽은 어떤 모양으로 비치고 있을까…. (중략)

6·25전쟁 무렵 심석은 양공주를 차에 태우고 거리를 질주하는 미군 병사들을 보았다. 아이들은 먼지를 피워 올리며 달리는 지프차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헤이, 껌 껌' 하고 소리쳤다. (중략)

심석은 까마귀발처럼 새까맣게 때가 묻은 그때의 손을 선명히 떠올린다. 왜 이럴 때 내면에 그려지는 모양이 이러할까. 그는 자신의 행색을 살펴본다.

외형은 달라졌어도 마음의 부끄러움은 지워지지 않는군. 그 부끄러움을 저들도 알까.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심석은 낟알을 줍는 사람처럼 작아지고 만다. (180~181쪽)

인용문에서 「빌린 누이」의 주인공인 양심석은 건입마을에서 나고 자라 궁한 삶을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 부두 근처에서 부유해 보이는 여행자들을 보노라면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곤 한다. 심석은 항구를 면한 건입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항구를 드나드는 많은 물자와 승객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넓은 세상을 상상하고 먼 곳으로 마음이 불어가기도 하였다"(180쪽).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와는 반대였고, 그는 아직도 궁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지이다. 이전에 항구가 바깥 세계에 대한 설렘,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장소였다면, 지금 그가 보는 항구는 관광객들의 이국적인 행색, 거대 여객선의 압도감 앞에 그 옛날 한국전쟁 당시 미군 병사들에게 구걸하던 자신의 때 낀 손을 자꾸만 반추하게 되며 그러한 비교 속에 스스로를 울적케 하는 공간이다. 부유하고 깨끗한 이들의 근대성에 우월함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은 아주 옛날부터 누적되어온 제주인들의 식민주의가 이들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식 기저에 공고하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의 심석에게 항구는 렐프가 말한 무장소의 타자지향성의 한 측면으로 "관광객을 위한 경관"[168]이 된다. 이 공간은 심석으로 하여금 항구를 보며 자신의 정체성 혹은 정서적 연대감을 느꼈던 예전과 다르게, 자신이 이방인으로 느껴지게 하는 부조리한 공간이 된다.

"사업 규모가 얼만가. 그 친구 큰돈을 선뜻 댈까."

"땅장사 하려는 거 아냐?"

"야, 너희들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

우식은 탁 탁자를 내리쳤다.

"물장수는 초등학교 때 나와 한반 했어. 우리는 친했지. 거짓말할 사이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피난 온 그들에게 쌀도 내주었다구. 우리도 배를 곯으면서 말야."

열을 올리던 우식이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더니 문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

"야, 저거 왜 저러니? 심석아, 몽구야, 얼른 나와 봐. 저것이 왜 안 들어오지?"

우식은 발을 구르며 우는 소리를 내었다.

항외에 닻을 내리고 있던 배가 뱃머리를 밖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항내로 들어오려도 대기 중인 것으로 믿었는데 연통에서 검은 연기를 뭉텅뭉텅 피워 올리며 외해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었다. 아주 선미를 이쪽으로 돌려대어 등을 보이고 있었다.

우식이 소리치며 뛰어오르고 팔을 저으며 그 자리에서 매암을 돌았다.

"왜 저러지 응? 뭐가 잘못된 거냐? 저기에 내 친구가 타고 있는데. 물장수 말야. 이번에 꼭 오기로 돼 있었어. 저기에 타고 있을 거야." (199~200쪽)

이런 부조리한 공간으로서의 장소 인식은 심석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로 하여금 장소에 대한 애착감을 축소시키는 계기가 된다. 계속되는 항만 축조로 개발 논리의 내면화가 공고해진 제주항 인근의 세 친구들은 한탕 벌고 싶다는 욕망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실제 현실과의 괴리로 곧잘 절망감을 느낀다. 특히 심석의 친구 우식은 부동산 사업을 통해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은 인물로, 그는 이전에 피난민 출신으로 난민촌에서 함께 나고 자랐던 친구 '물장수'가 성공한 사업

168)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42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와 함께 사업하며 성공할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물장수'를 실은 크루즈급 유람선이 국제부두의 선석 부족과 규모 문제로 입항을 취소하고 배를 돌리는 것을 보고, 우식은 눈물을 흘리며 좌절한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여전히 개발담론에 복속되어 있고 그러한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는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표상한다. 그것은 섬사람들의 근원적인 변방의식, 달리 말해 식민적 무의식이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자본의 획득을 통해 중심부로 편입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오경훈은, 우식이 꿈꾸는 자본의 욕망이 제주항 앞바다에 정박하지 못하고 바다에 실려 멀어지는 모습을 그리면서 개발담론으로 표상되는 식민주의 내재화의 허위를 보여준다. 그리고 같은 작품에서, '빌린 누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무력하게 떠나보낸 공간으로서의 제주항 이미지와 접합되면서 절멸, 반공, 개발의 세 표상이 공명하는 무장소적 공간으로서의 제주항 이미지가 한층 부각된다.

「어선부두」는 선우가 10톤 규모의 한 어선이 귀향 5일을 남겨두고 경제수역에서 소식이 끊겼다는 것을 기관사 동료인 관수로부터 전해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① "화신호가 소식이 끊겼대. 선장 최해성이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어."

"어디서?"

"동지나해야. 경제수역이지."

선우는 지난밤 물소리 속에 섞여 들려오던 절규를 꿈이 아닌 생시로 듣는 느낌이었다. 덧드는 밤에 해안을 치는 놀소리를 들으며 한없이 허우룩해지는 가슴을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귀가 열리면서 무색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느낀 것인지도 모른다. 멀리서 바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공상이 착란이 되어 육감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205~206쪽)

② "나는 말야, 사람이 죽었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초름한 생활을 생각해 보곤 한다. 물위에 띄워진 헐거운 생활이 더욱 헐거워져 버리는 걸 느낀다. 너는 그렇지 않나?"

관수는 황당하게 말하면서 한숨을 꺾어 내렸다.

"나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가슴이 뛰었다." (210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③ “그러면 승선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해야지.”

선장은 말을 흐리고 회의에 간다며 선주협의회 사무실 쪽으로 사라졌다.

(중략) 선우는 아득한 심해로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뒤돌아보면 10여 년간 배를 탔다. 그러한 경력은 이제 뱃일 말고는 다른 일에 무능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 말이 왜 공포로 느껴지는가. (213쪽)

실종된 어선의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구조 현황을 묻는 선우에게 해양경찰서의 순경은 “죽자고 말을 안 듣는 인간들, 당해도 싸지 싸. 안 그래?”라며 망언을 내뱉는다. 무선국을 통해 폭풍경보를 다 알려줬음에도 이들이 듣지 않았다며, “어선 침몰 사고는 기상을 무시하고 어획을 올리는 데만 눈이 먼 꼴통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다. 선우도 “그게 다 살잔 노릇 아니오. 먹고 사는 일이 편하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소.”(208쪽)라고 반박하지만, 저쪽의 흉흉한 기세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만다.

이 소식을 듣고 선우는 간밤의 꿈에서 물소리에 섞여 들려오던 절규를 생시로 듣는 느낌이었다고 여긴다(①). 관수는 뱃사람이 죽었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부로서의 ‘헐거운 생활’이 더욱 헐거워져 버림을 느낀다. 이들에게 바다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불길한 예감의 장소이다(②). 순경은 어선 침몰 사고로 죽어간 뱃사람들을 두고 ‘공것 탐하는 놈들’이라고 비난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과 처지를 같이하는 선우와 관수는 생존의 공포를 무릅쓰고서도 기어이 피항하지 않고 조업하려 필사적이었던 죽은 선장과 선원들의 심경을 깊이 이해한다. “고기는 씨가 마르는데” 고기잡이배는 “너무 많아 어항이 좁아 매어놓지 못할 지경”(212쪽)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왔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갈수록 벌이는 줄어들기만 해온 것이다. 선우는 문득 올려다본 “전선 위에 앉은 갈매기들이 바람에 밀리지 않으려고 날개를 펄럭이고 있는” 모습, “갈 곳이 없는지 처음 자리를 고집하려면서 내려앉은 그것들은 다시 떨어져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으로 몸의 균형을 잡으려”(212쪽) 하는 모습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다. 이처럼 선우와 관수는 죽은 뱃사람들처럼 자신들 역시 죽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과 실존적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던 것이, 일본과의 어업협정으로 일자리 유지마저 어려워지자, 선우는 '아득한 심해로 떨어져 내리는 기분'을 느낀다(③). 바다에서의 조업을 생업으로 삼은 이들에게 끝 모르게 아득한 바다는 근원적인 공포의 대상이면서도 자신을 살게 하는 애착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근대화 기획과 국가 간의 교류를 위시한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제주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바다를 빼앗는다. 이럴 때 빼앗긴 바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은 바다는 두려움과 이질감이라는 이중의 심상으로 온통 뒤덮인 절대적인 타자적 경관이 된다. 그러한 바다를 보며 항구부두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느끼는 비애감은 제주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실존을 자각할 때 느끼는 심상이기도 할 것이다.

> 그녀는 나둥그러져 구르다가 반사적으로 몸을 엎치면서 흩뿌려진 어물들을 끌어안았다. 재숙을 내두른 사나이는 그녀가 그러는 어물들을 심술 사납게 짓밟았다. 재숙은 사나이의 발을 몸으로 막으면서 악착스레 어물을 주워 모으려고 허우적거렸다. (중략)
>
> 그녀는 생명선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땅에 흩뿌려진 어물들을 한사코 그러안으려 허우적거리다가 그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은 채 사라졌다. (216~217쪽)

수협공판장 맞은편에 새로 생긴 수산시장의 건물 안에 점포를 낸 상인들은 건물 앞 노점상 여인들이 장사를 망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원성을 부려왔다. 이들의 요구에 시청이 좌판상들에게 철거명령을 내렸음에도 노점상들이 끝까지 버티며 철거하기를 거부하자, 수산시장 상인들은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노점의 어물(魚物)이 담긴 널빤지, 앉아 있던 여인들을 사정없이 끌어내고 걷어차기에 이른다. 인용문에서 '생명선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땅에 내팽겨쳐진 어물들을 그러안으려 허우적거리던 재숙의 모습은 목숨과 같은 생업과 양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삶의 터전이었던 항구와 바다를 자신들의 것으로 붙들어 쥐려는 제주 어민들의 사투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노점상이라는 직업은 재숙으로 하여금 이곳 항구부두에 디딜 공간조차 만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주지 않는다. 어물들을 한사코 그러안던 재숙의 모습은 선우에게 있어 그의 마지막 영상이 되며, "돈을 벌어올게요. 이대로는 살 수 없잖아요."(215쪽)라는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집을 나간 재숙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근대적 질서와 자본의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재숙은 항구에서 스스로 이탈하기를 택하였다. 이것은 경제·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이 공간에서 더는 지역인의 삶이 영위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어선부두」에서 묘사되는 선우의 바다, 재숙의 항구부두는 제주인들에게 타자 지향적이 된 공간, 무장소적 공간이 된 항구 주변의 훼손된 장소성을 보여준다.

「동거」의 원석이 체험하고 목도하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① 원석은 고개를 저으면서 뒤돌아보다가 별 수 없이 호텔을 나왔다. 그는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걸었다.

하, 세상 참, 그놈 사기치고도 남을 놈이야. 쉬파리처럼 날아들었다구? 냄새는 자기가 다 피워놓고서 쉬파리 잘못이라니.

하기야 이쪽도 이익을 얻고자 덤비긴 했지. 그런들 속은 자가 속인 자보다 어찌 죄가 더하겠는가. (중략)

그는 창고 앞 풀밭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릴리호가 떠나 버린 국제선 여객부두를 바라보았다. 상판이 설괴처럼 빛나던 배는 보이지 않았다.

원석이 지난날 부두로 내려갔을 때 호화여객선이 승객들을 내리고 선제를 걸쳐놓은 채 한가로이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방파제 가까운 부두에서 빨간머리 사내와 젊은 여자가 팔을 끼고 걷고 있기도 하였다.

온천사업이 제대로 되었다면 원석도 세계일주를 하였을 것이다. 그는 애절한 그리움으로 여정을 그려본다. 사람이 그리웠다. 어디론가로 멀리 떠나고 싶었다. (273~275쪽)

②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요번에 항구에 들어온 부정기 여객선 릴리호를 타고 온 거야. 그 배 엄청나다이. 내 친구는 상해에 살아. 옛날에 나와 중학교를 같이 다녔지. 놈은 섬을 나가 무지 고생했다이. 결국 성공했어. 나는 덜먹은 놈에 속아 망하고 저쪽은 정직하게 살아 성공했지. 그 친구가 요번에 나를 찾아왔다이." (중략)

원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걸 느끼면서 정직한 사람을 강조하면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278쪽)

인근 상점 앞이나 골목길을 기웃거리며 재활용품 폐휴지를 줍는 일에 열심인 원석은 가끔 10년 전의 옛날 일로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면 시가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거주하는 창고로 향한다. "칠머리동산을 향해 언덕길을 오를 때는 마음이 갈앉고 기쁨이 솟는" 것을 느끼며, 예전에는 부끄럽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이 수집한 폐지는 재활용가치로서는 최고의 것들이라고 자부심을"(261쪽) 가져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모아온 폐지 속에서 지방지 광고란에 실린 김윤전의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고 살아온 지난날이 무색하게 "단번에 속이 메스꺼워지고"(251쪽) 만다. 자신의 열등한 처지가 재인식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김윤전에 대한 엄청난 분노감에 휩싸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석은 김윤전의 장학회 행사장에 틈입하여 행패를 부리지만, 그 싸움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쉬파리처럼 뛰어들었다가 일을 그르치자 제 잘못으로 여기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람"(273쪽)으로 원석을 비난하는 김윤전으로 인해 "본전도 못 뽑은 싸움"으로 끝나고 만다. 그는 씩씩거리며 분해하면서 호텔의 행사장을 나오지만, 그런 와중에 앞뒤 재지 않고 이익만을 좇던 자신의 지난날도 인정한다. 원석은 '육지에서 행했던 수법 그대로 섬놈들을 속여먹은' 외지인들에게 자신의 권리가 뺏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는 자신 역시도 성공의 욕망으로부터 떳떳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안다. 이미 개발담론의 논리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석은 지금 망양정에서 불량한 행색을 한 어린 '외래자'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 그는 국제선 여객선이 오고가는 부두의 광경이 한눈에 보이는 칠머리동산 언덕을 오르며 망양정을 향하고, 이곳에서 불량한 행동을 일삼는 외래자들에게 정직하게 살 것을 훈계한다. 그러면서 그는 상해에서 정직하게 일해온 자기의 친구가 성공하여서 호화 여객선을 타고 자신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②). 딴에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성공하라는 취지의 말이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끓어오르는 원석 자신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①에서 '온천사업이 제대로 되었다면 원석도 세계일주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앞서 「진상 가는 배」나 「비극의 여객선」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섬을 떠나 신분 상승을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서 항구를 바라보고 이곳을 떠나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하는 원석의 모습은 섬사람들의 오랜 변방의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처럼 섬사람들의 땅이 육지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인식하는 한편, 정작 스스로 역시 개발 논리의 허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모순적인 원석의 처지는, 절멸과 반공 담론 이후에 제주에 도래한 개발담론과 그로 인한 상실감과 상승 욕망이 어지롭게 공존하는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았듯 「빌린 누이」와 「어선부두」에서는 각각 관광객의 화려한 행색으로 소란한 항구와, 한일어업협정의 여파로 빼앗긴 듯한 바다를 보며, 자신 자신이 이방인이 된 듯한 장소상실의 감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의 내면이 묘사된다. 「빌린 누이」와 「동거」에서는 개발 논리의 내면화로 인한 강한 출세 욕망과 그것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안에서 고통받는 인물들의 사정이 그려진다. 이처럼 오경훈은 「빌린 누이」, 「어선부두」, 「동거」를 통해 근대적 자본주의 이후에 무장소화된 제주도의 상황과, 그로 인해 제주 사람들의 장소감이 훼손되고 상실되어가는 모습을 항구 주변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내면 인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4) 저항정신과 공동체주의의 확장

제주의 근현대사를 다룬 여덟 편의 연작들은 무장소화된 공간 안에서 어김없이 장소성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제주인들의 생활상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오경훈은 「탑동광장」과 「항구다방」에서, 4·3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현재의 항구 주변에 일견 상실된 듯하였던 제주민들의 '항거'의식을 새로운 형태로 불러들인다.

특히 이 작품의 주요 장소로 선정된 탑동광장의 장소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 오경훈은 관광개발의 논리에 의해 변질된 탑동광장의 무장소성을 작품 초입부터 부각함으로써, 이러한 논리에 반대하는 범도민적 사회운동으로서 탑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운동이 그 대척점에 있었고, 이러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국가와 개발업체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묵살되었던 정황을 에둘러 드러내 보인다. 이때 19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탑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은 4·3항쟁 이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앙권력에 대해 제주 시민들이 수십 년 만에 조직적으로 맞선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제주에 '주민'이라는 주체가 이 운동을 기점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해질 만큼[169] 강한 조직력과 의식을 가졌던 탑동 매립 반대운동은, 이제 그보다 복합적인 층위의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확장되고 연장된다. 오경훈은 개발담론에 의한 매립지로서의 탑동광장을 부각시킨 다음, 이어 '화순항 해군기지 유치'[170] 문제를 둘러싸고 각축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탑동광장을 새롭게 소환하고 있다. 뜨거웠던 매립 반대 운동의 열기 위에, 화순항 해군기지 반대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이 덧씌워지고 있다. 국가 주도의 개발담론의 폭력 위에, 세계제국주의의 식민적 폭력이라는 또 하나의 층위가 들어서 있으며, 전근대 시기에 이러한 자국과 외세의 폭력에 민란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항거해온 제주민들의 저항의식은 이제 사회운동이라는 보다 온건하지만 조직화된 형태로 부활되어 표출된다.

① "왜? 힘이 있어야 평화 유지도 통일도 이루어지는 거야. 북쪽은 믿을 수 없어. 힘으로 누르지 않으면 안 돼."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불쑥 솟구쳤다.

"생각이 왜 그리 굳어지고 말았나요?"

"뭐라? 생각이 어쩐데?" (중략)

"아버지, 제가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토론회에 나가면 군사기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군사기지 발상보다는 국가적 규모의 평화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위에 참가하시면……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아는 젊은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리 되면 진보단체의 표를 끌어내기는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239~240쪽)

---

169) 정영신,「제주 탑동매립반대운동의 정치과정과 주체 형성 - 주민운동에서 범도민운동으로」참조.

170) 서귀포시 강정동이 해군기지 유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기 이전에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지역. 당초 정부는 1994년 안덕면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2002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제주도민대책위와 안덕면 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도민의 58.2%가 반대하고 제주도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 속 2002년 12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은 유보되었다. 이후 남원읍 위미1리와 강정동이 물망에 올랐다. ; 강정인권침해조사단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2, 8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②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보수단체의 군사기지 유치 움직임에 반대하여 진보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티크 계단 무대에서 마이크를 든 자가 이리저리 몸을 돌리면서 연설을 하였다.

상민은 광장의 뒤편 파고라 평상에 앉아 목의 땀을 닦았다. 노숙자 한놈이 평상 구석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다.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거리의 청소부들이 입는 엑스밴드 조끼를 입고 있었다. 몸을 새우등처럼 오그리고 굳어버린 듯이 누워 있는 그는 맨발로 걸어다녔는지 새까만 발바닥이 반질반질 빛을 내고 있다. (243쪽)

앞에서도 보았듯 참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상민은 아직도 반공이 최우선 가치인 냉전 질서에 살고 있는 인물이며, 미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에 강하게 복속되어 있다. 반면 상민의 아들은 그와 대립각에 서 있다. 진보진영 쪽에 속해 있고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에 반대하며, 군사기지보다는 평화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다(①). 그는 선거 때 아버지로 인하여 자신이 진보 쪽 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부디 집회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 전쟁의 기억에 매몰되어 여전히 체제순응적 정치관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닌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제 그런 시대는 저물었다고 말한다. 상민은 탑동광장에서 진보단체들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반대집회에서 흘러나오는, “군은 기동함대 작전기지를 제주도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드나들 항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주도는 어찌 되는 걸가요. 대통령이 선언한 평화의 섬은 어디로 가고 군사기지화된 섬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243)라고 외치는 연설을 듣는다. 소설은 국가주의적 기억을 안고 있는 이들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순응의 기조가 저항의 기조로 세대를 거쳐 바뀌어가는 제주섬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기지화의 오랜 역사의 상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제주인들의 오랜 항거의식이 은근하게 녹아 있다.

이때, 여기서 작가 오경훈이 보여주려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시각에 명백히 편을 들어주는 이념성이라기보다는, ②에서 보듯 그러한 여러 생각과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어 제주인들의 숨결이 녹아든 ‘장소’로서 새롭게 되살아난 탑동광장이란 공간 자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노숙자들과 주민, 진보단체, 보수단체 등 서로 상충하는 집단들과 온갖 인물 군상이 소란스럽게 얽혀 있다. 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되살아나고 거침없이 발설되는 공간에는 무장소화로 상실되었던 장소성이 새롭게 부여된다. 이렇듯 근대국가에 의해 기획된 무장소성 안에서 자생적으로 복원해낸 장소성은 제주 사람들이 오랜 기간 간직해온 공동체주의와 저항 의식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 〈제주항〉 연작의 가치가 있다. 이처럼 절멸과 반공의 시대를 거쳐 소멸된 줄 알았던 항거의 장소성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사회 저변에 깊숙이 묻혀 있다가, 현대적 무장소성이 안보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다시금 훼손하려 할 때 이에 대항하는 저항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구다방」에서는 「탑동광장」에서 부각된 항거의식과 장소성이 항운노조 비리 문제와 항구다방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한층 강화되어 나타난다. 항운노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나'가 철망 구멍으로 하역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옛 부두꾼 박노순이 다가와서는 '나'에게 추궁하는 것으로 작품은 시작된다. 이때 박노순은 뒷돈질로 자신의 아들을 항운노조에 들여보냈다고 항통에 투서를 했느냐고 화를 내면서, '나'에게 이따 항구다방에서 보자 한다. 약속 장소에는 박노순이 아닌 그의 아들이 나왔는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몰려 불쾌해진 '나'는 박노순 대신 아들에게 항운노조 전반에 대한 불평을 쏟아낸다. 그 말을 듣고 노순의 아들은 그런 행태들은 노조의 윗선들이 해온 일이라며, 이젠 자신들이 그들과 싸울 것이라 이야기한다.

① "모순을 알아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는 완력이 지배하는 곳이 그곳임을 알고 있나요? 노조가 구정물 속이라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겠지요?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노조에 가입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서류 심사, 면접 그따위 필요 없어요. 모두 통과예요. 오랫동안 철옹성 속에서 안주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몇몇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노조 속에서 노무자를 위한 일입네 하면서 뒤로는 횡령과 협잡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직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해 온 노동자의 입장을 아십니까. 주먹들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건 알고 있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말아야 했던 과거였어요. 가슴앓이를 한 노무자를 좀 이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과거의 일이라고 변명하는 건가."

"그럼 이것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과거의 노조간부는 노조를 자신을 추종하는 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력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자의 고혈을 빠는, 노동귀족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정말 묘한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려는 것입니다. 노무 공급을 공평히 하고 필요 없는 전임자를 조치하고 노동을 대가로 하역 업무 전반에 걸쳐 어떤 비리에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조 운영에 평노동자를 참여시키고 직선제 감사제 탄핵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해서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겁나서 입을 열었다간 부둣가에서 맞아죽을까 봐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싸워나갈 것입니다."(245쪽)

② "하, 그럴 때가 있지.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야. 내 속에는 항상 나를 억압하는 적이 있어. 내 가슴판은 항상 싸움터야."

"실은…… 나도 그래. 자신도 모르는 새 중얼거리고 있는 걸 발견하고 놀라곤 하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나는 쉴 새 없이 싸움을 벌이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숨이 차오르곤 해. 숨이 차올라."

박노순은 어깨를 털썩 내리는 모양을 보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뭣하지만 자네니까 털어놓는 건데, 나는 사실 자식을 겨우 취업시키고서 그놈도 나처럼 일찌감치 실업자가 돼버리지 않나 걱정되어 뒤를 지키고 있다네. 아들이 오늘도 주먹을 쥐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지. 그놈은 악법철폐, 임금쟁취, 뭐 어쩌구 하면서 혼잣소리를 내는 거야. 그놈도 싸우고 있는 거지. 자신들 조직 속의 부패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 양면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야."

"그래도 옛 부두꾼이 도와줄 일은 없을걸. 여기 나와 있다고 무슨 일이 되겠나. 파업을 하면 뛰어들어가 말리겠는가."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어."

"파업을 한대도 모가지는 붙어 있을 테니 안심하게. 전국이 연대해서 할텐데 모두 모가지를 자를 수는 없잖아."(255쪽)

①에서 '노조가 구정물 속'이라고 말하는 아들은 그곳이 '주먹들이 지배하는 곳'이기에 그동안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못 본체해야 했던 평노조원들의 고충을 성토한다. 평노조원들은 부둣가에서 맞아죽을까봐 모순을 알아도 입을 다물어왔다는 것이다. 간부들을 위시하여 주먹에 의해 지배되는 부조리한 노조사회의 구조는 반공의 논리를 빌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구하였던 국민국가의 폭력성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그리고 노순의 아들은, 이제 이런 노조간부들이 '노동자의 고혈을 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부조리한 상황에 더는 참지 않고 앞으로는 무섭더라도 싸워나갈 것임을 확고하게 밝힌다. 그는 평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공급에 있어 공평하고 어떤 비리도 접근할 수 없는 민주적인 노조로 자신들이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②에서 노순과 '나'는 자신들이 끊임없이 실체 없는 적과 싸운다고 느끼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노순은 '내 속에는 항상 나를 억압하는 적이 있'다면서 내 '가슴판은 항상 싸움터'라고 말한다. 그리고 노순은 자신의 아들도 자신처럼 싸우고 있다면서, 아들이 조직 속의 부패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 양면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전 세대의 부두꾼인 아버지 노순은 본인이 노조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는 아들의 행보를 응원하면서도 부디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되기만 바라며 몸 사리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은근하게 녹아 있는 싸움의 의지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아들에게로 계승되어 구체적인 행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화선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늘 투쟁의 의지가 인식 기저에 깔려 있는 모습을 오경훈은 '나'와 노순의 대화를 통해 제주민 공통의 속성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그것은 "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체념과 생사의 판가름을 하여야할 궁지에 처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맹진(猛進)하는 성격"으로서의 "도민의 이율배반의 심성"[171]을 대변한다. 그러한 집단심성의 현재적 구현 양상으로서, 최근 들어 제주항운노조 윗선에 대항하는 새로운 항만노조의 압력으로 오랫동안 염원해온 항운노조의 독점 체계 철폐가 느린 속도이지만 해소되고 정상화되어가는 모습[172]은 이전의 탑동매립반대운동이나, 최근 2공항 반대운동과도 겹쳐지는 면이 있다.

항구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무장소성의 기획에 따라 만들어진 장소상실의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부두 근처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하나둘 모이는 과정에서 무장소화된 공간 안에도 장소성이 생겨날 여지가 있다.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박노순 아들의 발화는 중앙권력과 경제체제에 의탁해 항구부두를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그 안에 발화권을

171) 고창무, 「한라산은 고발한다」, 『조선일보』, 1960.07.16. ; 박찬식, 앞의 책, 219쪽에서 재인용.
172) 최근 들어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제주항운노조(항운노조)의 독점 체계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제주항만노조(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가 제주도의 신규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이동건, 「수십년 항운노조 제주항 독점 깨지나…제주도 '패소'」, 『제주의소리』, 2021.09.28.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말살해온 독점적 항운노조에 대한 반발이자, 제주섬이 아주 오랫동안 지녀온 항거의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한편, 「어선부두」와 「동거」, 「탑동광장」은 제주항 주변 마을에서 싹터온 외지인과 내지인 간의 상생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이를 두고 제주섬이 자생적으로 지녀온 공동체주의가 개방 이후 새롭게 변용되어 독특한 공동체성으로 확장된 것으로 그리고 있다.

> 선우가 속았단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선 다른 소리가 있었다. 어물장수 아내는 살아보고자 땅바닥을 기었다. 폭력에 맞으면서도 비린내 나는 어물을 그러안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무능한 남편은 어찌해야 하는가… 선우는 외지 사내의 말에 현혹이 있었다 해도 가만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
> 저쪽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진실일 것이다. 선우는 사나이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조요청을 받은 뱃사람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
> 그는 관수를 기다리면서 속소리를 중얼거렸다. 믿어야지. 어찌하겠는가. 괴롭고 가뿐 사람이 믿지 않고 어찌 살겠는가.
>
> 선우는 오징어 먹물 같은 연기를 피워올리며 사나이를 싣고 떠나는 여객선의 뒷모습을 눈앞에 떠올려보는 것이다. (227쪽)

「어선부두」에서 아내를 잃고 방황하며 찾아다니는 선우에게는 한 사내가 다가온다. 여수 선적의 연승어선을 탔었다던 그는 제주항에 물건을 내려놓고 잠시 내린 사이에 배가 그를 내버려두고 떠나버려 부두에 남겨졌다 한다. 고향 목포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선우는 자신이 아내를 찾아줄 터이니 다소의 여비를 대달라고 요구하는 사내에게, 기꺼이 가진 돈 6만원을 털어서 준다. 후에 친구 관수가 와서 왜 그리 빤해 보이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냐고 추궁한다. 선우 역시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수산시장의 상인들에게 매를 얻어맞으면서도 '비린내 나는 어물을 그러안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재숙의 몸짓을 잊지 못하고 자신이 무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선우는 아내가 부르던 '제주항을 잊지 마세요' 따위의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사내를 보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그를 보며 같은 '뱃사람'으로서 그의 '구조요청'을 차마 무시할 수 없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원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걸 느끼면서 정직한 사람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중략)

"너희들 말야. 가진 거 없어도 절대 나쁜 짓 하지 마라. 정신 하나는 훌륭히 가져야 한다이. 알았지? 왜 대답이 없어?"

"알았어요—."

한 놈이 빽 소리를 지르고는 건하품을 한다.

"그래야 사람 되는 거여. 맘씨 하나는 저 바닷바람 같이 맑아야 해." (278~279쪽)

「동거」에서 원석의 창고 공간에는 사회로부터 낙오된 '외래자' 불량 청소년들이 들이닥친다. 이들은 강퍅하고 경직된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제주로 내려온 이들이다. 불량한 행색을 하고 있지만 저마다의 꿈을 갖고 있다. 원석은 외래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절대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정직하라며 훈계한다. 그러면서 니들이 착하게 살면 가진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한다. 정작 자신은 이미 자본의 논리에 깊게 동화되어 성공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후세대인 이 아이들만은 부디 정직하게 살아가 '바닷바람같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는 "제주항 근처의 남루한 삶의 현실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삶의 희망으로 봐도 좋을 것"[173]이다.

"옵스큐라 델라 포르타 리플렉스—."

노숙자는 괴상한 소리를 내었다.

"소플레스 라이카 롤라이플렉스 다게레오 니코 무비. 짤깍 짤깍 차르르르 찰칵." (중략)

상민이 의아해하자 엑스밴드 조끼를 입은 노숙자가 그의 옆으로 기어왔다.

"저 친구 말예요, 옛날에 카메라 장사 했어요. 잘나가다가 망했다구요." (중략)

"저 친구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사진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사진사가 되겠다구? 그런 것이라면 좋지."

상민은 콧소리를 내불며 웃다가 이내 정색하고서 벌썩 평상에서 내려섰다. (중략)

"볼트액션 브라우닝 엠원 엘엠지 카빈 엠투. 드르르륵 드르륵 따따따따따 드르륵—. 옛날에 나는 이랬지. 사정없이 깔겨댔지. 최근까지도 마음속에서 그 흉내를 내었어."

173) 고명철, 앞의 책, 25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동작을 멈추고 잠시 눈꺼풀을 내렸다. 그는 이마빡을 탁 치면서 말했다.

"그러나 과거만으로는 사람 구실을 못해. 뭔 말인지 알겠어?" (중략)

"짜식아, 너도 뭘 해봐야 할 게 아녀. 술동냥을 해다가 눈퉁이가 붓도록 퍼마시고 잠만 자면 사람 되나. 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구? 지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간 광고지 봤어? 양식장 같은 데서 매번 구인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구." (244~246쪽)

「탑동광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노숙자들의 존재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오경훈은 탑동광장에 더러운 인분 냄새를 몰고 다니는 노숙자들을 한 축에 배치해두고 있다. 무엇보다 근대적 문명담론 하에 '공중위생'을 근거로 더럽고 발전되지 않은 곳은 바꿔야 한다는 발상이 제국주의 식민화 정책의 하나였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오경훈은 탑동광장에 문명담론이 유포한 근대성, 개발독재체제가 유도한 국가주의, 세계제국질서가 공고화한 식민주의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층위의 국가주도적 담론이 반영되어 있는 무장소성을 설정해두고, 그것의 반대급부인 노숙자들의 존재, 매립반대 운동,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을 의도적으로 병치함으로써 지배담론에 저항하는 대항담론적 성격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에서 낙오된 자들에 대한 따뜻한 작가의 시선은 여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집회가 한창인 한귀퉁이에서 어떤 노숙자는 '옵스큐라 델라 포르타 리플렉스—.'라며 괴상한 소리를 낸다. 그를 이상하게 여기는 상민에게 다른 노숙자가 다가와서는 저 친구는 다음에 사진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면서 그가 사진사의 꿈을 안고 저런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상민은 그걸 보면서 비웃다가도 이내 그를 연민한다. 그러고는 정작 자신도 전쟁 당시의 옛 기억을 담아 '볼트액션 브라우닝 엠원 엘엠지 카빈 엠투. 드르르륵 드르륵 따따따따따 드르륵—.'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보는가 하면, '과거만으로는 사람 구실을 못해'라며 과거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노숙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한다. 이를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낙오된 노숙자이거나 전장의 소모품으로 활용되어 부상당한 몸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도 꿈이 있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일깨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연대 지향적 가치관과 희망에의 작가의지가 「탑동광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탑동의 장소성을 매개로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오경훈은 근대적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로 장소를 상실한 지역민들의 애환을 담아내면서도, 그 안에서 애써 희망의 불씨를 피워내는 이들의 낙관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연대의식이 '외지인'들을 향해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어선부두」의 바다 옆 부두와 「동거」의 망양정, 「탑동광장」의 탑동광장은 상생과 연대의 가치로써 새롭게 발휘될 수 있는 장소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제주 사람들을 짓눌렀던 섬의 개방성이 다시 이들에게 낙관을 갖게 하는 계기로 다가온다는 역설은, 개방의 숙명 안에서 절망 이면에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섬사람들의 의지를 표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무엇보다, 섬에 내재한 저항의 동력이 세대를 거쳐 언젠가 발휘되어 섬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주기를 바라는 작가 자신의 간곡한 의지의 반영이 아닐까 한다.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주의는 외지인과 내지인 간 상생과 연대를 추구했던, 연작의 첫 시작이었던 「객사」 속 노봉의 지향점과 상응한다. 이것은 개항을 통해 말살된 제주의 장소성이 다시 개항을 통해 자생적으로 복원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작가의지의 반영일 것이다.

이렇듯 〈제주항〉 연작은 제주에 대한 여러 공간 인식 표상이 시공간의 층위를 넘어서서 다채롭게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작가는 외부에 의한 무장소성 안에서 자생적으로 키워나가는 장소성 혹은 대항담론적 가능성을 발굴해내는 작업에 관심이 있는 듯하다. 그럴 때, 섬에서 발생되어온 갖가지 사건들을 그 안에서 사유하지 않고 의미의 지평을 넓혀 전체 관계망 안에서 확장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섬에 내재된 핵심적인 공간 인식이 중층적으로 얽힌 제주항 부두의 장소성을 불러들인 데서 나온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제주문학이나 지역문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주항〉 연작의 의의와 위상이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결론

이 연구는 오경훈이 2002~2006년에 발표한 12편의 〈제주항〉 연작소설을 제주항 포구와 그 주변 장소 속 역사와 일상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연작에 나타나는 제주항 주변의 장소성이 제주의 지역사,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심성구조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통해 제주 작가로서 오경훈이 지닌 작가의식을 도출해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작가 자신과 제주 사람들에게 항구와 바다가 어떻게 인식되어왔으며, 이것이 제주문학이 갖는 지역성의 한 단면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제주'에 대한 여러 층위의 공간적 인식과의 관련 속에, 연작 속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와 역사를 '제주항'의 장소성 말살/형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런 방식을 통해 제주의 지역성(locality)이 총체화되고 재의미화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과 비애감으로 범벅된 제주항 앞바다가 오경훈의 문학 안에서 반복적으로 형상화되어온 것은 그곳이 그 자체로 작가 자신의 심상이 반영된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가 개인의 내면적 인식일 뿐 아니라 지역문학으로서 제주문학이 갖는 지역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섬으로서의 고립감과, 다른 세계로 향하는 열망을 양가적으로 갖게 하는 이른바 '변방'의식의 온상지로서 제주항과 바다가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항은 그 장소가 지닌 현장성과 역사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에 따라 '변방', '항거', '절멸', '반공', '개발', '상생'의 등의 공간적 인식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오경훈은 연작 속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특정 시공간의 층위를 막론하고 복합적으로 얽히고 현재화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하나의 공간 안에 누적되어온 무장소성과 장소성의 길항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셋째, 〈제주항〉 연작은 이러한 공간 인식을 바탕으로 '개항 전후-해방 직후-개발 이후'의 제주항 주변의 장소성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었다. 이때 연작의 형식을 통해 작가가 선정한 제주 근현대사의 몇 가지 국면들이 제주항 주변 장소를 중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도입되는데, 먼저 외부로부터 주어진 사건들을 통해 무장소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행동양식과 내면 인식이 장소상실과 장소감으로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살피면, 먼저, 개항을 전후로 하여 근대 이행기를 배경으로 삼은 작품들은 제주항과 그 주변 장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공물과 진상을 위한 '내부식민지'로, 개항 이후 중앙권력과 제국권력의 '이중식민지'로 취급되어온 실정을 그려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제주 사람들의 심성구조가 식민성 내면화(변방의식), 항거의식, 상생 의지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어온 양상을 부각하였다.

다음으로, 해방 직후의 국면들이 액자식 구성을 통해 도출되는 작품들은 4·3과 한국전쟁의 비극으로 제주가 '절멸'의 땅, '반공'의 보루로 전락하였던 상황을 그려내었다. 이런 절멸과 반공의 기억들이 현재의 제주항 주변 상황과 교차하면서, 연작은 제주 사람들의 인식이 인정 욕망과 기억투쟁, 간접적 저항의지로서의 대항기억으로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개발 이후의 상황에 집중하는 작품들은 절멸과 반공의 층위 위에, 개발이라는 공간 인식이 새롭게 들어서 제주항을 잠식해나간 실정을 보여주었다. 연작은 개발의 파토스라는 이름으로 변용된 주민들의 식민성 내재화 양상과, 한편으로 외지 자본과 인구 유입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겨가는 주민들의 장소상실감을 대비적으로 묘사하였다. 아울러 그 안에서 섬의 오랜 공동체성으로서의 항거의식과 상생 의지가 면면히 출몰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모습도 그려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작의 서사 전략을 통해, 〈제주항〉 연작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주항〉 연작이 제주의 지역문학사 안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자가 도출한 결론이다.

첫째, 오경훈의 〈제주항〉 연작이 갖는 차별성은 제주문학의 주요 소재인 4·3뿐 아니라 그 이전의 전근대사와 이후의 현대사를 두루 포괄하는 제주인의 삶을 '항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제주라는 공간을, 특히 '섬'으로서의 근원적인 이중 속성과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정학적 맥락, 인본지리학적 맥락을 '항구'라는 탁월한 상징공간을 활용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경우는 일찍이 제주문학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전근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역사적 시간과, 출륙 금지령부터 항운노조 비리에 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르기까지의 다채로운 사건들, 상이한 시공간적 층위를 사는 인물들의 서로 다른 생활세계와 정신세계가 항구라는 장소를 매개로 유기적으로 접합되고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항을 환유한 제주섬의 (무)장소성 부각을 통해 미시적인 사건들과 역사들을 그 안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더 큰 역사적 지평 안에서 확장적으로 사유하게 한다는 점이다. 연작이라는 소설의 내적 형식은 이러한 담론적 연속성을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서사들을 통해 하나의 공간(제주항) 안에 모아내고, 통합적이면서 이질적인 서사체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써 그 담론적 지평을 확장시킨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주섬의 단편적인 역사적 비극들과 섬사람들의 현재적 사건들은 거대한 시간적 층위에서,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공간 인식상의 연관고리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된다. 이로써 〈제주항〉 연작은 외부로부터의 무장소성에 대항하는 공동체주의와 항거의식 또는 대항담론의 가능성이, 각각 독립된 것들이 아니라 총체적인 '지역성'의 한 모습들임을 입증시켜 주었다.

셋째, 작가는 이러한 지역성의 일면으로 제주인의 보편적인 심성구조로서의 '항거'과 '상생'의 의지를 각별하게 강조하였다. 구한말 수탈과 이웃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장두가 되는 어민들과, 4·3의 한을 씻지 못해 폭력의 장소로 계속해서 되돌아와 기억을 복원하고자 하는 인물, 물리적 폭력이 개발독재의 담론으로 전이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는 인물, 개발바람의 여파로 새롭게 생겨난 이주 공동체와의 연대를 도모하며 상생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 거대한 항운노조에 대항하여 싸움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다짐 등은 모두 개방의 풍파를 한몸에 맞아온 섬의 항구부두에서 제주 사람들이 키워온 오랜 심성구조의 축적물이다. 이것은 제주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장소성의 다른 말이며, 계속되는 외부의 폭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상생을 도모한 '제주정신'의 다른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개항 이후 섬이 지녀온 복합적인 맥락들을 살펴나가며 작가 오경훈은 제주 섬의 현재를 묻는다. 단일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뛰어넘는 서사적 기법을 동원해 지역사의 관점에서 제주의 역사를 재의미화하는 시도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서술이 아니며, 작가가 지역에 대해 견지해둔 인식과 그간 쌓아올린 작가 스스로의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서술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항〉 연작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에 멈춰 있는 작품이 아니라, 개항 이후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담론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온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이다. 이를 '제주항'과 그 주변 장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무장소성과 장소성의 충돌 양상으로 포착하여 그려내는 방식을 통해 지역의 역사는 작가의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화된다. 이는 그것이 사실에 대한 '재현'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문학하는 자가 얼마나 그 지역에 몸담으며 장소에 담긴 무의식적 층위를 세심하게 간파해오며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는가 하는, 작가의식의 윤리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오경훈, 『제주항』, 도서출판 각, 2005.

———, 「객사 - 제주항 1」,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8호, 실천문학사, 2002년 상반기.

———, 「모변 - 제주항 2」,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9호, 실천문학사, 2002년 하반기.

———, 「아, 제주항」, 민족문학작가회의 편, 『내일을 여는 작가』 통권 31호, 작가회의 출판사, 2003년 여름호.

———, 「빌린 누이 - 제주항 3」,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0호, 실천문학사, 2003년 상반기.

———, 「동거 - 제주항 4」,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1호, 실천문학사, 2003년 하반기.

———, 「기념탑 - 제주항 5」,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3호, 실천문학사, 2004년 하반기.

———, 「어선부두 - 제주항 6」,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4호, 실천문학사, 2005년 상반기.

———, 「탑동광장 - 제주항 7」,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5호, 실천문학사, 2005년 하반기.

———, 「진상 가는 배 - 제주항 8」,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6호, 실천문학사, 2006년 상반기.

———, 「항구다방 - 제주항 9」, 제주작가회의 편, 『제주작가』 17호, 실천문학사, 2006년 하반기.

2. 단행본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지방자치 지방문화 지방언론의 정치학, 내부식민지론』, 개마고원, 2008.

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 편. 『健入洞誌』, 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 1996.

고명철, 「제주 항포구의 창조적 저항과 응전 - 오경훈의 연작소설 『제주항』」, 『문학의 중력』, 도서출판b, 2020.

김동윤, 「변방의 한계 혹은 변방의 가능성 - 오경훈론」,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 「항구에서 꿰어낸 섬의 운명과 역사 - 오경훈의 연작소설집 『제주항』」, 『기억의 현장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재현의 언어』, 각, 2006.
———,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김동현,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글누림, 2016.
김은희,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김태림, 「항만」,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 『濟州道誌 제4권: 산업·경제』, 제주도, 2006.
데이비드 하비, 『희망의 공간』, 최병두 역, 한울, 1993.
마루타 하지메, 『장소론』, 박화리·윤상현 역, 심산, 2011.
문재원, 「문화전략으로서의 장소와 장소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박경훈, 『박경훈의 제주담론 1』, 도서출판 각, 2013.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
박태일, 「지역문학의 현실과 과제」,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서영채, 『풍경이 온다』, 나무나무, 2019.
심승희,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과 현대 경관」,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05.
C. 더글라스 러미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김종철·최성현 역, 녹색평론사, 2011.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 4·3항쟁의 배경 - 제주도 인민위원회,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88.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05.
오경훈, 「문학적 자화상 - 다시 시작하기」, 제주작가회의 엮음, 『제주의 작가들 2』, 심지, 2005.
———, 「나의 등단기 - 옛 이야기」, 『제주작가』 31호, 제주작가회의, 2010 겨울.
이동근·한철환·엄선희, 『역사와 해양의식 – 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역, 대윤, 2007.
임홍배, 「베트남전쟁과 제국의 정치」, 황석영, 『무기의 그늘』 하, 창비, 1992.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30년사』, 199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Ⅰ』, 제주도, 2004.
제주작가회의 엮음, 『제주의 작가들 2』, 심지, 2005.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주희춘,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2008.
허호준, 『4·3, 미국에 묻다』, 도서출판 선인, 2021.
현길언, 「바다와 섬의 문학성과 문학의 본질성」, 제주국제협의회·제주시 편,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도서출판 오름, 1999.
홍기돈, 「동백꽃 보며 장두를 떠올리다」, 『문학의 창에 비친 한국 사회』, 삶창, 2020.
황경수, 『제주교통사 소고』, 온누리, 2004.

3. 논문·평론·기타

강유인화,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사회와 역사』 97권, 한국사회사학회, 2013.
강정인권침해조사단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2.
고영자, 「제주 산지항, 포구의 신 풍속도…제주사람에 익숙한 '서부두'」, 『제주의소리』, 2020.01.23.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동윤, 「섬의 고투를 조망한 등대지기의 혜안」,『귤림문학』 15호, 2007.
———, 「제주의 문예지 약사(略史)」, 『제주작가』 20호, 심지, 2008년 봄.
김동현,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공간 인식의 로컬리티와 서사적 재현양상 - 『화산도』와 『지상에 숟가락 하나』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3집, 2016.
김아람, 「한국전쟁기 제주도의 공간적 인식과 이주·개발 정책」, 『동악어문학』 75집, 동악어문학회, 2018
김영화, 「독자의 상상력과 작가의 상상력」, 『현대문학』 1987년 8월호.
김오순, 「화북포구에서 제주성(城) 안까지 옛길을 걷다」, 『제주발전포럼』 제38호, 제주발전연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원, 2011.
김윤식, 「남의 목소리, 내 목소리, 또는 주변적인 것」, 『문학사상』 1988년 3월호.
백선혜, 「장소 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송기섭, 「장소의 생성과 지역문학」, 『국어문학』 75집, 국어문학회, 2020.
신지은, 「장소의 상실과 기억: 조르쥬 페렉(Georges Perec)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5집, 한국사회학회, 2011.
신진숙, 「'항구도시'를 통해 본 식민지 감각의 체계 - 1930년대 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심호섭,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에 대한 주월한국군의 인식과 대응 - 제2대 사령관 이세호의 역할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120권, 백산학회, 2021.
염미경,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제주도연구』 35권, 제주학회, 2011.
———, 「산업화 시기 제주로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 적응 전략으로서 지연공동체 형성과 변화」, 『용봉인문노총』 58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염미경·문순덕, 「산업화시대 이주자 공동체로서 향우회의 역할과 변화」, 『한국민족문화』 6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오미란, 「'연봉 7000만원' 제주항운노조 37년 제주항 독점 깨지나」, 『뉴스1』, 2021.10.18.
오어진, 「제주 해양소설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윤충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월 관계에서 한국의 "정체성 만들기"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를 향한 열망 사이에서」, 『담론201』 9권 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이동건, 「수십년 항운노조 제주항 독점 깨지나…제주도 '패소'」, 『제주의소리』, 2021.09.28.
이상철, 「제주도의 개발과 사회문화변동」, 『탐라문화』 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임헌영, 「중간계층의 현실대응」, 『현대문학』 1989년 7월호.
정영신, 「탑동매립반대운동과 그 이후의 30년을 생각한다 - 탑동매립반대운동의 정치과정」, 『제주대신문』, 2018.11.15.
———, 「제주 탑동매립반대운동의 정치과정과 주체 형성 - 주민운동에서 범도민운동으로」, 『사회와 역사』 130집, 한국사회사학회, 2021.
조정희,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성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진선희, 「〔제주바다와 문학〕 (3) 오경훈 연작소설 '제주항'① 어민 장두의 외침 "용감히 일어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한라일보』, 2019.05.10.

한승철,「역사 속의 제주 물류」.『제주발전연구』12호, 제주발전연구원. 2008.

현미애,「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항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황경서·안치용,「〔청년의 죽음, 역사의 눈물〕 ⑦ 월남전 - 폭력적인 편가르기에 희생된 한국과 베트남 청년들」,『르몽드티플로마티크』, 2020.12.08.

황경수,「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탐라문화』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3.

허호준·석진환,「제주항운노조 '대를 이어 채용'」,『한겨레』, 2005.04.15.

홍기돈,「근대 이행기 민족국가의 변동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 - 현기영의『변방에 우짖는 새』,『바람 타는 섬』을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6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고영철의 역사교실(http://jejuhistory.co.kr)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701&tabId=03&levelId=hm_115_0040)

제주시, 디지털제주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jeju/toc/GC0070013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147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Oh Kyung-hoon's serial novel, <Jeju Port>

Soyo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Jeju Port>, a series of novels by Oh Kyung-hoon from 2002 to 2006, focusing on Jeju Port and its surrounding spac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placeness around Jeju Port, which appears in a series of <Jeju Port> is related to the local history of Jeju and the mental structure of Jeju people. Furthermore,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reveal Oh Kyung-hoon's author consciousness as Jeju writer. For this, first of all, I first examined how the port and seas have been recognized by the writer himself and the Jeju people, and how this shows one aspect of the locality of Jeju literature. Next, in connection with various spatial awareness of 'Jeju island', I examined the life-world and history of Jeju people in the work in terms of the destruction/formation of the placeness of Jeju Port. In particular, in terms of destruction/formation of placeness, it was intended to reveal the aspect of totalization and re-meaning of Jeju's locality by overlapping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solving and weaving them into individual microhistory.

First, the sea in front of Jeju Port, which is full of optimism and sadness, has been repeatedly embodied in Oh Kyung-hoon's literature because it was a landscape that reflected the a mental picture of a writer. This is not only an individual's internal awareness but also shows one aspect of the locality of Jeju literature. It is said that Jeju Port and the sea were embodied as hotbeds of the marginal consciousness that gave both a sense of isolation as an islan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d a desire to go to another world.

Second, Jeju Port is closely related to the reality and historicity of the place, and accordingly, it appears in the work with the awareness of 'marginality', 'resistance', 'extinction', 'development', 'anti-communism', and 'coexistence'. In a series of works, Oh Kyung-hoon effectively embodies the antagonism of placelessness and placeness that have accumulated in one place by showing that such spatial awareness is complexly intertwined and present beyond time and space.

Third, the <Jeju Port> series draws concretely the placeness around Jeju Port in 'before and after port opening -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 after development' based on this spatial awareness. At this time, several situation of Jeju'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selected by the author through the form of a series are introduced centered on the places around Jeju Port. It is confirmed that they appeared in contrast with placelessness and sense of place.

From what we've seen so far, the discrimination of Oh Kyung-hoon's series of <Jeju Port> is that it describes the life of Jeju people, which encompasses the previous pre-modern history and the later modern history, focusing on 'port' the main material of Jeju literature. Jeju's fundamental dual nature as an 'island', the geopolitical context and humanities context that work in combination within it are embodied in detail by mediating an excellent symbolic space called 'port'. In other words, it stands out in that the long historical time from pre-modern to the present, various events from ban on migration to the mainland to corruption of port transportation union, and different life-worlds and mental worlds of characters living in different spatiotemporal layers are organically joined and reconstructed through ports.

In addition, it highlights the placeness of Jeju Island, which metonymizes Jeju Port, so that microhistories are not only viewed within it, but are thought extensively within a larger historical horizon. The inner form of th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ovel called series expands the historical horizon by collecting this discursive continuity through segmented and fragmented narratives through a one space(Jeju Port) and creating an integrated and heterogeneous narrative. In this process, the fragmentary historical tragedies of Jeju Island and the current events of the islanders are newly meaningful in a huge temporal layer and in a complex link of spatial awareness. Therefore, this series shows that communityism, spirit of resistance and counter-discussion against externally-given placelessness are not independent, but one of the overall 'local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오경훈 연보[174]

1944(1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서 아버지 오태표(吳泰杓), 어머니 김숙화(金淑和)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1월 19일).
아버지가 한의사로서 부유한 가정이었음.

1948(5세) 제주 4·3 발발. 한라산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제주읍으로 이사하기 위해 예금 인출, 부동산 매각 등으로 모아두었던 현금과 가재 일체 소실(12월 3일).

1950(7세) 세화초등학교 입학.

1954(11세) 4·3 피해의 충격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아버지 별세.

1956(13세) 세화중학교 입학.

1959(16세) 부산공업고등학교 입학.

1960(17세) 4·19혁명 이후 오현고등학교로 전학.

1962(19세) 제주대학교 병설교육과(현 제주교대) 입학.
아동문학서클을 조직하여 활동함.

1963(20세)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제주대 학보인『제대신문』에 게재하였다가 무기정학 당함.

1964(21세) 무기정학으로 인한 출석 미달로 9월에 졸업.
구좌중앙초등학교로 첫 발령 받음.

1965(22세) 박순옥(朴順玉)과 결혼.

1966(23세) 장녀 은미(恩美) 출생.
육군에 입대.

1969(26세) 육군에서 3년 복무하고 제대.
차녀 은정(恩貞) 출생.

---

174) 이 연보는 제주작가회의 엮음,『제주의 작가들 2』, 심지, 2005, 150~152쪽을 토대로 추가,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72(29세) 장남 유진(柳津) 출생.

1974(31세) 『제주문학』 10월호에 단편소설 「우도」 발표.

1976(33세) 『현대문학』에서 단편소설 「표류」로 초회추천 받음.

초회 추천자(오영수)의 타계로 완료추천 지연.

1977(34세) 『현대문학』 6월호에 단편소설 「표류」 발표.

1981(38세) 『교육제주』 12월호에 단편소설 「그래도 한세상」 발표.

1984(41세) 『교육제주』 1월호에 단편소설 「나래 지친 새야」 발표.

김병택, 고시홍 등과 함께 『경작지대』 동인으로 활동.

『경작지대』 제1집에 단편소설 「밀항의 하늘」, 「바람 부는 땅」 발표.

1986(43세) 『경작지대』 제2집에 중편소설 「유배의 땅」 발표.

1987(44세) 『현대문학』 1월호에 단편소설 「사혼(死婚)」으로 완료추천(추천자 하근찬).

『현대문학』 7월호에 단편소설 「역사 만들기」 발표.

— 평론가 김영화로부터 증언과 기록이 갖는 의미를 점검한 소설이라는 평을 받음(「독자의 상상력과 작가의 상상력」, 『현대문학』 8월호).

『경작지대』 제3집에 단편소설 「작은 섬」 발표.

1988(45세) 『현대문학』 2월호에 단편소설 「당신의 작은 촛불」 발표.

— 평론가 김윤식으로부터 이종 인물형이 창조된 점에서 참신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음(「남의 목소리, 내 목소리, 또는 주변적인 것」, 『문학사상』 3월호).

1989(46세) 25년 동안 몸담아온 교직 사퇴. 한라일보사 문화부 차장으로 입사.

『경작지대』 제4집에 중편소설 「남도(南島)의 여인」 발표.

『현대문학』 6월호에 중편소설 「유배지(流配地)」 발표.

— 평론가 임헌영으로부터 중간계층의 행동반경의 한계를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을 받음(「중간계층의 현실대응」, 『현대문학』 7월호).

1992(49세) 『천주교 제주교구 평협회보』 11월호에 단편소설 「호랑가시나무 추억」 발표.

1993(50세) 첫 창작집 『유배지』 발간(신아문화사).

1994(51세) 한라일보사 논설위원 겸 출판국장으로 재직하다 사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 민예총)가 창립하면서 문학위원회에서 활동.

1997(54세) 4·3 소재 장편소설『날개의 꿈』출판(출판문화 풍신).

1998(55세)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제주작가회의) 창립 회원.

1999(56세) 제주작가회의 기관문예지『제주작가』제2호와 3호에 단편소설「은폐」, 단편소설「바람 속에서」발표(추후「유한(有恨」으로 개제, 일부 개작하여『제주항』연작 단행본에 포함).

2001(58세) 4·3 소재 장편소설『날개의 꿈』을 개작하여『침묵의 세월』로 개제 출판(디딤돌).

—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우량도서로 구입, 전국 농어촌 지역 도서관에 배부.

『제주작가』제7호에 단편소설「가신 님」발표(추후『제주항』단행본에 포함).

2002(59세)『제주작가』제8호에「객사 - 제주항 1」발표.

『제주작가』제9호에「모변 - 제주항 2」발표.

—『제주작가』의 기획 연재물 '작가를 찾아서'의 대상 작가.

(함승보,「대담 - 역사적 진실과 투철한 산문정신」,『제주작가』9호, 김동윤,「작가론 - 변방의 한계 혹은 변방의 가능성」, 같은 책).

2003(60세)『내일을 여는 작가』제31권에「아, 제주항」발표(추후『제주항』단행본에「비극의 여객선」으로 개제 수록함).

『제주작가』제10호에「빌린 누이 - 제주항 3」발표.

『제주작가』제11호에「동거 - 제주항 4」발표.

2004(61세)『제주작가』제13호에「기념탑 - 제주항 5」발표.

2005(62세)『제주작가』제14호에「어선부두 - 제주항 6」발표.

—「어선부두 - 제주항 6」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2분기 우수작품 발표 작가에 선정됨.

연작소설『제주항』단행본으로 출간(도서출판 각).

『제주작가』제15호에「탑동광장 - 제주항 7」발표.

2006(63세)『제주작가』제16호에「진상 가는 배 - 제주항 8」발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작가』 제17호에 「항구다방 - 제주항 9」 발표.

2007(64세) 『제주작가』 제19호에 단편소설 「깡통」 발표.

2012(69세) 『제주작가』 제37호에 단편소설 「마을제」 발표.

2016(73세) 『제주작가』 제55호에 중편소설 「맹꽁아 너는 왜 울어」 발표.

2020(77세) 『제주작가』 제68호에 단편소설 「가깝고도 먼 곳」 발표.

2021(78세) 『제주작가』 제74호에 단편소설 「열쭝이 사설」 발표.

2022(79세) 『제주작가』 제77호에 단편소설 「사교(邪敎)」 발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